

정책연구

2026-18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Expanding the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Jeonbuk through ODA Projects

박자경 박지애 복혜리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박자경

서울대학교 교육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박지애

University of Florida 사회학 박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복혜리

KDI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석사
한국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촉연구원
전북연구원 연구원

Jeonbuk State Institute

정책연구

2026-18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for Expanding the Attrac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to Jeonbuk through ODA Projects

박자경 박지애 복혜리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박자경	연구위원	연구총괄, 제1장, 2장, 3장, 4장, 5장
공동연구	박지애	연구위원	제2장(3,4,5절), 4장 일부
	복혜리	연구위원	제2장(1,2절), 3장(1절)

연구관리 코드 : 26JU1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대학의 충원 자원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견인할 글로벌 인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대상국과 전공 분야 및 유입 경로를 다각화하여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ODA사업과 협력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우수인재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대학의 특성화 교육과정과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연계한 차별화된 유학생 유치·양성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는 국내 및 전북의 ODA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현황, 국내외 연계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ODA 네트워크, 지역대학의 교육역량, 지역산업의 인력수요 및 정착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 연구방법

- 국내 ODA 추진 사업의 유형과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전북특별자치도의 ODA사업 추진 현황,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문헌 및 정책자료를 분석함. 중앙부처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정책과 전북지역 유학생 현황을 검토함. 이와 함께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ODA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전북형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구체화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비전 및 목표

- 국내 정책현황과 국내외 유학생 유치 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함.
‘ODA로 세계와 인재를 잇는 글로벌 전복’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함. ODA사업 연계 유치 경로 신설로 유학생 저변 확대,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유치로 지역상생형 유학생 확대, 유학생 유치-정주를 잇는 파이프라인 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
- 비전 및 목표에 따른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함. ODA 네트워크 기반 인재통로 구축, 대학-국제기구 거점 연계 학위과정 유치 확대, 교육유형별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업 연계 정주지원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전략별로 추진과제를 3개씩 제시함

비전	ODA로 세계와 인재를 잇는 글로벌 전복		
목표	1. ODA 사업 연계 유치 경로 신설로 유학생 저변 확대 2.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유치로 지역상생형 유학생 확대 3. 유학생 유치-정주를 잇는 파이프라인 완결성 제고		
전략	ODA네트워크기반인재통로구축	대학-국제기구거점연계 학위과정유치확대	교육유형별맞춤형인재양성 및산업연계정주지원
	- 전북 우호협력국 및 ODA 협력국을 기반으로 한 전략국가-전략분야 선정 - 국제협력진흥원 KOICA-KOPIA 등 기존 ODA 사업 연계 인재유치 경로 발굴 - 전략국가 현지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인재 발굴-추진 네트워크 구축	- 전북 주요 거점대학의 특성화 학위과정과 연계한 지역산업 맞춤형 유학생 유치 - 국제기구 개발협력 의제와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 - 도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및 국제개발협력 학위과정 운영 강화	- 직업계고-전문대학(폴리텍)-일반대학-대학원 교육단계별 맞춤형 유학생 유치사업 운영 - 유학생의 교육수준, 전공, 진로경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단계별 인재양성체계 구축 - 지역산업 수요 연계한 유학생 취업-정주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 전북형 ODA 글로벌 인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규) -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를 통한 전북 유학 브릿지 사업 (확대) - 우호협력국 연계 지역주도형 ODA 인재교류사업 (신규)	- 세계농업대학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 확대 (확대) - 전북 주력산업 연계 글로벌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신규) - GKS 연계 지역특화 장학-학위 과정 유치 확대 (확대)	- 전북형 글로벌 직업계고 유학생 인재양성 트랙 구축 (신규) - 전문대학-폴리텍 연계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확대) - 지역산업 연계 유학-취업-정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확대)

차 례

CONTENTS

요약	i
----------	---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 목적	7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7
가. 연구 범위	7
나. 주요 연구 내용	8
3. 연구 방법	10

제2장 자치단체 ODA사업 및 유학생 관련 정책 분석

1. 국내 ODA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	13
가. 국내 ODA사업 유형 및 추진체계	13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17
다. 국내 ODA사업 주요 성과	21
2. 전북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28
가. 전북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	28
나. 전북특별자치도 ODA 추진체계	32

3. 중앙부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동향	34
가. 시기별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34
나.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37
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42
라. 고용노동부, 중기부, 산업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44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48
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54

제3장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1. 국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63
가. 초청연수 기반형	64
나.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69
다. 국제기구 연계형	72
라. 지자체 주도형	75
2.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78
가. 일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79
나. 독일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88
다. 호주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98
3. 종합 및 시사점	110

제4장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1.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방향	115
---------------------------------------	-----

가. 방향 설정	115
나. 비전 및 목표	117
2.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과제	120
가. 전북형 ODA 글로벌 인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규)	120
나.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를 통한 전북 유학 브릿지 사업 (확대)	122
다. 우호협력국 연계 지역 주도형 ODA 인재교류 사업 (신규)	125
라. 세계농업대학 연계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 확대 (확대)	128
마. 전북 주력산업 연계 글로벌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신규)	131
바. GKS 연계 지역특화 장학·학위 과정 유치 확대 (확대)	133
사. 전북형 글로벌 직업계고 유학생 인재양성 트랙 구축 (신규)	136
아. 전문대학·폴리텍 연계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확대)	139
자. 지역산업 연계 유학-취업-정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확대)	142

제5장 결론

1. 결과 요약	147
2. 정책 제언	150

참고문헌	152
------------	-----

표 차례

LIST OF TABLES

[표 1-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4
[표 2-1] ODA 추진체계	16
[표 2-2] 광역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현황	21
[표 2-3] 지자체 ODA사업 운영 현황	24
[표 2-4]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29
[표 2-5] 전북형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추진내역('17~'26년 예정)	30
[표 2-6] 전북지역 ODA사업 참여 현황	31
[표 2-7] 시기별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및 교육부·법무부의 정책 동향	35
[표 2-8]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추진과제별 세부전략	39
[표 2-9] 교육 ODA 재구조화 세부내용	40
[표 2-10] 광역지자체별 광역형 비자 유학(D-2) 유형 주요 맞춤형 요건	43
[표 2-11]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사업 유형	45
[표 2-12]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교육과정 구성(안)	46
[표 2-13] K-수출전사 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안)	46
[표 2-14]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시도별 분포 비율	49
[표 2-15]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50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국가 분포	51
[표 2-17] 각 대학별 RISE사업 세부 추진과제	56
[표 3-1] 세계농업대학 1단계 준비기 학생 유치 계획	73
[표 3-2] 세계농업대학 2단계 준비기 학생 유치 계획	74
[표 3-3] 경북도 추진 사업 및 규모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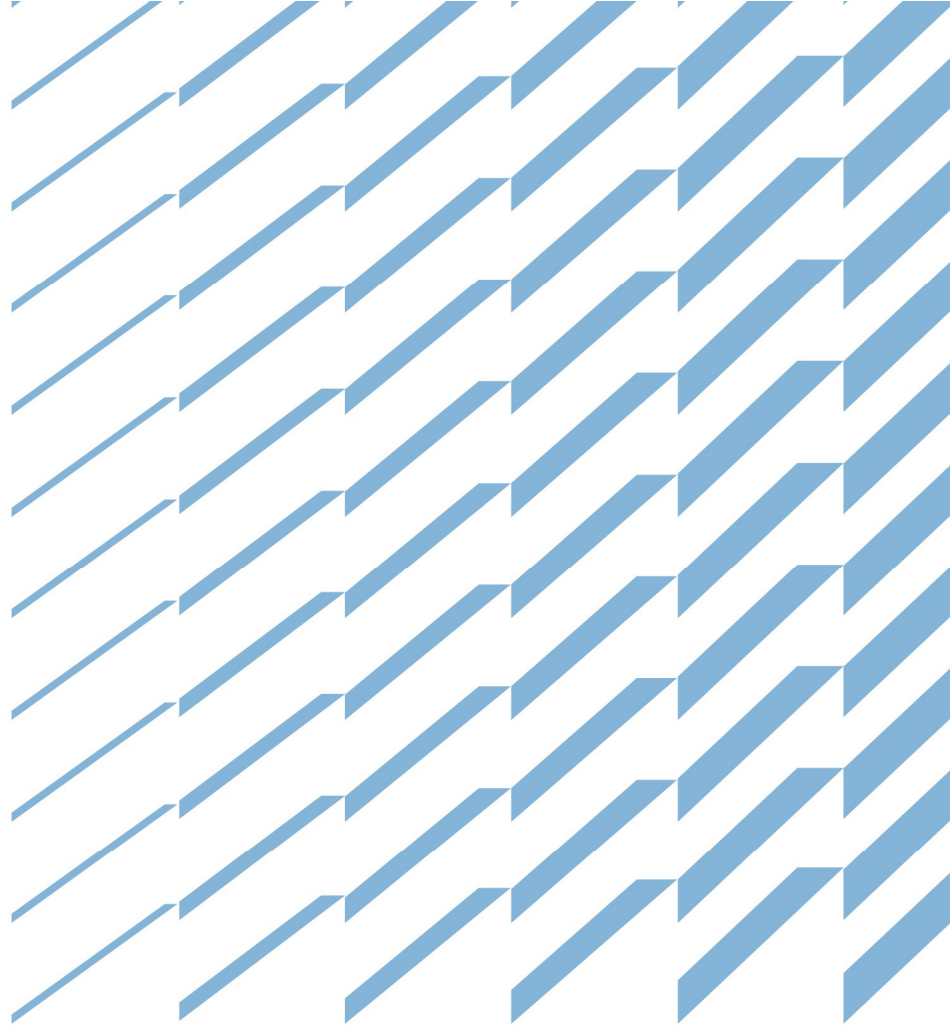
[표 3-4] 2024-2026년도 JICA 유학 제도를 통한 주요 인재 양성 사업	80
[표 3-5] 2013-2025 아이치현 장학 사업 수혜 학생 출신국가	87
[표 3-6] 독일 고등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	89
[표 3-7] 호주 고등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	99
[표 3-8] MAP의 우선분야 및 세부 교육분야	107
[표 3-9] 국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유형별 주요내용	110
 [표 4-1] JB 글로벌 인재협력 협의체 구성(안)	121
 [표 5-1] 전략별 추진과제	149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목표와 지역정책적 의의 변화	5
[그림 1-2] 연구수행 주요 내용	8
[그림 2-1] ODA 추진체계	15
[그림 2-2] 시행기관별 ODA 지원 실적	16
[그림 2-3] ODA 기본 정신과 목표	17
[그림 2-4]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20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ODA 방향 및 추진전략(2025)	33
[그림 2-6] 제1차~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	36
[그림 2-7]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목표와 지역정책적 의의 변화	37
[그림 2-8] 「Study Korea 300K Project」 비전 및 정책목표	38
[그림 2-9] RISE 체계 내 유학생 유치·양성 협력모델(안)	41
[그림 2-10] K-STAR 비자트랙 제도 개요	44
[그림 2-11] 전체 대학/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국내 전체)	48
[그림 2-12] 시도별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	49
[그림 2-13] 전국 및 전북의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	52
[그림 2-14]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형태(2025년)	52
[그림 2-15]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졸업자 졸업 후 진로(2022년)	53
[그림 2-16] 해외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	55
[그림 2-17] 유학생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과제	57
[그림 2-18]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 전주비전대학교 예시	59
[그림 3-1] 사업수행체계 도식	70

[그림 3-2]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모델(안)	71
[그림 3-3] JICA-DSP 프로그램 구조	81
[그림 3-4] JICA-Epson 협력 재체결 안내 및 Epson 지역이해 프로그램 참여 사례 사진	83
[그림 3-5] 오비히로 축산대학의 Agri-Net ODA 유학생 연계 교육과정	86
[그림 3-6] 호엔하임대학교 AgEcon의 협력국 현장연구 기반 석사논문 사례 ·	92
[그림 3-7] 라이프치히대학교 SEPT MBA 학기별 교육과정 구성	94
[그림 3-8]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EDev 교육과정 단계 구성	96
[그림 3-9] ACIAR 농업 인재양성사업의 역량강화 변화이론	104
[그림 3-10] Mekong-Australia Partnership의 협력분야 및 주요 사업내용	106
[그림 3-11]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유형별 주요 사례	111
 [그림 4-1] 비전 및 목표, 전략	 117
[그림 4-2] JB글로벌 인력협력 협의체(안)	121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제 1 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심화로 지역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전략적 유치와 정주가 지역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는 합계출산율 저하, 학령인구 감소,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음. 도내 14개 시군 중 11개가 인구감소지역이고 1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의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상황임
- 이는 지역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문제로 직결되어 지역의 교육·연구 생태계 자체를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전북지역 일반대학 모집정원 비중 역시 전국 대비 축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대학의 정원 미달 수준을 넘어서 지역 경제 전체의 침체와 지역 내 인력 공급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는 지방소멸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대학과 지자체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패러다임이 단순히 대학의 입학자원 확보를 위한 ‘유치’에서 국가적 인구절벽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인적자원 양성과 ‘정주’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음
- 정부는 ‘Study Korea 300K Project’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유학생의 숫자만 늘리는 양적 팽창은 중도 탈락자 증가 및 불법체류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음. 실제 전북지역 대학의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유의미하게 나타

나고 있으며, 졸업 후 국내 취업 및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임

[표1-1] 국내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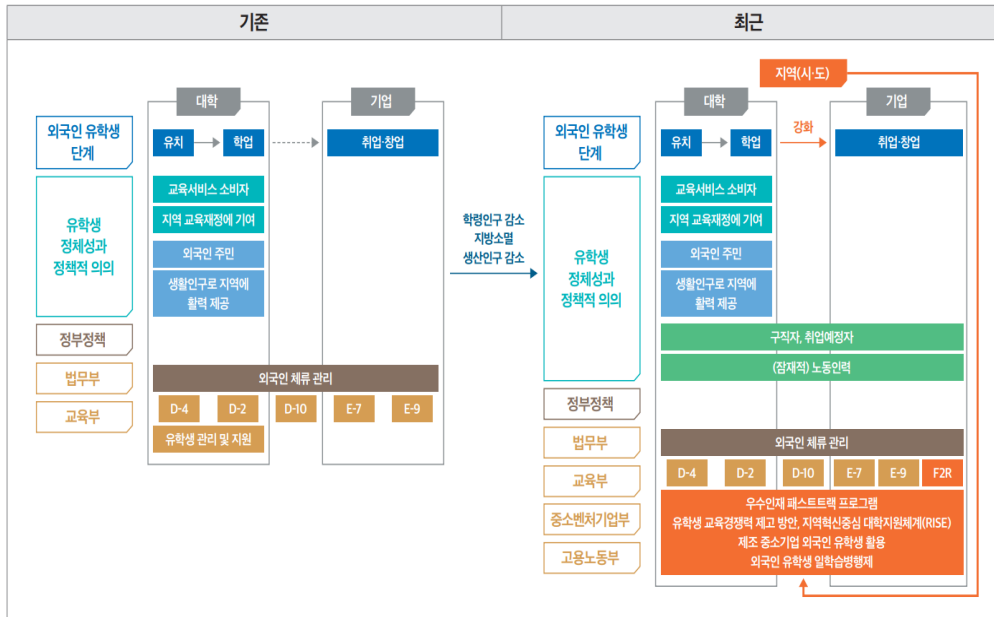
시기	외국인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2000년대	Study Korea Project(2005~2012)	양적유치 ↓ 질적관리, 양적유치 ↓ 취업 및 정주지원, 양적 유치, 질적관리
2010년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2011~) Study Korea 2020 Project(2013~2023)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2014)	
2020년대	Study Korea 300K Project(2023~2027) 유학생 유치를 위한 규제 혁신 대학·기업·지자체 간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조직체계 구축	

자료: 박주현 (202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논의,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살펴보면, 유학생을 대학 입학자 원 확보의 대안으로만 보지 않고, 인재로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국내 정주를 유도하는 것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함.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학위 취득자가 아닌, 지역 산업에 기여할 '예비 도민'으로 인식하고 유치 단계부터 교육, 취업,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함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와 관련한 정책은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 중앙부처는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주도하며,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함
 - 특히, 교육부는 지역수요 맞춤형 유학생 유치·양성계획(Study Korea 300K)을 발표하고, RISE사업, 글로벌 대학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양성 정책을 지원하고자 함
-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학생 관련 부서를 운영하여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유치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임



자료: 서연미 외.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국토정책 Brief, 1037호

[그림 1-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목표와 지역정책적 의의 변화

■ 비수도권 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양적·질적으로 한계에 직면함에 따라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치 경로 및 지원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전북지역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00년도에 약 150명 내외에서 최근에는 10,000여명을 넘는 등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전북 도내 유학생들의 지역 정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학위과정보다는 체류기간이 짧은 어학연수와 같은 비학위과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신호로 보여짐
- 실제 비수도권 대학 학위과정 유학생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어학연수 등 비학위과정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유학생들의 지역 내 체류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를 시사함. 특히 일부 유학생이 비수도권 대학을 초기 진입 경로로 활용한 뒤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졸업 이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차원의 정주 및 유출 방지를 위한 전략 마련이 요구됨

■ 자치단체 ODA사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정책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유차-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단계별 연계 전략 및 실행 방안 도출이 필요함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는 선진국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의미함. 우리나라 ODA사업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를 통해 관계부처 및 기관, 지자체를 통해 사업이 수행되어 오고 있음. 2025년 ODA사업 규모는 6조 5,010억 원으로 원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추세임
- 전북지역의 경우 자치단체 차원의 ODA사업 추진이 미흡한 편이며, 특히 현지 네트워크와 우호 협력 관계를 통해 해당 국가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등의 유입 통로를 위한 ODA사업 활용이 필요한 상황임

■ 자치단체 ODA사업과 대학 교육 인프라를 연계한 전략적 유치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 맞춤형 유학생 인재양성 및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함

- ODA 수요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인재가 해외 선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수용국 입장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어 상호 호혜적인 관계 형성이 가능할 것임
- 지자체의 ODA사업은 수요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강력한 유치 경로가 될 수 있으며, 지역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또한, 농생명, 바이오 등 전북의 특화 산업 ODA와 유학생 유치를 연계할 경우, 산업 현장에 적합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유학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의 양질의 교육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지역 기반 비자 지원 및 주거 지원, 그리고 지역 기업의 채용 수요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함. 즉, 자치단체 ODA 자원과 대학의 교육 역량, 지역 산업의 고용 인프라, 비자 지원 등을 결합한 '전북형 ODA 연계 유학생 유치 모델'을 체계화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나.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과 유학생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자치단체 ODA사업과 연계하여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되는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유학생 유치 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정책 동향을 분석함
- 둘째, ODA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유학생을 유치하고 정주시키고자 한 실제 사례를 분석함. 국내 주요 대학의 ODA사업 연계 사례를 확인하고,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를 분석함
- 셋째, 정책 현황 및 사례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북형 ODA사업 연계 유학생 지원방안을 도출함.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전략별 세부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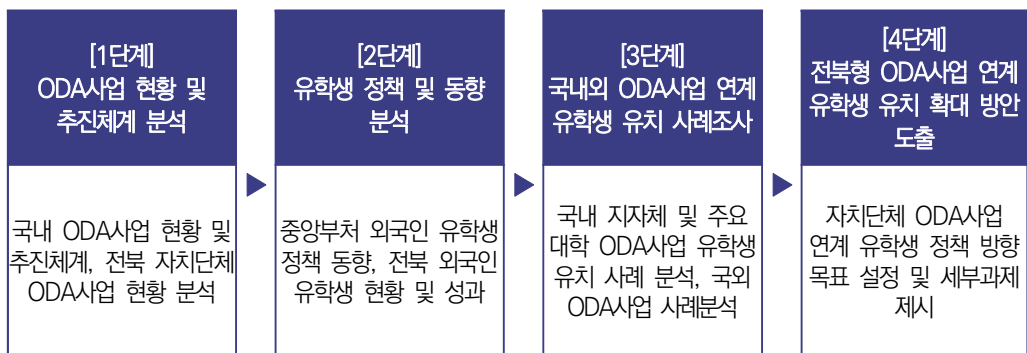
가.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북특별자치도
- 내용적 범위
 -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국내 ODA사업 유형 및 ODA 중점협력국 사업 동향, ODA사업 추진체계 분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기본계획 및 인재양성 ODA 주요 계획 등 동향 파악, 전북 자치단체 ODA사업 운영 기관 현황 및 협력체계 분석
 - (국내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동향 및 성과) 중앙부처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현황,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사업 유형 및 주요 내용, 정책 추진 성과 및 한계점 분석

-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지자체별 자치단체 차원의 ODA사업 운영 사례, 주요 대학 KOIC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지원 사례, 지자체-대학 연계 ODA사업 운영 사례 등 조사,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조사
- (전북형 ODA사업 연계 유학생 지원방안)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정책 방향 및 목표 설정,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제시

나. 주요 연구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과 유학생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자치단체 ODA사업을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과 연계하는 정책 모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연구는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분석’, ‘유학생 정책 및 동향 분석’,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조사’, ‘전북형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확대 방안 도출’의 연구 구성과 흐름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그림 1-2] 연구수행 주요 내용

1) 자치단체 ODA사업 및 유학생 정책 분석

- 국내 ODA사업의 유형과 ODA중점 협력국 사업 동향, ODA사업 추진체계 등을 분석함. 특히,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인재양성 ODA 주요계획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 방안을 위한 중앙 정책의 현황을 확인함

-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수행 중인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를 분석하고 운영상의 한계점 등을 확인함
- 중앙부처 외국인 유학생 지원 정책 현황은 교육부, 법무부, 중기부 등의 다양한 부처의 정책 현황을 확인함. 이와 함께 전북 유학생 정책 현황 및 성과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 등에 대해 확인함

2)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 국내 지자체와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ODA사업과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례를 분석함. 지자체 차원의 ODA사업 운영과 유학생 유치·정착지원 사례를 살펴보고, 대학의 개발협력사업이 유학생 유치와 인재양성으로 연계되는 방식을 확인함. 이와 함께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하여 ODA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분석함
- 국외 사례로는 일본, 독일, 호주 등의 ODA사업과 유학생 유치 및 인재양성 정책을 분석함. 일본 JICA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차원에서 개발도상국 인재를 유치하고 지역 산업 및 정부와 연계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독일의 DAAD EPOS 프로그램과 호주 외교통상부의 개발협력 장학·인재양성 사업 등을 통해 ODA와 고등교육 및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정책적 특징을 확인함

3) 전북형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방안

- 국내외 ODA사업 및 유학생 유치 사례와 전북의 정책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형 ODA사업 연계 유학생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함. ODA사업을 활용한 유학생 발굴·유치에서 교육, 취업 및 지역 정착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목표를 제시함
- 대학의 교육역량과 전북의 지역산업 및 ODA사업 분야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과제를 제시함. 협력국 인재 발굴 및 선발, 대학 교육과정 연계,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 유학생의 유입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과제를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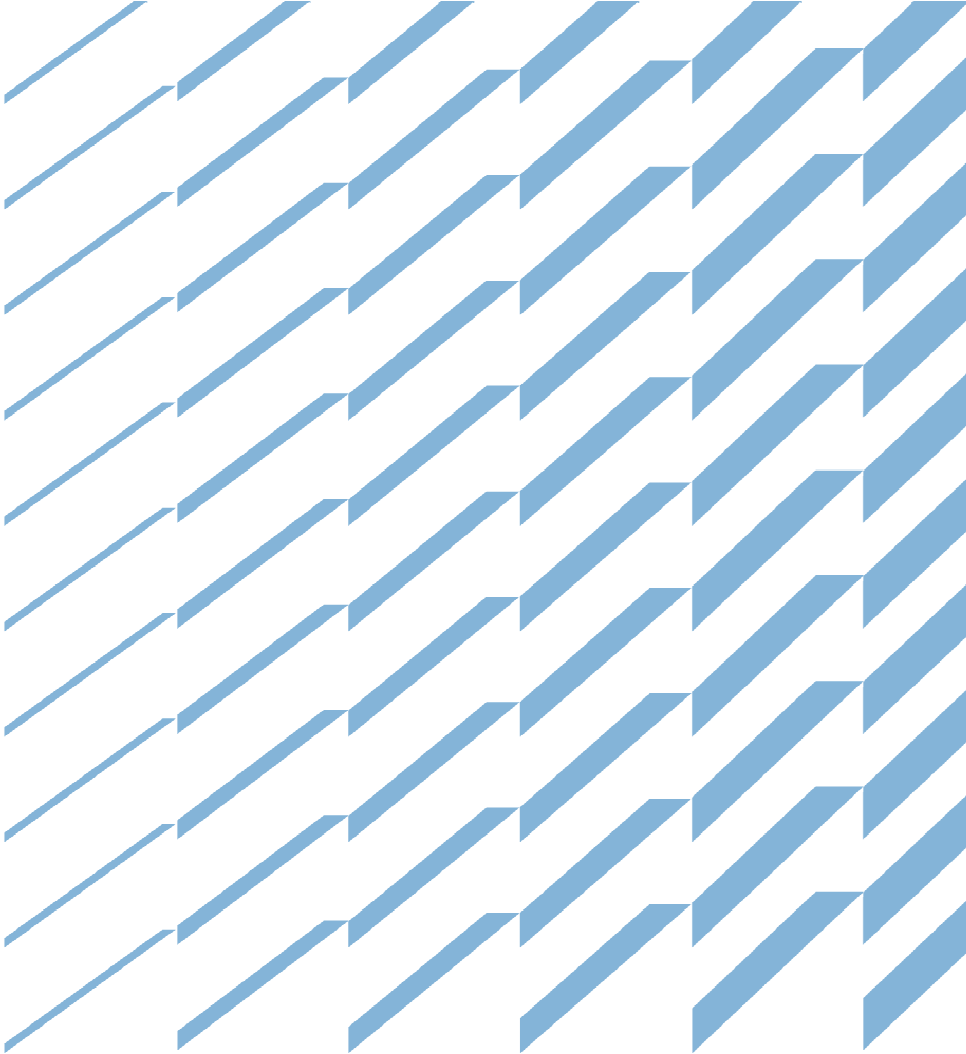
3.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 (ODA사업 관련 문헌 분석) 국내 ODA사업 유형 및 ODA 중점협력국 사업 동향, ODA 사업 추진체계 등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인재 양성 ODA 주요계획’ 등 인재양성 분야 관련 국제개발협력 자료를 분석함. 전북 차원의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과 추진체계 등의 관련 문헌을 분석함
- (유학생 정책 관련 문헌 분석) 중앙부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동향 분석 연구와 전북지역 유학생 정책과 관련한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여 외국인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전북지역의 정책 추진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함
- (사례조사) ODA 사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사례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지자체별·대학별·국가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북형 ODA 연계 유학생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가능한 벤치마킹 요소를 도출하고자 함
- (이해관계자 인터뷰) ODA 사업 담당자, 대학 관계자, 외국인 유학생 정책 담당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제약 요인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정성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및 실무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함

2) 전문가 자문회의

- (전문가 자문회의) ODA 및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기관, 학계, 정책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진행하여 유학생 지원정책의 방향성과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함. 이를 통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정책의 정책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음



제2장

자치단체 ODA사업 및 유학생 관련 정책 분석

1. 국내 ODA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
2. 전북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3. 중앙부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동향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제2장 자치단체 ODA사업 및 유학생 관련 정책 분석

1. 국내 ODA사업 현황 및 주요 성과

가. 국내 ODA사업 유형 및 추진체계

■ ODA 정의

- 국제교류협력이 가장 광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ODA 순으로 협의의 정의라고 볼 수 있음
- (국제교류협력) 「경기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국제교류협력이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의미함
-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간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 존재하는 개발 및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의미함
- (공적개발원조, ODA)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를 가리키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현행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ODA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합의되지 않음. 다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유·무상의 개발협력을 의미함. 지자체 ODA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기관인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법령상 구체적인 지자체 ODA 정의의 부재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 왔음(박광동, 2014)

■ ODA사업 유형 및 추진체계

- 우리나라 ODA 운영 체계는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뉨. 유·무상 원조의 효과적 조정 및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설치 및 ODA를 전체적으로 총괄하여 운영 중임(ODA 통합누리집)
- 양자원조는 협력대상국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며, 다시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¹⁾와 유상원조²⁾로 구분됨. 무상원조 성격의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은 외교부 감독하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시행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형태의 유상원조는 재정경제부 감독하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고 있음
- 반면, 다자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제금융기구 및 유엔·기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포함함.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외교부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출자·출연은 재정경제부가 분담해서 주관하고 있음
 -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서 ODA를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도 구분함.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 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만 부여하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한 경우를 지칭함.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약 없이, 협력대상국이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제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자유롭게 조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함(국무조정실)
- 현행 우리나라 ODA 사업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한 총괄·조정기관-주관기관-시행기관의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총괄·조정 영역에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국제개발협력본부, 평가전문위원회가 포함되며, 주관기관에는 재정경제부와 외교부가 위치함. 시행기관은 관계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됨

-
- 1)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현금·현물·인력·기술협력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긴급재난구호를 포함하며 상환의무가 없음
 - 2)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 상환의무가 있음

- (총괄·조정기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 의거,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마련함.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단체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ODA 총괄 및 조정 기구로서, ODA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ODA 최고 정책기구를 지칭함. 2021년 2월에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국제개발협력본부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사무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ODA 통합누리집)
- (주관기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 및 제12조 의거, 재정경제부와 외교부는 각각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주관기관으로,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을 작성하며, 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있음
- (시행기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을 총칭하는 시행기관은 구체적으로 수출입은행(EDCF)·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을 의미함. 당해 기관들은 소관 분야 및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ODA 사업을 지원함. 세부적으로 시행기관은 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을 종합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자료: ODA 통합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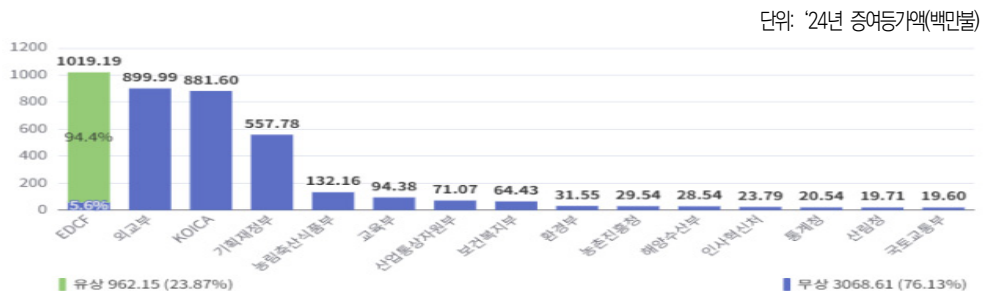
[그림 2-1] ODA 추진체계

[표 2-1] ODA 추진체계

협력 형태			시행기관	주관기관	총괄
양자 원조	무상원조 (증여)	물자공여, 현금공여, 프로젝트형 사업, 기술협력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외교부	국제개발 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유상원조 (비증여)	개발협력차관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한국수출입은행	재정경제부	
다자 원조	국제기구 출연 및 출자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외교부	외교부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국제기구 출자금(국제금융기구)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자료: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우리나라 ODA 지원 실적은 2020년 2,250.02백만불, 2021년 2,872.51백만불, 2022년 2,809.54백만불, 2023년 3,160.26백만불, 2024년 4,030.76백만불로 나타남. 2022년에 일시적 조정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며 특히 2024년에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우리나라 ODA는 양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확대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유형별로 보면, 2024년 총 ODA 4,030.76백만불 중 양자 무상원조는 2,226.28백만불, 양자 유상원조는 962.15백만불, 다자원조는 842.33백만불로 나타남. 이는 최근 우리나라 ODA가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유상원조와 다자원조도 일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함. 즉, 우리나라 ODA는 무상원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유상·다자원조를 포괄하여 지원 중임을 나타냄



자료 : ODA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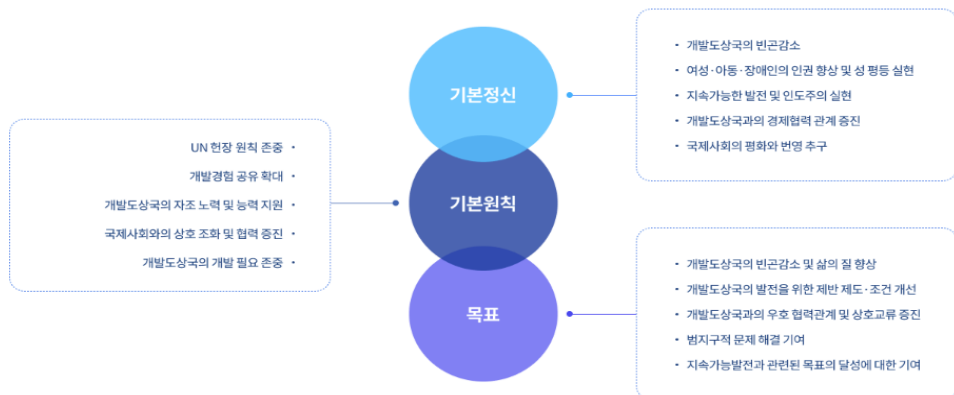
[그림 2-2] 시행기관별 ODA 지원 실적

- 시행기관별 ODA 지원 실적을 보면, 2024년 EDCF가 1,019.19백만불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외교부 899.99백만불, KOICA 881.60백만불, 기획재정부 557.78백만불 순으로 나타남.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도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우리나라 ODA가 특정 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다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집행체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

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주요 내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해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법정계획인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계획은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관계부처의 책임성과 협업의 기반을 마련하며,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보장, 한국 ODA 정책이 제도적·법적 기반을 확보한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함(한국행정연구원, 2025).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DAC 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로 3차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함
- [그림 2-3]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우리나라 ODA의 기본정신, 기본원칙, 목표를 도식화한 것임



자료: ODA 통합누리집

[그림 2-3] ODA 기본정신과 목표

- 국제사회의 공여국으로서 본격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최초 수립된 제1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0-2015)은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과 역량 강화, ODA 자금 유입 활성화, 개도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증진 등을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전략으로 국별협력전략의 수립과 유·무상 원조 연계 강화 및 정부와 민간 연계 확대, 다자원조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 강화, ODA 평가 역량 강화, 개발협력 공유, 홍보 및 전문인력 등과 같은 전략을 설정함(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동 계획의 특징은 ODA 기초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이며,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서 수여국에서 신흥 공여국으로 전환하였고, ODA 기본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25). 하지만 ‘원조의 효과성 제고’, ‘사업 간 조정과 연계’, ‘민간부문 등과의 협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는 평가를 받음(김혜경, 2016)
- 제1차 기본계획의 추진 결과와 SDGs를 반영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은 개발협력의 질적 향상과 효과성 강화, 맞춤형 ODA 전략, 민관협력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 확대와 위상 강화, 기존 단순한 원조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개발협력 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통합적·내실있는·함께하는 ODA 3대 추진전략을 내세움(관계부처 합동, 2015). 동 계획은 우리나라 ODA를 SDGs와 연계하여 국내 사회로의 시선을 국제사회 이슈로 전환했다는 점과 기본 원칙과 주요 목표를 유·무상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25). 반면, 동 계획은 국내 재정 상황 악화 및 타 분야 재정수요 증가로 인해 1차 계획에 비해 ODA 자원 확대 목표를 하향 설정하였고, 과제들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선언적 방향 설정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김혜경, 2016)
- 포용적 회복과 SDGs 이행 가속화를 주요 목표로 강조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은 ODA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의 설정, SDGs 이행 촉진, 개발협력의 포용·상생·혁신·협력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포용적·상생하는·혁신적·함께하는 ODA를 추진전략으로 설정함(관계부처 합동, 2021). 동 계획은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을 주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및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K-방역의 강점을 반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임. 또한 보건·교육·공공행정 등 중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했으며, 교육을 포함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여 ODA 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6). 다만, 문재인 정부에 수립되어 윤석열 정부에 시행됨에 따라 수립과 이행 주체 간 불연속성으로 인한 한계가 있음(한국행정연구원,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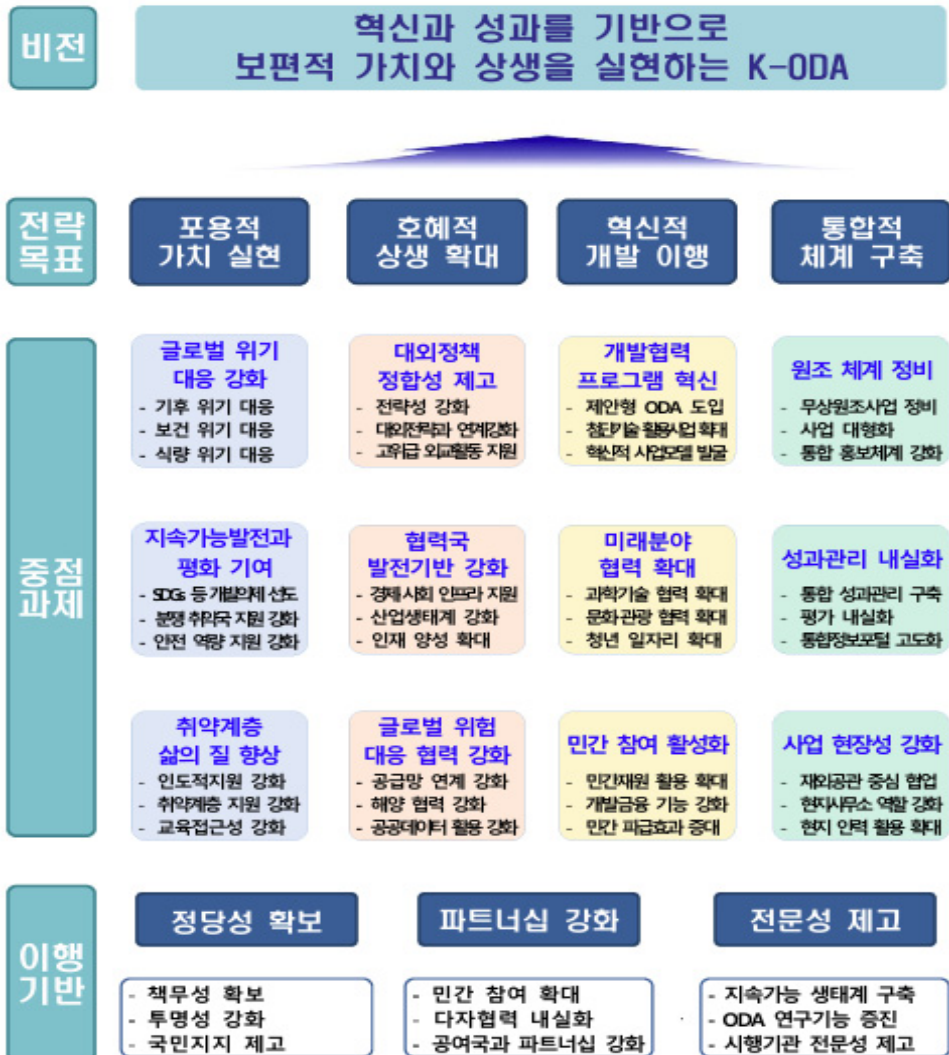
- (교육 분야 지원 규모) '20년(2,886억원) → '25년(3,783억원)

- (공공행정 분야 지원 규모) '20년(2,328억원) → '25년(4,166억원)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의 비전은 “혁신과 성과를 기반으로 보편적 가치와 상생을 실현하는 K-ODA”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4대 전략 목표(포용적 가치 실현, 호혜적 상생 확대, 혁신적 개발 이행, 통합적 체계 구축)와 12대 중점과제(글로벌 위기 대응 강화,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기여,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대외정책 정합성 제고, 협력국 발전기반 강화, 글로벌 위험 대응 협력 강화, 개발협력 프로그램 혁신, 미래분야 협력 확대, 민간 참여 활성화, 원조 체계 정비, 성과관리 내실화, 사업 현장성 강화)가 제안됨. 제4차 기본계획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한국이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의 구체적 향방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함(한국행정연구원, 2025)
-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중점과제 “교육접근성 강화” 측면에서, 취학 전+학교 밖 아동을 포함한 기초교육을 지원하여 교육기본권을 향유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도모하며, 교육정보화 추진 경험을 활용하는 등 교육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교육을 통해 교육접근성 강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외에도 STEM³⁾, AI·ICT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며 동시에 현지 대학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인력양성과 연구·기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협력국 발전기반 강화) 중점과제 “경제·사회 인프라 지원 확대”, “산업생태계 조성 강화”, “인재 양성 지원 강화” 측면에서 세부과제를 선정함. 우선 수여국에 디지털 교육 등 물적·인적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속 지원하고 있음.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인재 양성과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직업훈련 지원 강화로 협력국의 산업인력 수요와 직업훈련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는 계획을 선정함. 아울러, 동 계획은 한

3) 과학·기술·공학·수학을 통합해 실제 문제해결을 가르치는 교육

국형 기술직업 교육훈련 시스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훈련-창업보육-시장진출로 연계되는 일체형 생태계를 육성하고자 함.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사전교육-국내 교육-사후관리 등 전주기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하며, 첨단기술 관련 연수 비중 확대, 현지 학생 장학지원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재양성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 그 밖에도 시행기관별 연수·장학사업 정보를 개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함



자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 관계부처 합동

[그림 2-4]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다. 국내 ODA사업 주요 성과

■ 지자체 ODA 사업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과 ‘국제교류협력’ 관련 조례는 다음 [표 2-2]와 같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11개의 광역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 조례를 정비한 데 반해, 전북의 경우 부재한 것으로 파악됨. 이처럼 지자체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지자체별로 편차가 존재하며, 다수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는 지자체 국제개발협력 조례가 부족해(박광동, 2014) 국제교류협력 일반 조례를 통해 ODA를 추진해 왔음

[표 2-2] 광역자치단체 국제개발협력 및 국제교류협력 조례 현황

주제	조례명
국제개발협력	경기도 국제개발 협력사업 지원 조례
	경상남도 국제개발협력 조례
	전라남도 국제개발협력 증진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국제교류협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원 조례
	경상북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2026.4.6. 검색)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현행 조례는 부재하며, 국제교류협력 조례만 제정되어 있음. 즉,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별도의 국제개발협력 전용 조례를 두기보다는, 국제교류 및 지방외교 일반 조례를 기반으로 ODA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구조에 가까움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2024년 12월 27일 시행 및 전부개정)」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110조에 의거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제18조에 부합하는 사업추진 대상지역과 사업 내용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 가능함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제18조 (국제개발협력사업 등) ① 도지사는 개발도상국 지역과의 협력증진, 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1.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해외 고려인 동포 거주지역 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해외 재난재해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개선사업 2. 전문가 파견 및 초청 등 연수사업 3.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사업 4. 재난재해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사업 5.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 종합하면, 지자체 ODA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 제도화 수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함. 일부는 국제개발협력 전용 조례를 두고 있는 반면, 일부는 국제교류·지방외교 조례에 의존하고 있음. 국제교류협력 조례에 따른 ODA 추진 시, 추진근거 및 규정 등이 구체화되기는 어려움. 따라서 전북 ODA 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정합한 지자체 ODA 정의와 국제개발협력 조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선행연구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신승용(2020)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조례가 있더라도 계획, 통계 제출, 평가체계 등 구체적 운영 규정은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으며, 정예은(2021)은 지자체가 시행기관으로서 시행계획안 작성, 자체평가계획 수립, 사업실적 및 통계자료 제출 등 조례상 명시할 필요성을 제안함

- [표 2-3]은 2024년과 2025년 기준 지자체 ODA 사업 현황을 비교한 자료임. 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은 ODA 관련 사업을 편성·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사업유형도 연수사업, 프로젝트, 민관협력, 정책지원, 봉사단 파견, 장학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북도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 개발도상국 불용수납자 양성 및 교육훈련, 개발도상국 해외도시 대상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공유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경기도는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그린 ODA 사업, 개발도상국 보육종사자 무상연수, 주민참여형 사업, STEM 교육사업, 탄소중립 숲 조성 등 다수의 민관협력·프로젝트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경상북도는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중심으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별도의 ODA 사업 편성 및 추진 지자체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즉, 전국 지자체 차원의 ODA 현황 비교표에서 전북은 사업 추진 지자체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전북이 다른 광역지자체에 비해 자체 ODA 사업 추진 경험과 예산 편성 실적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간접적 근거로 이해할 수 있음. 전국 지자체 ODA 현황과 비교할 때 전북의 특징은 “활발한 자체 ODA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라기보다는, 아직 광역지자체 차원의 독자 ODA 사업은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이지만, 향후 지역의 비교우위 분야를 활용한 전북형 ODA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에 있음(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 박지연(2022)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ODA 규모 결정 요인은 중앙정부의 ODA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환경인 것으로 분석됨. 지자체장이 보수당에 속하거나, 지자체 내 외국인 수가 많을수록, 지자체의 ODA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박지연, 2022).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ODA 규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3] 지자체 ODA사업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유형	'24	'25	증감
서울특별시			1,291	953	△338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	연수사업	959		△959
	해외도시 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	연수사업	77		△77
	개발도상국 불용소방차 양여 및 교육훈련	프로젝트	255	153	△102
	개발도상국 해외도시 대상,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공유	기타기술협력		800	800
광주광역시			54		△54
	내용연수 경과 소방차량 개발도상국 무상양여 지원사업	기타기술협력	9		△9
	아시아(캄보디아)광주진료소 지원	민관협력	45		△45
대구광역시			200	200	0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장학지원	200	200	0
부산광역시			60	50	△10
	아시아-태평양 지역 포용적-혁신적 성장을 위한 그린스마트시티 역량 강화 연수	연수사업	60		△60
	도시환경 회복력 정책 개발 지원 프로그램	연수사업		50	50
울산광역시			74		△74
	개발도상국 의료봉사단 파견	봉사단파견	65		△65
	개발도상국 의료진 초청연수	연수사업	9		△9
인천광역시			300	250	△50
	의료봉사 및 초청치료	민관협력	50		△0
	몽골 희망의 숲 조성	민관협력	250	250	0
강원특별자치도			550	530	△20
	지속가능 도시화 역량강화 국제훈련	프로젝트	350	350	0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장학지원 사업	장학지원	200	180	△20
경기도			2,558	1,303	△1,255
	경기청년 해외봉사단	봉사단파견	1,100		△1,100
	그린 ODA 사업	민관협력	360		△360
	민간제안사업	민관협력	780		△780
	개발도상국 불용소방차 무상양여 사업(다국가)	프로젝트	318	383	65
	몽골 방안향고르주와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사막화 방지 경기의 숲 조성 및 환경운동가 양성 사업	민관협력		150	150
	베트남 랑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	민관협력		200	200
	키르기스스탄 그린에너지 확산 구축사업	민관협력		150	150
	키르기스스탄 청년 대상 프로젝트 기반 STEM 교육 사업	민관협력		120	120
	키르기스스탄 탄소중립 숲 조성	민관협력		300	300
경상남도			43		△43
	도민참여형 민관협력사업	민관협력	43		△43
경상북도			2,158	1,680	△478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스리랑카)	프로젝트	355		△355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라오스)	프로젝트	300	200	△100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유형	'24	'25	증감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베트남)	프로젝트	400	220	△180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인도네시아)	프로젝트	551	450	△101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코트디부아르)	프로젝트	302	240	△62
개발도상국 새마을연수 및 보급	프로젝트	250	120	△30
스리랑카 국가차원 새마을사업	프로젝트		450	450
세종특별자치시		7		△7
캄보디아 바탐방주 불용 소방차량 양여	기타기술협력	7		△7
제주특별자치도		200		△20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 평화 ODA 사업	민관협력	200		△200

자료: ODA 통합누리집

■ 인재양성 및 TVET 분야의 ODA 사업성과

- 국내 ODA에서 인재양성 및 숙련인재(TVET) 분야는 단순 시설지원이나 단기연수에 그치지 않고, 정책자문, 제도구축, 연수·컨퍼런스 운영, 인프라 구축, 콘텐츠 개발 및 지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 이는 TVET ODA가 직업훈련 제공 자체보다 직업교육훈련 체계 전반의 구축과 운영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줌(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 KOICA(2025)에 따르면 최근 인재양성 ODA는 협력국의 산업발전과 한국의 외국인력 수요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특히 숙련인재와 전문인재(고등교육)를 연계 육성하고, 교육 이후 일자리 매칭, 국내외 고등교육 기회, 귀환 및 재통합까지 고려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됨. 동 연구는 인재양성·TVET 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로 ICT 활용 능력 보유 비율, 학습자 자격 취득률, 졸업생 취업률 등을 제시하며, TVET 분야 ODA 성과는 단순 참여 인원보다 자격취득과 취업, 노동시장 진입과 같은 결과 지표 중심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암시함(KOICA, 2025)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연구(2016)는 현장평가 결과도 제시하고 있음. 응답자 조사 결과, 한국 직업교육훈련 ODA 사업 수행의 적절성은 투입 예산 규모 3.91점, 사전 타당성 조사 3.72점, 사업 수행 기간 3.76점, 사업 관련 인력 교육 3.83점, 투입 인력의 전문성 3.84점, 모니터링 3.89점,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 3.85점으로 나타남. 이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사업기간, 현지 수요 반영 측면에서는 보완 필요성이 존재함을 시사함(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동 연구는 TVET ODA의 한계도 함께 제시함. 주요 개선과제로는 수원국 수요를 반영한 통합적 접근 부족, 국제규범과 ODA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 대응역량 부족, 장기연수·학위과정·전문가 파견 확대 필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통합적 직업교육훈련 ODA 정책 추진 필요 등이 제시됨. 따라서 TVET ODA는 일정한 성과를 축적했으나, 향후에는 수요분석, 전문성 강화, 장기적 환류체계 측면에서 보다 정교화될 필요가 있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 한국산업인력공단 연구(2022)는 구체적인 성과모형도 제시하고 있음. 우즈베키스탄 후속사업 모델(안)에서는 자격증 취득률 80%, 자격검정 참여율 100%, 일경험 인정 기반 자격취득률 50%, 참여율 100% 등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검정형 자격제도 구축, 과정평가 실행체계 구축, 평가자 양성, 기자재 보급, 일경험 인정체계 구축 등을 주요 산출물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최근 TVET ODA가 시설·훈련 중심을 넘어 자격체계와 평가체계 제도화를 핵심 성과로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국내 대학의 ODA 사업성과

- 전라북도 ODA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22)에 따르면 국내 대학은 ODA사업에서 단순 협력기관이 아니라 사업수행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전북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 KOICA,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지원하는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국제개발협력원을 설립했다고 밝히고 있음. 또한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위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발굴 및 운영을 위한 협업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 참여 실적도 다양하게 나타남. 전북 소재 대학들은 KOICA 대학교 이해증진사업, KOICA 글로벌연수, KOICA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KOICA 봉사단사업, KOICA IBS 사업, KOICA 프로젝트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참여 대학으로는 예수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비전대, 한국농수산대, 한일장신대, 전주대, 전주기전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등이 제시됨. 이는 국내 대학 ODA가 교육·연수·시민사회협력·현장 프로젝트 수행까지 폭넓게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줌

- 동시에 대학은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거점으로도 기능하고 있음.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전북대학교에는 「국제개발협력과 ODA」 강의가 개설되었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강좌와 분야별 심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KOICA YP 총 34명이 ODA 분야 활동으로 이어졌고, 전북지역 대학생 ODA 동아리 총 241명 수료, 월간 세미나 총 26차 진행, 국제개발협력포럼 운영 등의 실적이 제시됨. 이는 대학이 단순 교육 제공기관을 넘어 실제 국제개발협력 진출 인재를 배출하는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임

■ 국내 대학의 인재양성 성과

- 국내대학은 인재양성 분야 ODA에서 수원국 대학의 학과 신설·교육과정 개편·교원역량 강화·초청연수 등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로 활용되고 있음. 특히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은 국내대학의 교육·연구 자원을 활용하여 수원국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대표 사업으로, 에티오피아 최초 재료공학과 신설, 스리랑카 콜롬보 간호대학 3년제 과정의 4년제 개편, 베트남 최초 응급의료교육시스템 구축,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의대 환경보건학과 개설 등 구체적 성과가 확인됨(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의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 발전 ODA 사업, 전북대학교의 베트남 수의학과 신설 및 축산 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사업, 울산과학대학교의 베트남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국내대학의 전공 역량을 수원국 산업수요와 연계한 사례가 확대되고 있음(서울대학교, 2026;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2025; 울산과학대학교, 2025). 이는 대학 ODA가 단순 연수사업을 넘어 수원국의 고등교육 체계 개선과 산업인력 양성 기반 구축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국내대학 기반 ODA 성과는 주로 수원국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현지 인재양성에 초점이 있으며, 이를 국내 유학생 유치·취업·정착 성과로 직접 연결한 사례는 아직 제한적으로 확인됨. 정부의 Study Korea 300K Project에서도 교육 ODA를 활용한 유학수요 창출과 학생교류 확대 방향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아직 유학생의 국내 취업·지역 정착 성과라기보다는 ODA-유학생 유치 연계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함(관계부처 합동, 2023; 박주현, 2023; 서연미 외, 2025)

2. 전북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 및 추진체계

가. 전북 자치단체 ODA사업 현황

■ 전북 소재 대학의 ODA 현황

- 전북 소재 대학은 전북 ODA 생태계에서 사업수행과 인재양성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전라북도 ODA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2022)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는 한국연구재단, KOICA,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기관이 지원하는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6월 국제개발협력원을 설립하였음. 또한 전북대학교는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와 협력하여 사업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 발굴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북 소재 대학들은 KOICA 대학교 이해증진사업, KOICA 글로벌연수, KOICA 아카데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KOICA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 KOICA 봉사단사업, KOICA IBS 사업, KOICA 프로젝트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음. 참여 대학으로는 예수대, 우석대, 전북대, 전주비전대, 한국농수산대, 한일장신대, 전주대, 전주기전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등이 제시됨(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 전북대학교에는 2016년 이후 「국제개발협력과 ODA」 강의가 개설되었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강좌와 분야별 심화강좌가 운영되고 있음. 또한 KOICA YP 총 34명이 ODA 분야 활동으로 이어졌고, 전북지역 대학생 ODA 동아리 총 241명이 수료하였으며, 월간 세미나 총 26차 진행, 국제개발협력포럼 운영 등의 실적이 제시됨. 이는 전북 소재 대학이 단순 교육기관을 넘어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의 지역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

■ 전북 ODA 사업 현황

- 전북의 ODA는 광역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직접 대규모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라기보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운영하고, 도내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이 개별 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2025년 지자체 ODA 사업 내역에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경북 등은 제시되나 전북은

별도 항목으로 나타나지 않음

- 다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홈페이지는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과 연계한 개발협력사업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전북특별자치도 ODA 플랫폼 기관으로서, 도민이 개발협력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2-4]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램명	개요	대상	내용
전북형 국가별 협력사업	·농생명 기술, 문화 분야 등 전북 특화형 개발협력 추진으로 전북의 브랜드 제고 및 글로벌 가치 실현	·개발도상국 등 수혜국 공무원 및 유관단체	·진흥원 자체 연수사업 ·개발협력 프로그램 기획 및 국가 공모사업 대응 ·전북 개발협력 포럼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으로 도내 청년 인재의 국제무대 진출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도내 청년	·국제기구(UN FAO) 인턴십 프로그램 ·국제기구(UC LG ASPAC) 인턴십 프로그램
KOICA 영프로페셔널(YP)	·국내 청년 인재들의 개발협력사업 업무 경험 및 직무역량 강화 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청년인턴 1명(7개월)	·영프로페셔널(YP)의 사업 실무 참여 기회 제공 및 직무 역량강화 교육 실시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협력국 주요 인사(정책입안자, 공무원 등) 대상 전북 초청 연수사업 운영으로, 한국과 전북의 주력 기술 및 지식 전수	·인도네시아, 키르기스 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말라위,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벨리즈, 감비아 등	·국별 정책입안자, 공무원, 기술 인력 대상 분야별 견학 및 강의를 통한 액션플랜 도출

자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사업 기준으로 보면, 전북 ODA 관련 사업은 지자체 자체 개발협력사업, KOICA 글로벌 연수 등 국비 연계사업, 국제기구 및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국내 공공연수기관 연계 연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사업은 베트남 다락성 우정마을 조성사업,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스마트농업·기후 스마트농업·농생명·모빌리티·문화관광 등 전북 특화분야 연수사업,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등으로 구성됨

- 다만 국비 연계사업에 비해 지방비 기반 자체사업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사업을 진흥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도 추진내역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음

[표 2-5] 전북형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추진내역('17~'26년 예정)

구분	추진 성격	주요 대상국	대표 추진실적
I. 지자체 주도형 개발협력 (지자체)	전북 자체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간 우호협력, 주민 생활여건 개선, 지역 특화산업 연계 협력을 추진하는 유형	베트남, 라오스, 네팔,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케냐, 인도네시아	2017~2023년 베트남 다락성 우정마을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이후 카자흐스탄 농생명 기술연수, 우즈베키스탄 저탄소 스마트농업 기술연수, 케냐 농업 조기경보시스템 기술연수, 인도네시아 해양문화·관광 아카이빙 연수 등으로 협력 분야와 대상국을 확대
II. 국비 연계형 역량강화사업 (국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및 글로벌 연수사업을 통해 국가 ODA 재원과 연계하여 전북의 농업·스마트농업 경험을 공유하는 유형	몽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중남미, 키르기즈공화국	2022~2024년 몽골 스마트팜 연수, 2024~2026년 아프리카·중남미 기후스마트농업 연수, 2025~2026년 인도네시아 에너지 활용 스마트농업 연수, 2026년 키르기즈공화국 스마트농업 연수 등으로 KOICA 연수사업을 지속 수행
III. 국제기구 협력형 위탁사업 (국제기구(위탁))	국제기구 재원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의 국제 연수와 정책 역량 강화를 수행하는 유형	모로코	2024년 UN FAO 보조금으로 모로코 공무원 대상 국가중요 농어업유산 및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수행
IV. 국내기관 위탁형 연수사업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내 공공연수기관의 위탁을 받아 지방행정·균형발전·공공리더십 관련 정책연수를 수행하는 유형	몽골	2024년 몽골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몽골 읍장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몽골 NAOG 교수요원, 중앙·지방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국의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경험을 공유

자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내부자료

- 전북지역 참여 주체도 비교적 다양함. 전북테크노파크는 농기계 관련 KIAT 사업,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자체 공무원 연수과정, 농촌진흥청은 KOPIA 기반 기술협력, 식품연구원은 캄보디아 식품연구원 설립 사업, LX국토정보공사는 KOICA 등 다양한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민간기업 부문에서는 선푸드·피플러스, 엠에프엠, 머쉬앤, 오브제바이오 등이 네팔, 인도, 케냐, 태국 등을 대상으로 농생명·식품·농업기술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제시됨
- 대학 부문에서는 전북대학교를 중심으로 ODA 참여가 확인됨. 전북대는 개발도상국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국별협력사업, 평가사업, 국제협력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주비전대·한일장신대·전주기전대 등에는 ODA 관련 교과목 개설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됨

[표 2-6] 전북지역 ODA사업 참여 현황

구분	주체	사업내용
전북 특별 자치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 베트남 다락성 우정마을 조성사업 등 지자체 자체 개발협력사업 추진 · KOICA 글로벌 연수사업 등 국비 연계 개발협력사업 수행 · 스마트농업·농생명·모빌리티 등 전북 특화분야 연수사업 추진 · 국제기구 및 공공연수기관 연계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수행
	전북테크노파크	· 농기계 관련 KIAT 사업
정부 부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1980년대부터 지자체 공무원 연수 과정 지속 운영
	농촌진흥청	· KOPIA를 통한 기술협력사업 등
공공 기관	식품연구원	· 캄보디아 식품연구원 설립 사업 등
	LX 국토정보공사	· KOICA를 비롯한 다양한 ODA사업 추진
민간 기업	(주)티엔티리써치	· 키르키즈스탄 가축품종개량 및 인공수정역량강화사업
	농업회사법인 선푸드 주식회사, (주)피플러스	· 네팔 팔롱타르시 양돈 창업보육센터 건립을 통한 양돈가치사슬개선 및 농가 소득증대사업
	엠에프엠	· 인도 서벵갈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우 부산물 기반 비료 제 조 및 보급 사업
	머쉬앤	· 케냐 버섯종균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산림훼손 저감 및 농업가치사슬 강화사업
	오브제바이오	· 태국 벼 키다리병 친환경 방제 종자소독제 개발 및 적용
대학	전북대학교	개발도상국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전북대 국별협력사업 및 평가 사업 전북대 국제협력협력원 (우간다, 콜롬비아)
	전주비전대, 한일장신대, 전주기전대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자료: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내부자료(2025)

나. 전북특별자치도 ODA 추진체계

■ 전북 ODA 추진체계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에 따른 전북 ODA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파악됨. 먼저 최근 전북의 담당 조직은 전북특별자치도청 경제부지사-대외국제소통국-외국인국제정책과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출연기관)으로 구성됨. 즉, 전북 ODA 추진은 도 담당부서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임(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2025). 이 가운데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은 공식 사이트상 전북특별자치도 ODA 플랫폼 기관으로서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전반을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는 이 체계 안에서 플랫폼 지원 기능을 맡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센터의 미션은 전북지역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 강화이며, 3대 전략 추진 방향은 인지 제고 및 인재 양성, ODA 네트워킹 강화, ODA 사업 참여 활성화임. 세부적으로는 ODA 이해 제고 교육, 협의회 운영, 전문교육 및 컨설팅, 사업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2025)
- 따라서 전북의 ODA 추진체계는 도 외국인국제정책과의 정책 총괄,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사업 운영,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의 교육·네트워킹·컨설팅 지원,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대학·민간기업의 개별 사업 참여가 결합된 구조로 정리할 수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ODA 추진전략 및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ODA 추진전략(2025)에 따르면 ‘글로벌 농생명 산업 수도’ 비전 하에 ‘전북 글로벌 영향력 확대, 우호지역 협력 강화, 도정중심 ODA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전략 4개(농생명산업 특화 전북형 ODA, 유무형 유산 연계 문화 ODA, 탄소중립 구현 전북형 그린 ODA, ODA 관련 기관 전북 유치)와 주요 하위 목표를 각각 2개씩 설정함
- 세부적으로 보면,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선진 농업기술 전수, 스마트팜·종자보급 등 농생명 인프라 지원, 문화 분야에서는 유·무형유산의 제도 구축, 복원, 관광자원화, 그린 ODA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기업 연계와 기후위기 대응 사업, 기관 유치 분야에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영향력 확대와 국내 ODA 클러스터 비전 제시가 주요 목표로 제시됨

- 종합하면, 전북 ODA의 현 단계는 광역지자체 직접 집행형 사업 확대보다, 기 존재하는 도내 수행주체들의 개별 참여 역량을 전북형 전략사업으로 연결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향후에는 농생명, 문화유산,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전북형 사업을 구체화하고, 진흥원·센터·도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
- 전북지역 ODA 참여 현황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ODA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향후 도 자체 ODA 사업을 확대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전북형 개발협력사업의 전문 수행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진흥원 간 위탁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비전	글로벌 농생명 산업 수도			
목표	전북 글로벌 영향력 확대. 우호지역 협력 강화, 도정중심 ODA			
전략	농생명 산업 특화 전북형 ODA	유·무형유산 연계 문화 ODA	탄소중립 구현 전북형 그린 ODA	ODA 관련 기관 전북 유치
주요목표	1.1 수해지역 농가소득 향상 및 농생명 산업 기반 구축 - 도내 선진 농업기술 전수와 생명산업 기반 활용	2.1 전북 유산 산업 글로벌화 - 유·무형 유산 제도 및 전승환경 구축, 문화재 복원 및 복구, 보존환경 개선 등	3.1 신재생에너지 및 탄소기업 ODA 사업 연계 및 해외 진출 - SDGs 탄소중립 목표 실현	4.1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영향력 증대 - 외교부, KOICA, 국제기구 등 도내 유치/사업 권한 이양
	1.2 농업외교 성과 창출 - 스마트팜, 종자보급 등 국가 정책 기반 농생명산업 인프라 지원 등	2.2 유·무형유산 부가가치 창출 - 복원 문화유산 및 유적의 관광 자원화 활용 등	3.2 기후정책 목표달성 및 녹색성장 혁신 주도 - 개도국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수행	4.2 국내 ODA 클러스터 비전 제시 - 도내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 확대 및 인력양성

자료: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내부자료

[그림 2-5] 전북특별자치도 ODA 방향 및 추진전략(2025)

3. 중앙부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동향

가. 시기별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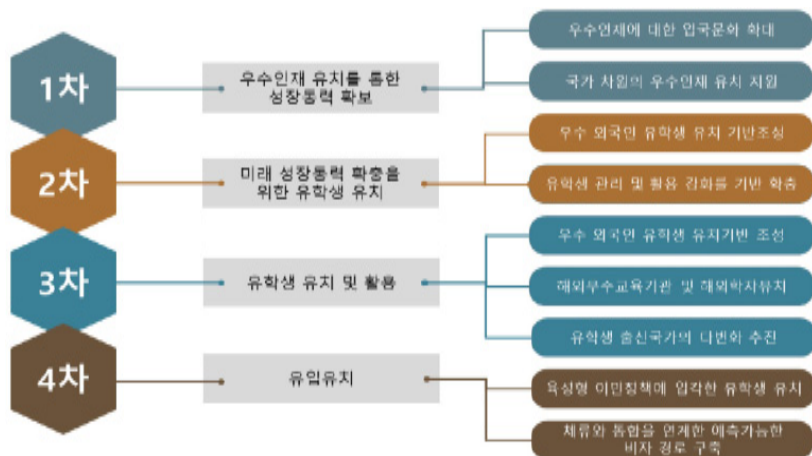
- 1967년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양적 확대’ 정책 기조를 보였고, 이후 질적 관리 시기(2008년~2013년)를 지나 ‘통합 관리’ 시기로 정책 방향이 변화해 옴
- 양적 확대 시기에는 외국인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시행함. 대표적으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 등을 수립함. 이 시기 정책은 주로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실제로 2012년 8.7만 명으로 외국인 유학생 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보임
- 외국인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한계와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들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책 기조가 ‘질적 관리’로 전환됨. 외국인 유학생의 선발 절차·교육·졸업 후 관리에 대한 절차와 방식이 표준화되었으며, 학사 운영이 부실한 대학에 대한 제재방안 등이 마련됨. 외국인 유학생 역량 인증제 시행,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등을 도입하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임
- 이후 통합 관리시기에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양적 정체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이들의 입국부터 취업까지의 전 과정에 대하여 지원·관리하는 현장실천형 전략이 도입됨. 유치 중심의 전략에서 지역 인재 확보 및 지역 정주로 정책의 목표가 확장되어 관련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비자제도를 신설·개편하여,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유학생 인재가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 단위과제를 포함하여, 교육-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역 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고 있음

[표 2-7] 시기별 외국인 유학생 주요 정책 방향 및 교육부·법무부의 정책 동향

교육부		시기	법무부	
주요정책	연도		연도	주요정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초청 사업 실시	1967년	양적 확대	2002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 제정	1999년		2003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제도 확대방안 발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 발표	2001년			2004년
한국유학박람회 실시			2005년	출입국 관리법령에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 조항 신설, 외국인 유학생 및 전문인력 유치 지원 대책,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지침 제정
Study Korea Project 시행	2004년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정,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안, 정부 합동 고충 상담
외국인 어학연수 관리지침 제정			2005년	2007년
Study Korea 2010 Project 시행	2005년	질적 관리	2008년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유학생 종합 정보시스템, Contact Korea 실시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 표준 업무처리 요령 제정	2008년		2009년	온라인 사증 신청·심사 시스템(HuNet Korea) 도입·시행
Study Korea 2012 Project 시행	2009년			우수 인재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용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길잡이 발표
외국인 유학생 관리 부실대학 제재방안 발표			2010년	2011년
외국인 유학생 지원·관리 개선방안 발표	2013년			
Global Korea Scholarship 시행			2010년	2013년
국제화 거점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	2011년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 발표			2013년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석·박사과정 전자비자, 단기유학비자(D-2-8)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	2020년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강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도입·시행			2023년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 비자 요건 대폭 개선, 지역특화형비자 시범 시행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발표	2025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1주기) 시행		2025년	K-STAR 비자트랙 신설	
Study Korea 2020 Project 시행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방안 발표	2014년	통합 관리	2014년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결과에 따른 비자발급 제한)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발표	2015년		2015년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E-7, D-9, 10) 발급 확대,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부모 초청 허용 신설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2주기) 시행	2016년		2016년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석·박사과정 전자비자, 단기유학비자(D-2-8)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3주기) 시행	2020년		2020년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강화)
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	2023년		2022년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 비자 요건 대폭 개선, 지역특화형비자 시범 시행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2025년		2023년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 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2025년		K-STAR 비자트랙 신설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20).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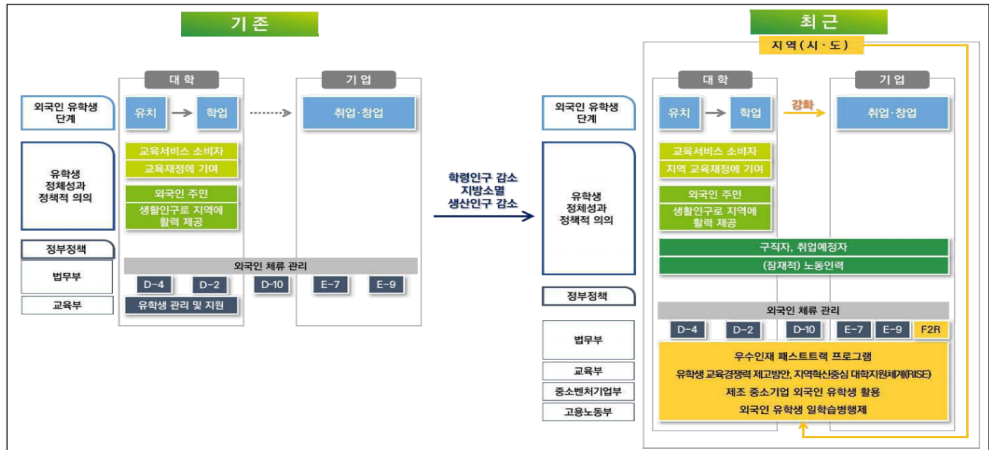
- 4차까지 발표된 법무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 제1~3차 기본계획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노동의 유입 관점에서 보았던 반면,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사회통합 차원에서 정착과 정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였음. 단순노동 인력보다는 전문 숙련 인재를 유치하고 양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



자료: 이윤주·김명광, (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그림 2-6] 제1차~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중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정책의 방향이 지방소멸 대응의 관점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광역자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역할이 부상하고 있음. 기존의 대학과 기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주체가 지역(시도)으로 넓혀지면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의 목표가 변화하고 있음
- 이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유학생 관련 부서를 운영하여 지역 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유치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임



자료: 서연미 외.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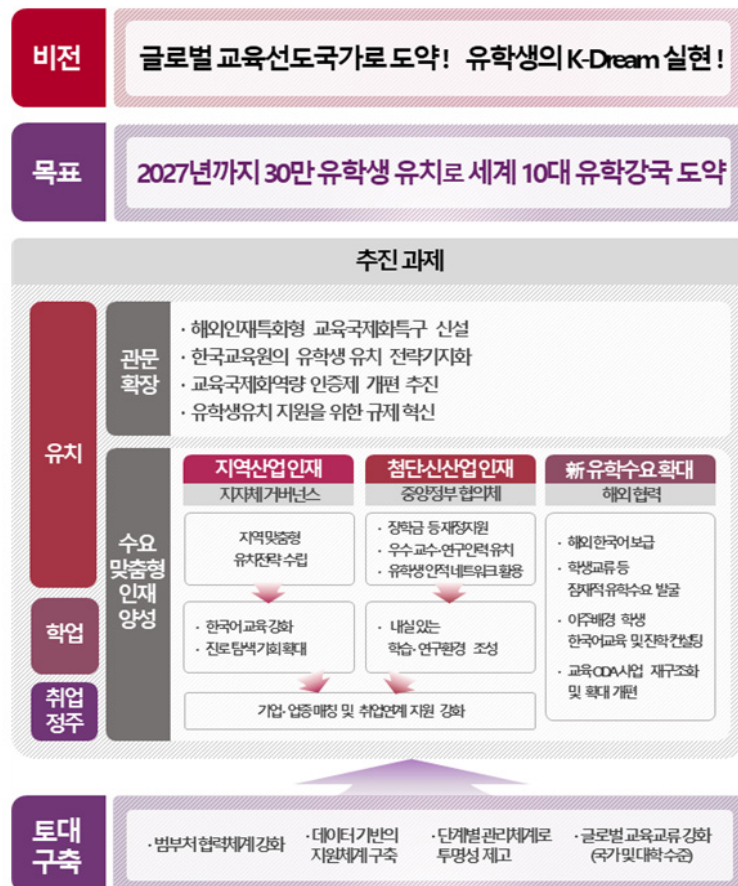
[그림 2-7]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목표와 지역정책적 의의 변화

나.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해외 우수 인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이 지역대학에 시작되고 있어 각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양성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필요함. 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과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국내 대학의 유학생이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유학생의 출신국 및 전공의 편중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었음.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교육, 취업·정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전략이 부재하였음
- 당시 유학생 유치의 방향은 지역기업과 지자체가 연계되지 않고, 개별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재와 괴리가 있었음. 지역대학은 해외 정보 및 채널 부족 등으로 체계적 유학생 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함
- 이에 졸업 이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비율이 29%로 높은 수준이었고, 국내 유학인재의 지역 내 정착 비율이 저조한 수준이었음

- 이에 교육부는 2023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발표하였음. ‘글로벌 교육선도국가로 도약! 유학생의 K-Dream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30만 유학생 유치로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함
- 세부 추진 과제로 관문 확장과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을 유치와 학업, 취업 및 정주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성함. 지역산업 인재와 첨단·신산업 인재, 新 유학수요 확대로 구분하여 인재의 유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세부 방향을 제안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그림 2-8] 「Study Korea 300K Project」 비전 및 정책목표

[표 2-8]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추진과제별 세부전략

추진 과제	세부 전략	
① 유학생 유치 관문의 혁신적 확장	·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 신설 · 한국교육원 유학생유치센터 설치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 ·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확대 등 학사운영 혁신	
② 지역 수요맞춤형 인재유치 및 정주 지원	유치단계	· 지자체 중심, 권역별 유학생 유치 거버넌스 구축 · 해외인재유치전략 TF 구성
	학업단계	· 권역별 한국어센터 지정·운영 등 한국어교육 강화 · K-MOOC 강좌 개발·운영 · 진로탐색 기회 확대
	취업연계 강화	· 분야별 실무인재 양성 · 저숙련 근로자 학위취득 허용
③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전략적 유치	유치단계	·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개편 · 4단계 BK21사업 확대 · 해외 우수연구자 등 연구활동 지원 확대 · 해외 첨단분야 전임교원의 국내대학 임용(JA) 허용 ·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학업단계	· 영어트랙 확대 및 홍보 ·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전용 R&D 신설 · 석·박사 유학생 대상 영어강의콘텐츠 개발·보급
	취업 연계 및 정주 지원 강화	· 이공계 석·박사생 일자리 매칭 · 과학기술인재 패스트트랙 운영
④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유학 저변 확대	해외 한국어 교육 활성화	· 해외 한국어교육 보급 확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체제 개편
	잠재적 유학수요 극대화	· 초·중등학교 학생·교사 교류 확대 ·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 집중교육 등 학업·진학 지원 · 교육 ODA 재구조화
	국가·대학 간 글로벌 교육교류 강화	· 한·미/한·일 교류 확대 및 국제네트워크 구축 · 전문대-아세안 직업교육기관 교류사업(TVET) 신설
⑤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범부처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	· 사회부총리 중심 컨트롤타워 구축 · 유학생 실태조사 실시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체계 내실화	· 국립국제교육원 내 (가칭)스터디인코리아센터 설치 ·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전면 개편 · 한국유학박람회 확대

자료: 손윤희 외. (2025).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실태와 이슈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관계부처 합동(2023.8)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안) 재구성)

- 교육 ODA를 활용하여 유학수요를 창출하는 세부 전략이 최초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ODA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간 연계 방향이 본격적으로 설정됨. 교육 ODA의 전면 재구조화 및 확대 개편을 통해 개도국 인재가 국내 유학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음
- 국제기구(UN기구, IFFEd, World Bank·ADB 등) 협력 등을 통해 개도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ODA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유학수요 창출을 유도함

[표 2-9] 교육 ODA 재구조화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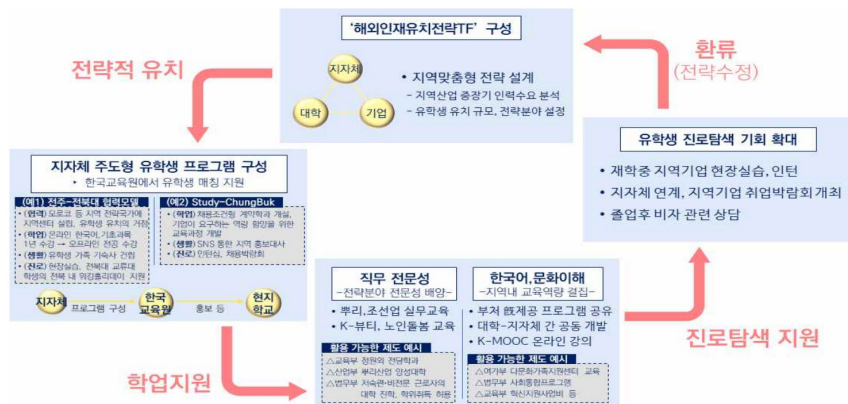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세부사업 예시
직업교육	· 아프리카 등 수원국의 노동시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직업기술 교육체계 구축 시, 학생 교류 등을 검토하여 국내 직업교육 유학수요 발굴	· BEAR 3단계 사업: 나이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4개국 대상 5년간('23~27) 지원 예정
디지털	· 민간의 혁신성 등을 활용, 개도국 교육 환경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한국 온라인교육 접근성 제고를 통한 유학 유도	· 국가별 에듀테크 기반 수업 ODA 모델 개발('23~) : 에듀테크기업의 디바이스·콘텐츠 제공 + KERIS 정책가/교사 대상 현지 연수 → 수업모형 개발 → ODA 사업화 추진
고등교육	· 개도국 대학을 매개로 국내 대학과 세계 대학 간 다자 협력 관계를 통해 학생 및 교육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촉진	·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개편을 통해 신규 트랙(K-Tribound 트랙) 신설 추진('25년~) : 프랑스 A 대학과 국내 B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탄자니아 C 대학 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8)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세부 과제내용 재구성

- 2025년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2주년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① 지역별·분야별 맞춤형 인재 유치 전략으로 유학생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전년 대비 유학생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음. ②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적응지원을 위해 한국어교육 등이 강화되고 학업 단계부터 진로 탐색을 위한 제도 개선이 확대되었음. ③ 첨단·신산업 선도 인재 유치 지원으로 지역 산업 맞춤형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었고, ④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선순환구조 확보와 글로벌 교육허브 도약을 위한 유학 저변이 확대되는 성과를 보였음(관계부처합동, 2025)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외국인 유학생 정책

- 교육부는 2025년부터 지역주도로 지역발전전략과 대학지원을 연계하여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시행함. 각 지역의 지자체 별로 전담부서와 RISE센터를 마련하고 RIS(지역혁신), LINC3.0(산학협력), LiFE(대학 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활성화사업의 5개 사업을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RISE체계 내에서 지역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및 양성을 위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추구하고자 하였음.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RISE 체계 내 유학생의 유치·학업·진로설계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한 것임



자료: 교육부.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그림 2-9] RISE 체계 내 유학생 유치·양성 협력모델(안)

-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함께 ‘해외인재유치전략TF’를 구성하여 지역맞춤형 전략을 설계하여 지역산업의 중장기 인력수요에 따른 유학생의 유치 분야와 규모 등을 설정함. 이후 해외 주정부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맞춤형 학과 중심으로 유학생의 유치 및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학생의 유치와 양성의 역량과 의지가 있고 대학-기업과의 협력이 원활한 지자체부터 기관 협력모델을 설계하고 확산하고자 기획함
- RISE사업은 2026년부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되어 인재양성 정책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5급 3특의 초광역 단위 인재육성 체제를 정립하고자 하

였음. 특히 인재양성의 규모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을 뒷받침하여 기존의 RISE사업을 평가하여 성과를 확대하고 우수사업에 집중 투자하고자 함(교육부, 2026)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의 세부 내용 중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대학생의 현장실습 활성화 방안 중 '유학생 특화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함께 한국어, 생활적응, 취업, 비자 문제를 결합하여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내용임. 유학생들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현장실습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다.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정책

-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와 광역형 비자를 신설하여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이에 외국의 우수 인재를 지역에 유치 및 정착하게 지원하고자 함
-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도지사의 추천을 통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지원하는 제도임
 -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지역특화 재외동포(F-4-R) 비자로 구분됨.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예정)자(D-2 또는 D-10)는 인구감소지역 5년 이상 체류 등 일정 조건 충족·확약 시 동반가족 초청·배우자 취업 가능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를 발급받아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정주할 수 있음
- 광역형 비자는 유학비자인 D-2와 특정활동 비자(E-7)로 구분됨.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제도를 설계하여 지역의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국가 이민정책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유학비자인 D-2 비자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재정능력 기준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 및 활동 범위 확대 등을 허용하는 제도임

- 유학비자 D-2는 정규 학위 취득과정에 해당해야 하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요건을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계하도록 하였음. 유학비자(D-2) 유형은 서울·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 등 10곳에 해당함
- 광역형 비자 취득 유학생(D-2)의 취업·정착 지원이 부재하며,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외국인 인재 유치라는 목표와는 달리 지자체 간 차별화가 부족하여 지역 유학생의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박지애 외,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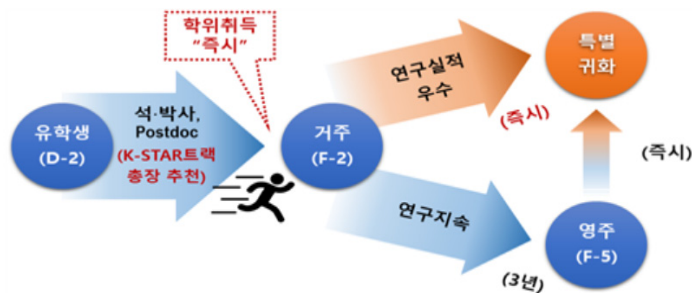
[표 2-10] 광역지자체별 광역형 비자 유학(D-2) 유형 주요 맞춤형 요건

광역지자체	대상 분야	주요 맞춤형 요건
서울	시 핵심산업분야 이공계 (로봇, AI, 바이오, 핀테크 등)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인턴활동을 위한 휴학 허용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부산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자동차 부품 관련 학과	• 부산광역시 지정 장학생 등에 대한 재정요건 1/2 완화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인천	외국대학교 국내캠퍼스	• 외국대학 국내캠퍼스 유학생 대상 체류기간 상한 확대(1년→2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광주	AI 미래자동차과	• AI 미래 자동차 관련 학과 재정요건 1/2 완화
강원	미래산업(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모빌리티, 미래에너지, 푸드테크, ICT) 유관 학과	• 등록금/생활비를 분할하여 재정요건 입증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충북	항공·화장품·식품·바이오, 뿌리산업, 복지산업,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관련 학과	• 충북형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충남	농어촌지역 및 충남 5대 산업 전공학과(자동차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 농어촌지역, 충남 5대 산업 전공, 충남형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에 대한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전북	외국인전용 계약학과, 지역특화학과, 뿌리산업 양성대학 중심	• 지역산업 관련 대학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등의 요건 충족 시 학기 중 인턴활동 허용
전남	지역 핵심산업(바이오, 에너지, 조선, 화학, 철강, 복지, 관광 등) 연계 학과	• 지역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1/2 완화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 일부 전문직종 시간제 취업 허용(요양보호사, 주방장 및 조리사)
제주	관광산업 RISE 산업 연계 학과	• 관광 분야 학과 유학생에 대해 재정요건 완화(연간 1,000만 원 이상) •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확대(최대 30시간)

자료 : 박지애 외(2025) 연구에서 법무부 보도자료(2025.04.02.) 재구성

■ K-STAR 비자트랙 제도

- 「K-STAR(Korea-Science & Technology Advanced human-Resources) 비자트랙」은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공계 유학생에게 취업이 확정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즉시 부여하고, 연구 성과에 따라 영주(F-5) 및 특별귀화까지 연계해 주는 고급 인재를 위한 정주 지원 제도임
- 주요 혜택으로는 평가를 통해 선정된 대학 총장에게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추천된 인재를 취업 없이 졸업 즉시 거주 자격과 3년 후 영주 자격 신청이 가능함. 우수 연구실적을 입증한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함
- '26년 1월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갖춘 우수한 일반대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기존의 5개의 과학기술원에 추가하여 27개 대학을 최종 선발하여 K-STAR 비자트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전북지역의 대학으로는 전북대학교가 선정되었음



자료 : 법무부. (2025.09.23.).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정착 유도를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그림 2-10] K-STAR 비자트랙 제도 개요

라. 고용노동부, 중기부, 산업부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제 외국인 유학생 모집 공고

-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일학습병행 운영기관을 따로 모집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일학습병행 사업은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일터에서

장기간(1~2년) 체계적으로 현장훈련(OJT),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제공하고 훈련을 마친 후 국가가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임

- 외국인 유학생 대상 훈련이 가능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가 신청 가능하며, 훈련직종은 E-1~E-7 체류자격으로 연계 가능한 직종으로 제한됨.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대학은 가점으로 우대되며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 안내 매뉴얼에 따른 D-2 및 D-10의 체류자격 활동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제한함

[표 2-11]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제 사업 유형

구분	체류자격	세부 내용	과정	훈련기간
1유형	D-2 소지자 * 졸업 후 D-10 전환 필수	잔여 학기가 1학기 남은 시점에서 훈련을 시작하여 졸업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훈련을 지속하는 모형	6개월 단위 先OFF-JT, 後OJT (OJT주 40시간 이내)	OJT(연수활동*) 6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1년
2유형	D-10 소지자	졸업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훈련하는 모형		

*법무부의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에 따른 D-10 자격의 '연수활동'에서 허용하는 취업활동 범위를 충족해야 함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

-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7만 명에 이르며, 이들 중 약 35%가량이 국내기업 취업을 희망함.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제조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난을 타개할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제조 중소기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과 'K-수출전사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운영함.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과 인턴십·현장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K-수출전사 아카데미'는 해외현지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무역실무 등 수출분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임
-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은 외국인 졸업예정 유학생에 취업역량 교육 및 인턴십 등 산학

연계가 가능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이 모집 대상이며 대학당 150백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지원됨. 지원대상은 대학별 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D-2)과 구직비자를 보유한 졸업 유학생(D-10)임. 운영내용으로는 취업역량 강화 과정의 1단계 프로그램과 취업 실천 대비 과정의 2단계 프로그램으로 총 200시간 이상으로 운영됨

- 2025년도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으로는 경기과학기술대·경성대·국립창원대·대전과학기술대·동명대·서정대·선문대·신안산대·우송대·충북보건과학대 등 10개교가 선정됨

[표 2-12]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교육과정 구성(안)

구분	필수과정
1단계 취업역량강화	■ 중소기업의 이해 ■ 비즈니스 한국어 ■ 근로기준법·산업안전교육(10시간 이상) ■ 전공 연계 취업실무 교육 - 석·박사 심화과정 포함(4년제 대학) - 전공·직무별 AI 실무교육 포함(전체 대학) ■ 취업매칭 교육(이력서, 자소서, 면접코칭, 취업멘토링 등)
2단계 취업실전 대비	■ 인턴십 ■ 현장실습(기업탐방, 산학협력 프로젝트 등) ■ 취업박람회(또는 매칭데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 K-수출전사 아카데미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출직무 교육 인프라 및 취업매칭 네트워크 확보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원대상은 중소벤처기업 수출직무 희망 외국인 유학생 300명이 대상임. 운영과정으로는 무역실무 이론 → 수출, 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의 취업맞춤반 교육으로 중소기업 수출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함

[표 2-13] K-수출전사 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안)

구분	필수과정	권장 교육시간
① 무역실무 이론	■ 무역실무 이론 ■ 해외전시 마케팅 이론 ■ 상품별 마케팅 전략 등	90H 내외
② 수출·마케팅 실습	■ AI 수출 실무 ■ 무역실무 케이스스터디 ■ 전자상거래 플랫폼 활용 실습 등	90H 내외
③ 취업역량 강화	■ 중소기업의 이해 ■ 공동 채용박람회(또는 공동 매칭데이) ■ 자소서 작성, 면접스킬, 한국어 등 취업대비 ■ 근로기준법·산업안전교육 등	20H 내외
합계		200H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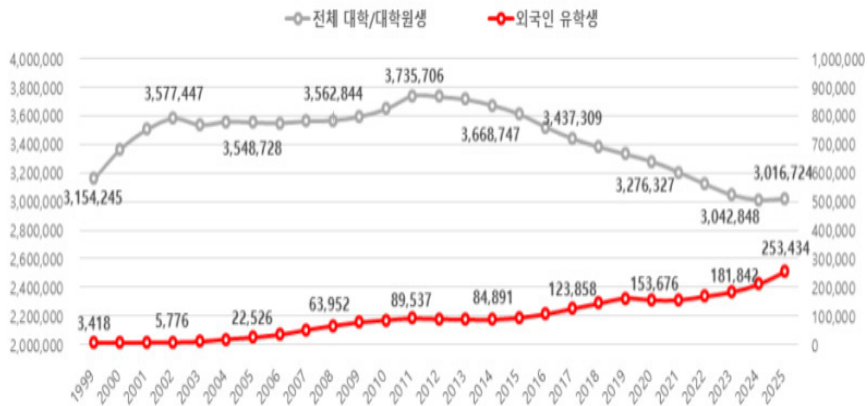
■ 산업통상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 산업통상부는 뿌리산업 기술인력의 안정적·체계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뿌리산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을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으로 지정함
 - 2026년 기준, 거제대(조선해양공학과/기계공학과), 경기과학기술대(생명화학공학과/디자인공학과/건축소방안전학과), 계명문화대(기계과), 군장대(스마트자동차기계계열 신소재가공전공), 아주자동차대(미래자동차공학부), 영남이공대(스마트융합기계계열), 전주비전대(미래모빌리티학과), 서정대(글로벌산업공학과), 조선이공대(글로벌융합학부), 동원과학기술대(선박동력기계과), 부천대(섬유패션비즈니스학과), 인하공업전문대(조선기계공학과), 충북보건과학대(스마트기계가공학과), 순천제일대(기계자동차과) 등 14개교가 운영 중임
 - 뿌리산업 관련학과의 판단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명칭이 포함된 학과이거나, 전공과목의 개수 중 뿌리산업과 관련된 교과목이 20% 이상인 학과로 선정됨

4.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전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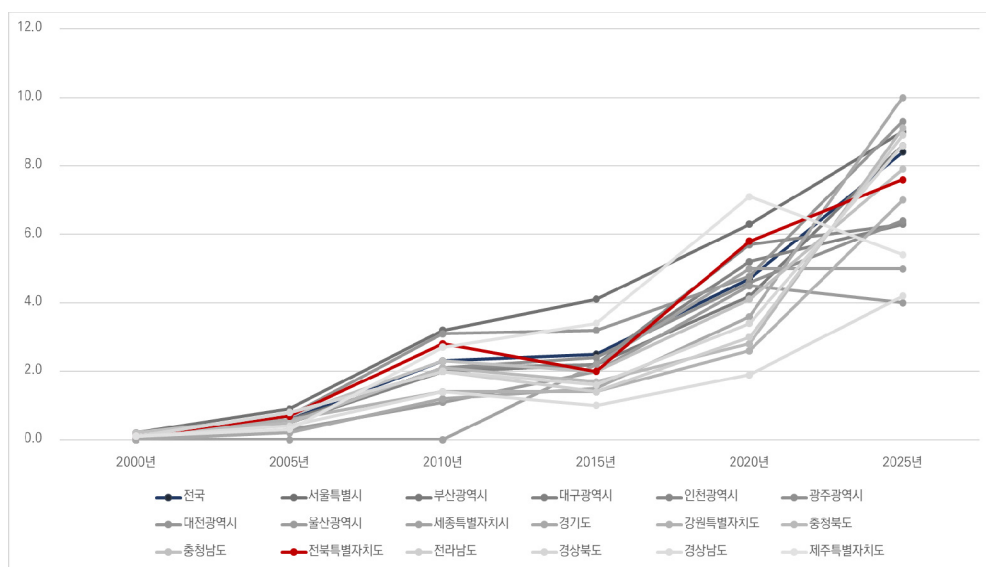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3,418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5년에는 253,434명으로 나타남. 이는 전체 대학(원)생의 8.4%로 2000년대 초반 0.1%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준임



자료 :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그림 2-11] 전체 대학/대학원생 및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국내 전체)

- 시도별로 대학(원)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기준 전국적으로 유학생 비율이 0.1%대로 나타남.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2000년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0.1%에 불과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입의 규모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 2025년 기준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역시가 9.3%, 전국 평균은 8.4%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체 대학(원)생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6.7%로 17개 시도 중 9번째로 높게 나타남
- 2000년 대비 2025년의 유학생 비중 증감을 비교해 보면,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유학생 비중이 3.6%에서 2025년 10.0%로 약 6.4%p가 증가하여 증가 정도가 가장 컸음. 전북특별자치도는 2020년 5.8%에서 2025년 7.6%로 약 1.8%p가 증가함(전희진, 전아람, 2026)



자료 :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내용 재구성
[그림 2-12] 시도별 재적생 대비 외국인 유학생 비율

- 2025년 기준으로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32.7%는 서울지역에 분포하고 있었고,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54.2%가 분포됨.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내 전체 외국인 유학생 중 3.4%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전희진, 전아람, 2026)

- 이는 2020년 기준 전국의 5.1%에서 1.7%p 감소한 수준임

[표 2-14]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시도별 분포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지역	비율
서울	32.7%	부산	7.4%	대구	2.9%
인천	2.1%	광주	2.6%	대전	5.3%
울산	0.5%	세종	0.5%	경기	19.4%
강원	3.0%	충북	4.2%	충남	5.5%
전북	3.4%	전남	2.0%	경북	6.4%
경남	1.6%	제주	0.5%		

자료 :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 2025년 기준 시도와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전체 유학생 중 학위과정인 유학생은 약 17만 9천 명이었음. 비학위 과정은 약 7만 4천 명이었음. 학위과정 중 학부생은 12만 명 정도로 가장 많았고, 석사가 4만여명, 박사가 만 7천명 정도로 나타났음. 비학위과정은 어학연수생이 약 5만 8천 명으로 나타남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전체 8천여명의 유학생 중 학위과정은 6천여명이었고, 비학위과정이 2천여명으로 나타남. 학부생은 약 4천명, 석사는 994명, 박사는 931명으로 조사됨. 비학위과정 중 어학연수생은 1,922명으로 나타남

[표 2-15] 시도별 학위과정별 외국인 유학생 수(2025년)

(단위: 명)

지역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전문학사/학사	석사	박사		어학연수	기타연수
전국	179,190	120,150	41,278	17,762	74,244	58,765	15,480
서울특별시	57,194	34,461	17,510	5,223	25,717	17,867	7,850
부산광역시	13,086	9,183	2,715	1,188	5,544	4,147	1,397
대구광역시	4,331	3,123	754	454	3,126	2,712	414
인천광역시	3,849	2,878	782	189	1,591	1,131	460
광주광역시	4,056	2,478	1,007	571	2,584	2,000	584
대전광역시	9,035	5,895	1,683	1,457	4,443	3,578	865
울산광역시	874	475	163	236	459	306	153
세종특별자치시	1,009	627	348	34	160	121	39
경기도	35,047	25,377	6,372	3,298	13,993	12,494	1,499
강원특별자치도	6,240	4,723	889	628	1,325	1,052	273
충청북도	8,559	6,119	1,840	600	1,978	1,740	238
충청남도	9,692	6,417	2,476	799	4,179	3,684	495
전북특별자치도	6,293	4,368	994	931	2,357	1,922	435
전라남도	3,959	2,220	898	841	1,167	1,060	107
경상북도	12,566	9,665	2,039	862	3,543	3,138	405
경상남도	2,476	1,577	566	333	1,686	1,510	176
제주특별자치도	924	564	242	118	392	302	9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통계 /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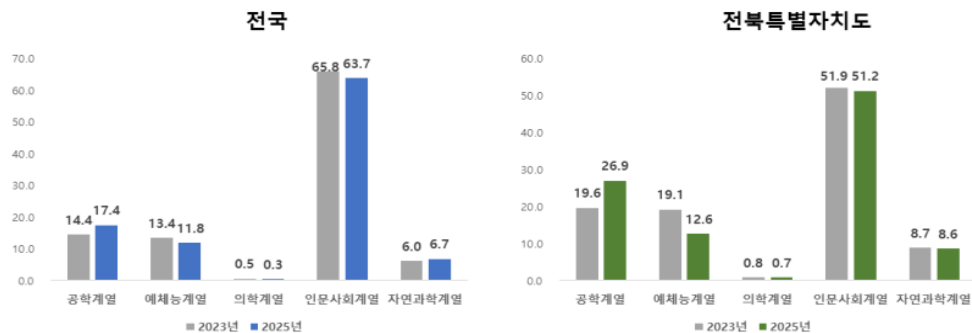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베트남이 3,098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2,740명, 우즈베키스탄 711명 순으로 나타남. 그 밖에도 몽골,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기타 국가 출신 유학생의 비중은 낮아 국적 다양성이 제한적으로 나타남
- 출신 국가별 대학분포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학생은 호원대학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전주비전대와 전주기전대가 14%로 나타남. 중국 유학생은 우석대(33.5%), 전북대(30.4%)였고,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역시 우석대학교에 가장 많이 재학 중이었음. 미얀마의 경우에는 대다수인 77.5%가 전주비전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네팔의 경우에는 90%가량이 예원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남(전희진, 전아람, 2026)

[표 2-1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국가 분포

국가	명수	국가	명수	국가	명수
베트남	3,098	중국	2,740	우즈베키스탄	711
몽골	460	미얀마	284	네팔	385
방글라데시	222	파키스탄	54	인도네시아	34
키르기스스탄	32	일본	30	대만	19
기타	372	계	8,441		

자료: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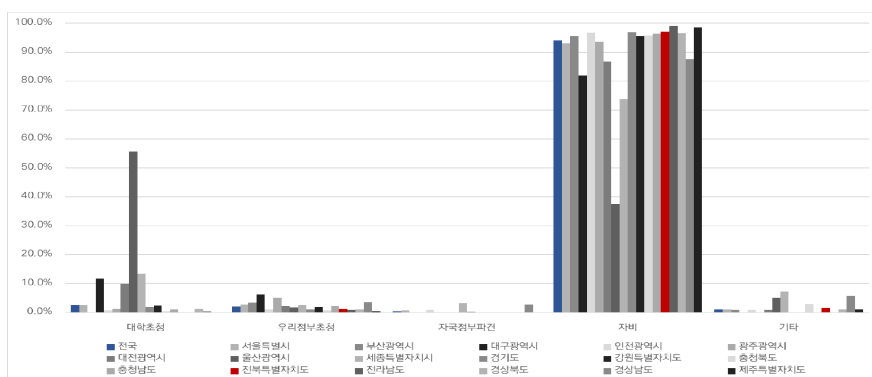
- 전공계열별로 전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공학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의 유학생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공학계열은 2025년 유학생 비중이 3.5%p 증가한 17.4%로 나타났고, 자연과학계열은 0.7%p 증가한 6.7%로 나타남. 가장 많은 계열은 인문사회계열로, 일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63.7%로 절반 이상임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인문사회계열이 51.2%로 가장 많았고, 공학계열이 2023년에 비해 2025년도에는 26.9%로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예체능 계열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12.6%로 나타남. 이는 중앙부처에서 첨단·미래 신산업 분야 및 지역의 뿌리산업에 맞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자 하는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변화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전희진, 전아람, 2026)



자료 : 전희진, 전아람. (2026).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그림 2-13] 전국 및 전북의 전공계열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

-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형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자비로 유학 온 형태가 94.0%로 가장 많았음. 대학초청은 2.6%, 우리 정부 초청이 2.1%로 나타났고 기타가 0.9%, 자국 정부 파견 형태가 0.4% 순이었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평균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는데, 자비로 유학 온 비율이 97.0%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다른 지역과 달리 대학에서 초청한 경우가 0명이었고, 자국 정부 파견 역시 0명으로 나타남. 우리 정부 초청으로 유학 온 경우가 1.4%로 나타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자비 유학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유학의 형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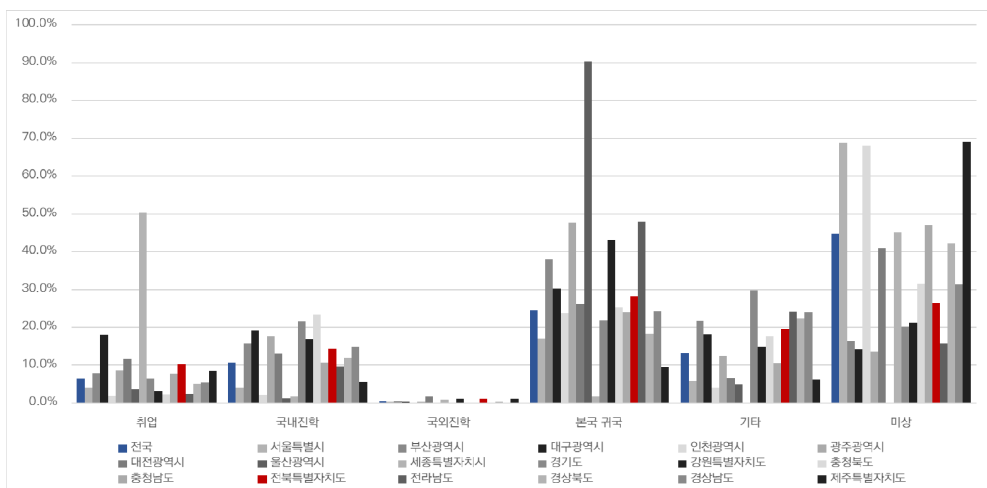


자료 : 전희진, 전아람(2026) 보고서 내 자료로 저자 재구성

[그림 2-14] 시도별 외국인 유학생 유학 형태(2025년)

■ 전북 유학생 취업 및 진로 현황

- 전희진, 전아람(2026)의 연구에서 2022년 자료를 기준으로 외국인 졸업생의 졸업 이후의 진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2년 기준 외국인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를 분석하면, 44.8%로 미상이 가장 많았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가 24.5%로 나타남. 국내 진학은 10.7%, 취업은 6.5%로 국내에 취업한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도별로 살펴보면, 외국인 졸업자 중 국내에 취업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50.4%로 나타남. 대구지역은 18.0%로 나타났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는 충북이 23.3%, 경기도가 21.5%로 나타남. 울산 지역은 90% 정도가 본국으로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이후의 진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비중도 시도별로 높게 나타났는데 제주 지역이 69.1%로 가장 높았음
-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846명의 외국인 졸업자 중 본국 귀국이 28.3%(239명)로 가장 많았고, 미상(26.5%), 기타(19.5%), 국내 진학(14.4%), 취업(10.2%), 국외 진학(1.2%) 순으로 나타남



자료 : 전희진, 전아람(2026) 보고서 내 자료로 저자 재구성

[그림 2-15] 시도별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졸업자 졸업 후 진로(2022년)

5.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정책 방향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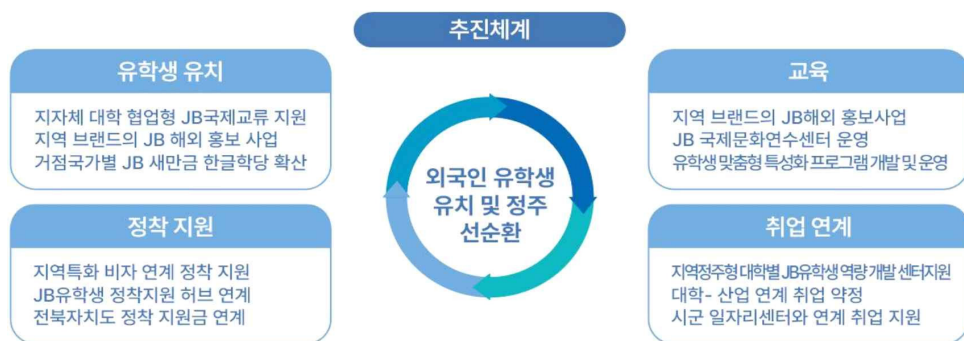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내 생활 적응 교육 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 3. 생활·법률·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 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 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7.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홍보 및 설명회 개최 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 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위 조례를 근거로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지역생활 적응 교육, 장학금 지원, 생활에 대한 상담, 주거 지원,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DB관리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유학 상품 개발 및 홍보, 박람회 참가 등 유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가로 추진 중에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추진 사업 현황

- (앵커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RISE사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대학-출입국사무소 등 참여하는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함. 또한,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음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내 대학,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 구성된 'JB외국인유학생유치지원협의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전반에 관한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유학생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는 협력기구임
 -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현 외국인 유학생 리더단)'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이 주체가 되어 전북 지역과 대학 생활을 본국 및 타 유학생 대상에게 홍보하는 사업으로, 지역 인지도 제고를 기반으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교육부의 RISE 사업 내 프로젝트 2의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의 단위과제로 해외우수인재 원스톱 지원을 설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 취업을 향상과 중도탈락률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지역제조업 현장의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맞춤형 교육환경 제공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교육-취업-정주 등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음.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대학 협업형 JB국제교류 지원, 지역 브랜드의 JB 해외 홍보 사업, 거점국가별 JB 새만금 한글학당 확산 등이 있음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계획서

[그림 2-16] 해외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추진체계

- 전북 내 각 대학별로 운영 중인 외국인 유학생 관련 RISE사업 세부추진 과제는 [표 2-17]과 같음

[표 2-17] 각 대학별 RISE사업 세부 추진과제

대학	사업내용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외국인 학생 REES Link 사업) - 외국인 유학생 약 1,700명을 유치하고, 한국어 집중교육과 한국 사회·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교육 등을 제공함
전주대학교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 국제대학 신설과 해외 협력 확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1,000명 이상을 유치하고, 한국어교육과 호스트패밀리·버디 프로그램 등 생활·학업 적응을 지원함. 취업 전담인력 배치와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취업과 지역 정착을 확대함
원광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창업 및 BM 사업화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교육과 마이크로디그리, 창업 플랫폼 등을 운영하여 창업·창직 역량을 강화함
우석대학교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 지역에 정착하는 GGL(Global to Go Local)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유·치·교·육·취·창업·정착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 한국어 및 지역이해 교육, 취·창업 역량 강화, 진로지원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적응과 정착을 지원함
국립 군산대학교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 한국어·문화교육, 생활·진로상담, 2+2 공유전공과 현장실습 등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직무역량 강화를 지원함. 지역특화형 비자(F-2-R) 전환과 취업을 연계하여 유·치·교·육·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지원모델을 구축함
호원대학교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을 위한 JB zip 사업) -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교·육·취·창업·정주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함. 대학 특성화 분야와 지역 산학연 협력을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군장대학교	(해외 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 ISS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취업·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함. 한국어 능력 강화와 지역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취업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유학생의 정착과 지역산업 인력난 해소에 지원함
군산간호대학교	(외국인 학생 지원사업) - 외국인 유학생에게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과 자격증 취득, 지역 요양기관 취업을 연계함. 이중언어 교재와 현장실습을 기반으로 교육·취업·정주의 지속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돌봄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
전북과학대학교	(해외우수인재 원스톱 지원) - JBSC 글로벌 인재유치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학업·생활·취업·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지자체·유관기관·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유학생의 지역 정착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전주비전대학교	(JB 지역정주형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 - JB비전한국어센터와 국내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유학생 맞춤형 학사제도를 운영함. 취·창업 지원과 지역특화형 비자 취득을 연계하여 글로벌 전문인재의 지역 취업과 정착을 지원함

자료: RISE사업 계획서 연구진 재구성

- (글로벌대학30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내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원광보건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다변화하고 있음. 전북대학교의 경우 추진과제로 '유학생 5,000명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설정하고 유학생 유치 전략의 다변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 세부 전략으로 전북대 국제캠퍼스(센터) 구축, 다양한 학위 제도를 활용한 우수 유학생 유치, 장학제도 활용 및 교환학생(Inbound) 확대를 통한 유학생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산업과 연계한 특화교육과 정주 여건 개선을 설정함



자료 : 교육부. (2023). 2023년 지정 글로벌대학 수정 실행계획서(전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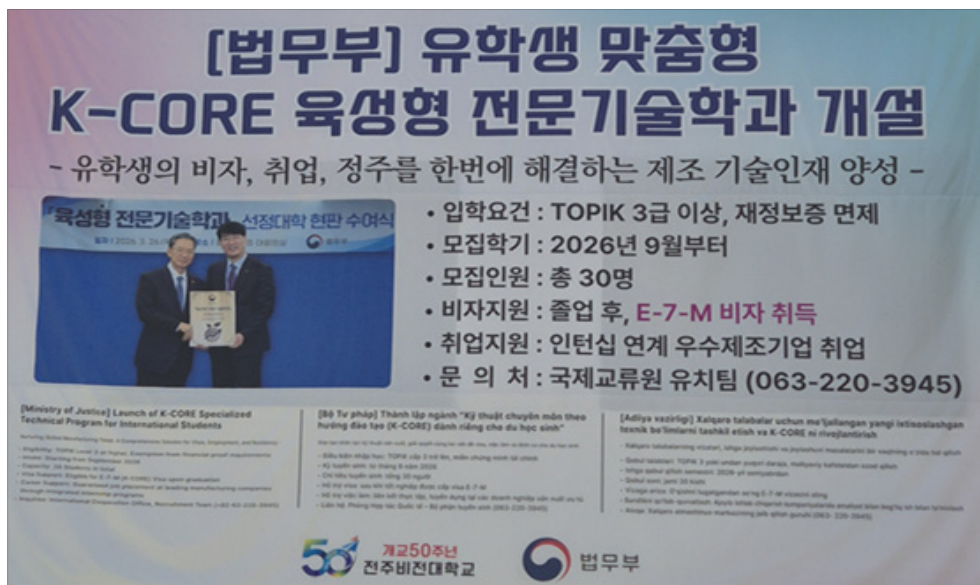
[그림 2-17] 유학생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과제

-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을 운영하여 전북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2026년 기준 해외 현지 9개소의 새만금 한글학당과 도내 대학·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 한국어교육 이후 도내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유학생 유치 경로를 활성화하고 있음
- 2024년에는 카자흐스탄·베트남·미얀마·러시아·모로코·인도네시아 등 6개국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캄보디아·필리핀·몽골·중국·베트남·미얀마·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 등 8개국 11개소를 운영함

- 2026년에는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형 모델을 더욱 강화하여, 베트남(하이퐁·응에안성·꽝지성·하노이)-전주비전대·전주기전대·전주대, 몽골(울란바토르)-국립군산대, 미얀마(미치나, 양곤)-전주비전대, 중국(칭다오)-우석대, 카자흐스탄(알마티)-전북대 산학협력단, 필리핀(마닐라)-원광대 등을 각각 연계함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유학(D-2) 유형을 활용하여, 생명서비스·청정 에너지·농생명·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역특화학과, 뿌리산업 전공 학과 등에 2025~2026년 2년간 총 67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자 함. 유치된 유학생은 학위 취득 이후 지역 특화산업 분야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전북 지역 정착·정주를 유도할 예정임(박지에 외, 2025)
-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부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외국인전용 계약학과·지역특화학과·뿌리산업 양성대학 중 뿌리산업 전공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교육 및 지역기업 취업을 연계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전국 12개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전북 지역에서는 군장대학교와 전주비전대학교가 선정됨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전북특별자치도는 초고령화에 대응한 돌봄 인력 유치·양성 및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전국 24개 지정 대학 중 전북 지역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와 군장대학교 등 2개교가 선정되었으며, 2026학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연계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법무부는 국내 전문대학에서 제조업 분야의 중간숙련 외국인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 취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 K-CORE)’를 신설하고,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전국 16개 지정 대학 중 전북 지역에서는 군장대학교 스마트농식품과와 전주비전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등 2개 학과가 선정됨. 이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 단계의 재정능력 입증 면제 등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당 과정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

1,600만원의 재정능력 입증 요건을 면제받고,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도 주당 30시간에서 35시간으로 확대됨. 졸업 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TOPIK 5급 취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E-7-M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5년 이상(인구감소지역은 3년) 근무한 경우에는 거주(F-2)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가 주어짐

-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 특성화지방대학 대학생생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1.5억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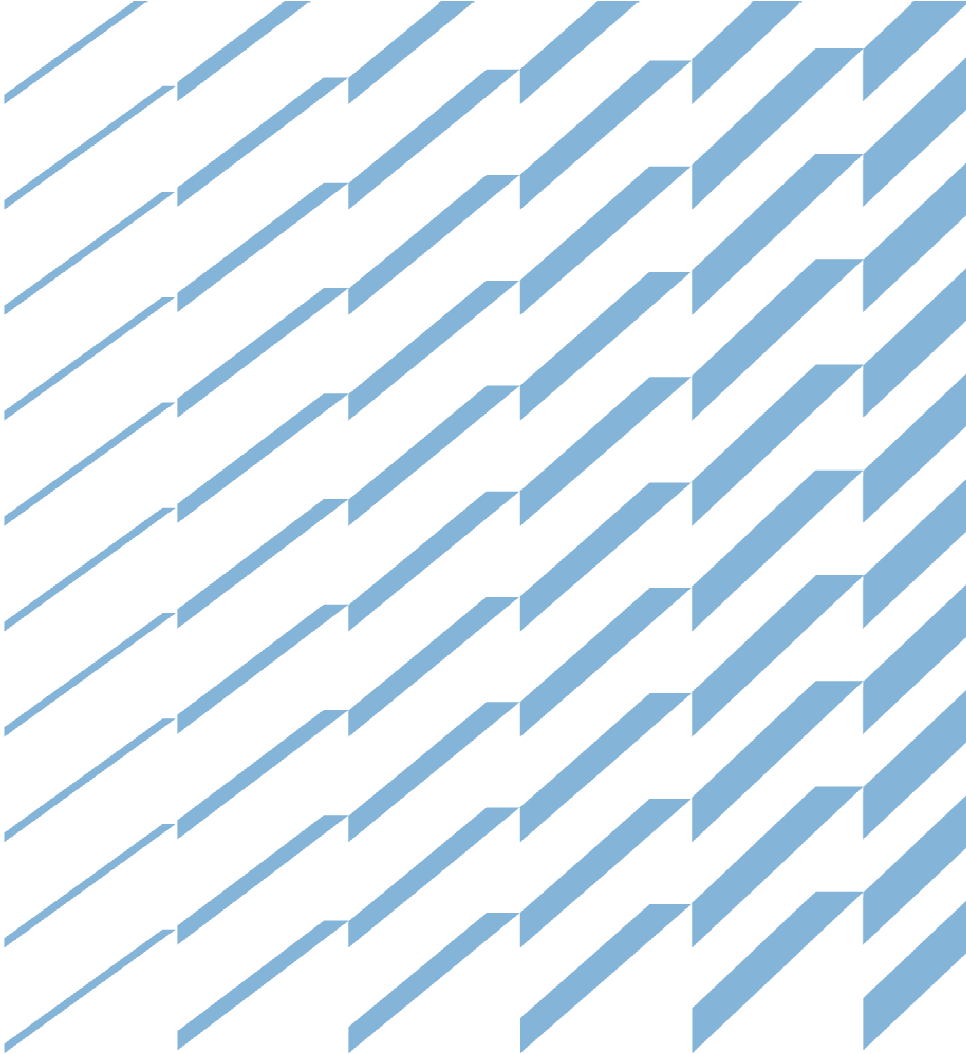
자료 : 전주비전대학교 플랑, 연구진 촬영

[그림 2-18]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 전주비전대학교 예시

- 이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유학생 지역특화형 취업캠프,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등 학업·생활 적응부터 취업과 지역 정착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예정)자(D-2 또는 D-10)가 전주·군산·익산·원주를 제외한 도내 10개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여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있음. 해당 비자는 일정 요

건을 충족하면 동반가족 초청·배우자 취업 가능 등의 혜택이 부여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가족 단위 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음

- (유학생 지역특화형 취업캠프) 도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지역특화형 취업캠프를 운영하고 있음. 캠프는 전북형 취업 이해, 취업 역량강화, 지역산업 탐방, 지역문화 이해, 창업 이해 등으로 구성됨
- (외국인 유학생 직무인턴) 전북 소재 대학(원) 정규과정 재학 외국인 유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중견·중소·지역특화형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직무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참여자는 통·번역, 내방객 응대, 외국어 자료조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
-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기업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박람회는 지역기업에 취업한 선배 외국인의 멘토링, 도내 기업 홍보 및 안내, 이력서·면접 컨설팅, 기업별 채용 설명과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유학생의 취업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상당수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나 국가 비자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전북이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치 수단과 정책적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향후에는 새만금 한글학당을 중심으로 한 해외 현지 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ODA사업, 해외 자매·우호지역, 도내 전략산업 및 지역대학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전북 주도의 외국인 유학생 발굴·유치 경로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제3장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1. 국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2. 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3. 종합 및 시사점



제3장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1. 국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 국내 사례분석 유형

- 국내 ODA사업과 연계하여 유학생을 유치한 사례를 종합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함. 유치 경로나 사업의 특성, 주체 등의 특성에 따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함.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학생 유치 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초청연수 기반형) ODA 연수·장학사업으로 국내 대학에 개발도상국 유학생·초청연수생이 연수를 받는 유형임. 중앙부처나 KOICA 등 공여기관이 사업의 주체로 특정 분야나 주제를 기반으로 장학생 및 연수생을 초청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 다만, 이 유형의 경우 귀국을 전제로 설계됨. 대표 사례로는 KOICA 석사학위연수(SP), 글로벌연수(CIAT), 정부초청장학생(GKS)이 있음
-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국내 대학의 학위와 연계하여 유학생을 유치하는 유형으로 대학이 주도적으로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대표 사례로 개도국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을 들 수 있음
- (국제기구 연계형)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 거점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유형으로 국제기구와 정부, 대학,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추진됨. 대학 설립과 학위 수여 자체가 사업의 목적으로 학위 결합 정도가 높고 거점 대학화를 통해 정주인력 유치에도 효과적인 사업임. 대표 사례로 FAO 세계수산대학(부경대), 세계농업대학(원광대)을 들 수 있음
- (지자체 주도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ODA사업으로 우호협력국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유형임.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대표적인 사례로 충남 아산지역과 경북지역의 사례가 있음

가. 초청연수 기반형

- 초청연수 기반형은 KOICA, 교육부 등 중앙정부 또는 공여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정책담당자, 연구자, 기술인력, 학생 등을 국내 대학 또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초청하여 교육·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임. 이 유형은 연수생이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한국의 정책 경험과 기술을 학습한다는 점에서 유학생 유치와 유사한 성격을 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원국 인적역량 강화와 귀국 후 성과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유학생 정착정책과는 구분됨
- KOICA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에 따르면,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초청연수 또는 현지·제3국 연수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기술협력 사업임. 사업목표는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수원국의 인적자원·조직·제도 역량을 강화하며, 수원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및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음(KOICA, 2020)

1) KOICA 석사학위연수(SP)

- KOICA 석사학위연수(Scholarship Program, SP)는 개발도상국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과정을 제공하는 학위형 연수사업임. 일반 단기연수와 달리 연수생이 국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에 편입되어 전공교육, 논문작성, 현장학습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학위 결합도가 높은 유입 경로로 볼 수 있음. KOICA 공식 사업개요에서도 석사학위 과정은 글로벌연수사업의 유형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음
- KOICA(2018)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6년까지 총 155개 과정에서 3,021명의 개발도상국 연수생이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로는 공공행정 91개 과정 1,747명, 농림수산 25개 과정 504명, 교육 16개 과정 319명 등이 확인됨. 이는 KOICA 석사학위연수가 개발도상국 인재를 국내 대학 교육과정으로 유입시키는 제도화된 경로로 기능해 왔음을 보여줌
- 실제 운영사례로는 한림대학교 기후변화대응 석사학위연수가 있음. 한림대학교 글로벌협

력대학원은 KOICA 석사학위연수 수행기관으로서 기후변화대응정책학 석사과정을 운영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설계·추진할 수 있는 정책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함. 이 사례는 특정 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교육과 정책역량 강화를 결합한 학위연수 운영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다른 사례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사회적경제 석사학위연수가 있음.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KOICA-Yonsei University Master's Degree Program in Social Economy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사회적경제 분야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사학위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과정은 한국의 사회적경제 경험과 현장학습을 교육과정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정책경험을 학위과정과 연계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례는 KOICA 석사학위연수가 단순 장학 지원이 아니라, 국내 대학의 특화 전공과 지역 기반 정책경험을 개발도상국 인재양성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줌. 다만 SP는 기본적으로 수원국 공공부문 인력의 역량강화와 귀국 후 활용을 전제로 하므로, 국내 취업이나 지역 정착으로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아님. 따라서 전북형 모델에서는 농생명·스마트농업·식품·바이오·기후대응 등 전북 특화 분야 대학원 과정과 SP를 연계하고, 수료 이후 동문 네트워크, 공동연구, 후속연수, 지역기업 협력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함

2) 글로벌연수사업(CIAT, 씨앗)

-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공무원, 정책담당자, 연구자, 기술인력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개발경험과 정책·기술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초청연수사업임. KOICA는 글로벌연수사업의 브랜드명으로 '씨앗(Capacity Improvement and Advancement for Tomorrow, CIAT)'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연수사업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KOICA, 2020)
- KOICA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에 따르면, 동 사업은 1963년부터 시작된 기술협력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주요 인사인 정책입안자,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

로 한국초청연수 또는 현지·제3국 연수를 실시해 왔음. 1991년부터 2018년까지의 누적 실적은 4,897개 과정, 81,199명으로 제시됨(KOICA, 2020)

- 사업유형은 참가국 기준으로 국별연수와 다국가연수로 구분됨. 국별연수는 1개 특정 수원국을 대상으로 정책·기술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는 방식이며, 다국가연수는 2개 이상의 수원국을 대상으로 공통 정책수요나 분야별 역량강화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임(KOICA, 2020). 또한 연수 종료 이후에는 결과보고, 정산, 종료평가, 사후관리 절차가 운영되며, 연수성과가 있을 경우 소규모 지원, MOU 체결, 현업적용 사례, 협력사업 발굴 등 성과사례를 정리하도록 규정함(KOICA, 2020)
- 전북지역에서도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자료(2026)에 따르면, 진흥원은 협력국 주요 인사, 정책입안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북 초청연수사업을 운영하며, 한국과 전북의 주력 기술 및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키르기즈 공화국,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말라위, 온두라스, 도미니카 공화국, 벨리즈, 감비아 등으로 제시됨
- 최근 전북 사례로는 2026년 인도네시아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이 있음. 해당 사업은 ‘기후 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에너지 활용 스마트농업 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며, 인도네시아 농업국 공무원 17명이 수료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전북의 농업기술 및 스마트 농업 경험을 개발도상국 공무원 역량강화와 연결한 사례임
- 또 다른 사례로는 2024년 아프리카·중남미 다국가 KOICA 글로벌연수사업이 있음. 해당 사업은 기후스마트농업 기술 역량강화 연수로 추진되었으며, 케냐, 모잠비크, 르완다, 도미니카공화국, 말라위, 온두라스 등 6개국 농업 공무원 10명이 수료한 것으로 제시됨. 이는 전북형 ODA가 특정 국가 중심의 협력뿐 아니라 다국가 대상 기후·농업 분야 역량강화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줌
- CIAT는 학위과정은 아니지만, 개발도상국 핵심 인력과 국내 대학·공공기관·전문연수기관이 접촉하는 초기 경로라는 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과 연결 가능성이 있음. 특히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나 지역 대학이 농생명·기후스마트농업·문화관광 등 전북 특화분야 연수 과정을 운영할 경우, 단기연수 경험을 전북지역 대학 진학, 공동연구, 후속 초청연수, 전문교육 과정으로 연결하는 후속 트랙을 설계할 수 있음

- 다만 CIAT는 기본적으로 단기 또는 중기 연수 중심의 비학위 사업이므로, 연수 참여가 곧바로 학위과정 진학이나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전북형 모델에서는 연수 종료 후 우수 연수생을 대상으로 전북지역 대학원 진학 안내, 공동연구 참여, 지역기업 연계 프로그램, 후속연수 및 동문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lobal Korea Scholarship, GKS)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학위과정 중심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임. GKS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대학의 학위과정 진학 기회를 제공하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초청연수 기반형 가운데 학위 결합 정도가 높은 사례로 볼 수 있음
- KOICA 연수사업이 주로 수원국 공공부문 인력의 역량강화와 귀국 후 활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 GKS는 국내 대학 입학과 학위 취득을 직접 지원하는 장학형 유학생 유입 경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다만 GKS는 ODA사업 자체라기보다는 정부 장학 기반의 유학생 유치사업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ODA사업과 연계 가능한 학위과정 유입 경로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GKS 학위과정은 학부, 석사, 박사 등으로 운영되며, 한국어 연수와 학위과정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고등교육 진입을 지원함. 정부가 운영하는 Study in Korea 안내에서도 GKS는 학부·석사·박사 학위과정을 포함하는 대표 장학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어 있음. 최근 GKS는 지역대학 중심 트랙인 R-GKS와 산학협력 중심 UIC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대학 및 산업수요와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첫 번째 사례는 R-GKS(Regional GKS)임. R-GKS는 서울 외 지역대학에 초점을 둔 지역대학 중심 장학 트랙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비수도권 대학을 통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관련성이 있음. 이는 지역대학이 GKS를 활용하여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라는 점에서 전북지역 대학에도 시사점을 제공함
- 두 번째 사례는 UIC(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프로그램임. UIC는 자연과학·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 기반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으로 안내되고 있음. 이는 유학생 유치를 대학 입학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산업체 수요와 현장실습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전북의 경우 GKS 장학생 규모 자체가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전체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은 이미 일정 규모를 형성하고 있음.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전체 약 8천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은 약 6천 명,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약 2천 명으로 제시됨. 학위과정 중 학부생은 약 4천 명, 석사 994명, 박사 931명이며, 비학위과정 중 어학연수생은 1,922명으로 나타남(전희진·전아람, 2026)
- 전북특별자치도는 RISE사업의 일환으로 도·교육청·대학·출입국사무소 등이 참여하는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홍보대사와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전북특별자치도, 2024)
- 또한 RISE사업 내 프로젝트 2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의 단위과제로 '해외우수인재 원스톱 지원'을 설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정주·취업을 향상과 중도탈락률 감소를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전북특별자치도, 2024). 특히 전북대학교는 글로벌대학 실행계획에서 '유학생 5,000명 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을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지역대학 차원의 유학생 유치 기반도 확대되고 있음(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2024)
- 이러한 사례는 GKS가 ODA사업과 직접 동일한 성격의 사업은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 인재의 국내 학위과정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대학·산업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유학생 유치 기반으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줌. 다만 GKS 장학생 유입이나 KOICA 연수참여가 곧바로 지역 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전북형 모델에서는 KOICA SP, CIAT, GKS와 같은 기존 유입 경로를 전북지역 대학의 특화 학위과정, 산업체 실습, 지역특화형 비자 및 광역형 비자와 연결하는 후속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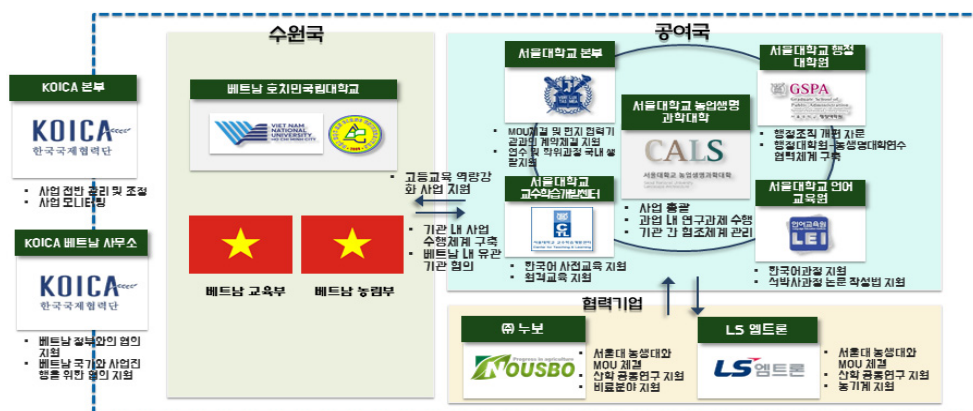
나.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은 국내 대학이 ODA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여 수원국 대학의 교육과정, 교수역량, 연구역량, 시설·기자재, 산학협력체계 등을 지원하는 방식임. 초청연수 기반형이 주로 공여기관이 설계한 연수과정에 국내 대학이 참여하는 구조라면,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은 국내 대학이 보유한 전공역량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원국 대학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 유형은 현지 대학의 학과·교육과정 개선, 교원 역량강화, 연구기반 조성 등을 통해 수원국 대학의 고등교육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음. 동시에 교원 학위과정, 학부생 교류, 공동연구,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향후 국내 대학과 개발도상국 인재 간 장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 유치정책과도 연결 가능성이 있음

1) 서울대-베트남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사업

- KOICA(2025)의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발전을 위한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르면, 본 사업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사례임.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되는 909만 달러 규모의 교육 분야 프로젝트로, SDGs 기준으로는 ‘교육 보장과 평생교육 향상’에 해당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 사업 목적은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의 교수요원 인적자원개발, 대학 교과과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대학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체계 구축, 대학-산업체 간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교수요원 인적자원개발 부문에서는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 교원의 박사학위 취득, 석·박사 후 연구원 과정, 교수요원 단기연수, 한-베 공동연구 및 공동학술대회가 포함됨. 교과과정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기존 전공 및 교육과정 개선, 학부 및 대학원 신설 전공 개설, 하이테크 농업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기자재 구축,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 등이 제시되어 있음

- 행정조직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보직교수 리더십 강화 연수, 행정직원 역량강화 연수, 실험실 운영관리자 연수 등이 포함됨. 산학협력 측면에서는 대학-산업체 간 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지원, 산학위원회 설치·운영, MOU 체결, 메콩델타 지역 농업기술 개발 관련 공동연구 등이 포함됨. 협력기업으로는 삼성 멀티캠퍼스, (주)누보, LS엠트론 등이 제시되어 있어, 대학 교육과정 개선과 산업 현장 연계를 함께 고려한 구조로 볼 수 있음
-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동 사업은 구체적인 산출물과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산출물로는 교원 박사학위 취득 6명, 석·박사 후 연구원 과정 이수 14명, 교수요원 국내초청 연수 및 현지연수, 공동연구 논문 투고, 공동학술대회 개최, 전공 교재 및 교육과정 프로파일 개발, 신설 전공 교재 제작, 공공기기센터 구축, 학부생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됨
 - 성과지표로는 호치민 농대 신입생 충원율, 졸업생 농업 분야 전공 유지율, 교육행정 역량평가, AUN-QA 품질평가 향상 등이 제시되어 있음
- 이 사례의 핵심은 국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수원국 대학의 제도 개선과 인재양성 체계 구축으로 연결되며, 향후 수원국 학생과 연구자가 국내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전북형 ODA 연계 유학생 유치모델도 현지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과 전북지역 대학의 학위과정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자료 : KOICA. (2025).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발전을 위한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그림 3-1] 사업수행체계 도식

2) 개도국 농업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최수정 외(2020)의 연구는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사례를 전북형 모델로 확장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함. 동 연구는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 수요, 국내 농업 인재 양성 ODA 현황, 지원기관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분석함
- 동 연구는 국내 농업 인재양성 ODA가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석사학위연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초청연수, 농촌진흥청 KOPIA, 교육부 정부초청장학생,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추진되고 있음을 정리하고 있음. 또한 KOICA 글로벌연수는 공무원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기연수가 많고, 석사학위연수는 실용성이 높지만, 과정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함
- 이러한 논의는 전북형 ODA 연계 유학생 유치모델이 단순 초청연수나 수원국 대학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농생명·스마트농업·식품·바이오 등 지역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교육과정 개선, 국내 초청연수, 전북지역 대학 학위과정, 지역기업 인턴십을 단계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자료 : 최수정 외. (2020). 개발도상국 농업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그림 3-2]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모델(안)

다. 국제기구 연계형

- 국제기구와 연계한 유학생 유치 사례는 FAO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적 성격의 거점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시로 개도국의 인재를 유치하는 유형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대학, 국제기구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함

1) FAO 세계수산대학(부경대학교)

- 스웨덴 말뫼에 위치한 세계 해사대학교(WMU)는 UN 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의 승인으로 설립된 대학임. 1983년 IMO 총회의 결의안에 따라 해양 및 해양학 분야의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것과 함께 개도국 인재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개발도상국의 해양분야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양 및 조선업과 관련된 산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석·박사과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협력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 운영에 활용하고 있음. 국제기구의 자금 이외에도 개인의 기부금과 스웨덴 정부, 말뫼 시의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가 설립 및 운영되고 있음
- 국내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FAO산하의 세계수산대학(WFU; World Fisheries University)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부경대학교와 FAO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2013년부터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함(해양수산부, 2015)
- 2013년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함께 추진해 2017년 7월 FAO 총회의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 약정 체결이 이루어짐. 2013년 6월 로마 제38차 FAO 총회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후 2013년 11월 뉴욕 제68차 유엔총회 수산결의한 비공식회의에서 협력 문안을 교환하였음. 이후 2014년 3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제32차 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교육훈련을 통한 개도국 수산분야의 인재들의 역량강화 촉진에 대한 내용이 제안됨
- 이후, FAO와의 회의 등을 통해 2017년 7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 약정이 체결되고 2017년 9월부터 세계수산대학 자체 시범사업 운영이 시작되었음. 이후 2020년 3월부터 공동시범사업이 운영되고 2021년 FAO 컨퍼런스에서 세계수산대학의 공식설립이 논의되었으나 최종승인을 받지 못하고 사업이 마무리됨

2) 전북 FAO 세계농업대학(원광대학교)

- 원광대학교는 ‘세계농업대학’을 설립하여 생명산업의 인재양성 글로벌 거점 대학을 조성하고자 함. 세계농업대학은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양성 사업인 ‘글로벌대학 30’ 선정 을 바탕으로 원광대학교의 글로벌 리더십 선도 플랫폼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추진된 사업임.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원광대학교는 ‘새만금의 미래를 여는 생명산업 인재양성 글로벌 거점 대학’을 비전으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세계농업대학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립을 위한 추진을 진행 중에 있음(원광대학교, 2026)
 - 세 가지 목표로 ① 세계 생명산업의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 거점 조성, ② 농생명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산학 융합 R&BD 허브 조성, ③ 새만금 개발의 가치 실현을 촉진할 지역혁신 모델 구축을 설정함
- 세계농업대학은 새만금 수변도시 내 363,000m² 내외의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고 원광대학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캠퍼스 내 포함될 예정임. 글로벌 스마트 농생명 인재양성 센터와 사이언스파크 등의 농생명용지 내 위치도 활용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연차별 전공개설 계획으로는 준비기인 2024년부터 2028년에는 국제농업학부를 신설하고 세계 농업대학 본교 운영 기간을 가질 계획임. 2단계 구축기(2028~2032년)에는 세계농업대학 새만금캠퍼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자 함(원광대학교, 2026)
 - 학생 유치 계획으로는 1단계 준비기에는 국제농업학부 4개 학과를 신설하였음. 종자산업과 스마트팜과, 스마트 제조·가공과, 스마트안전관리과의 4개 학과 중 2026년 현재는 스마트팜 학과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하였고 총 47명이 학부과정으로 등록하여 재학 중임

[표 3-1] 세계농업대학 1단계 준비기 학생 유치 계획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국제농업학부 전공 개설(4개)	-	-	4	-	-
농생명 유학생 유치(학위 205명)	-	40	50	80	80
농생명 유학생 유치(비학위 150명)	-	20	30	50	50

- 2단계 구축기에는 새만금에 새로운 캠퍼스를 조성하고 농생명 유학생의 학위과정과 비학위 과정을 확대하여 유치할 계획임

[표 3-2] 세계농업대학 2단계 준비기 학생 유치 계획

구분	2029	2030	2031	2032
농생명 유학생 유치(학위 360명)	80	80	100	100
농생명 유학생 유치(비학위 600명)	150	150	150	150

- 유학생 확보를 위하여 원광대학교는 해외 거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유학생 유치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한국어기본교육, 장단기 연수, 교육과정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국제협력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 중에 있는데 RIS 농생명·바이오사업단, 연변대 북방농업 연구소, 카자흐스탄 육종연구소 설립 등의 원광대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존에 구축되어 온 협력체계를 넓히는 등의 방식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음
-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산업 주문형·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현장체험 및 실습·인턴십 프로그램을 계획함. 유학생 전용 산업체 주문형 학위과정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연계할 예정임
- 현장실무 연계지원 프로그램으로는 WON UNIV.-참프레/하림 트랙의 채용연계형 주문식 교육 운영을 기획 중에 있음. 익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와 연계하여 제품개발부터 마케팅, 연구시설 등 관련 기업과 취업이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농업 관련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인턴십을 계획 중임. 세계농업대학 학생의 경우 인턴십을 지원하고 비교과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 지역특화형 비자(F-2-R)와 연계하여 취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에 있음
- 현재 농생명융합대학의 국제농업학부를 세계농업대학으로 전환 및 설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농업 실증단지와 함께 세계농업대학 조성을 위해 협의 중에 있음

라. 지자체 주도형

- 지자체 주도형은 중앙부처나 KOICA 등이 기관이 아닌 지자체가 사업의 기획과 재원 마련, 운영 등의 주체가 되어서 개발도상국의 인재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나 장학지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형임. 지자체가 지역 내에 맞는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 정주 정책과의 연계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볼 수 있음

1)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기반 ODA 학위과정 연계 사업

- 경상북도는 국내 지자체 중 ODA 사업규모가 타 지자체에 비해 큰 지자체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ODA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성공경험을 ODA사업의 콘텐츠화하여 경북만의 ODA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오고 있음. 국제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5년간 100억 원 규모를 구성하였고, 경북 국제화 그랜드플랜,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파견 등의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신종호, 2012; 최영출 외, 2023). 2021년까지 르완다·세네갈·코트디부아르·베트남·스리랑카·인도네시아·캄보디아·라오스 등 8개국을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프로젝트를 동시에 운영하였음(최영출 외, 2023)
- 경북도는 영남대학교의 박정희 새마을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에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2011년 개원한 이 대학원은 경북도의 장학 지원사업을 바탕으로 47개국의 290여명의 인재를 배출하였음. 졸업생들은 각국에서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과 지역개발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2026년에는 석사과정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14개국 출신의 공무원과 NGO 활동가, 기업인 등이 참여하여 새마을운동과 지역개발 정책을 학습하고 있음(국제뉴스, 2026.6)
-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은 2011년 설립 이후 세계은행·유엔세계식량계획 등 7개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1,0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하였고, 대부분이 개발도상국 출신임. 2026년 3월에는 20개국 29명이 입학하여 누적 입학생 출신국이 77개국에서 8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29개국 158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임(영남대 보도자료, 2026; 경북매일, 2026)

- 경북도의 ODA사업은 경상북도청 새마을봉사과에서 주로 추진 중이며 새마을재단 사업부 등과 협력하여 운영 중에 있음. 경북도에서 새마을 재단 ODA 사업수행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새마을재단의 자체예산을 통해서도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경북도의 올해 ODA사업 추진 예산은 [표 3-3]과 같음

[표 3-3] 경북도 추진 사업 및 규모

사업명	사업유형	2026년 예산
세네갈 혁신적 농촌공동체 새마을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0.8백만원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인도네시아)	프로젝트	5백만원
스리랑카 국가차원 새마을사업	프로젝트	3백만원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베트남)	프로젝트	2.2백만원
개발도상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코트디부아르)	프로젝트	2.4백만원
개발도상국 새마을 연수 및 보급	연수사업	1백만원

자료: ODA코리아 홈페이지 지자체ODA 지원현황

2)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

- 대구광역시는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자체 ODA사업으로 학위과정 장학지원 사업을 운영 중임. 2021년 지자체 ODA 예산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은 장학지원 사업으로 5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2024 ~2025년에도 연 2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
-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우수 인재를 초청해 석사학위 과정을 지원하는 ODA 성격의 사업으로, 현재까지 38개국 201명의 장학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각국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국제개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음. 사업은 경상북도 사례와 유사하게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과 협력하여 추진되고 있음 (뉴스핌, 2026.5.24)
- 대구시의 사례는 지역 산업현장과 연결된 프로그램 설계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2026년 5월에는 르완다·짐바브웨·탄자니아·말라위·미얀마 등 11개국 출신 공무원·국제개발 종사자 등 장학생 16명이 참여하여 국내 대표 농기계 기업인 (주)대동 본사 대

구캠퍼스를 방문해 첨단 농기계 생산공정과 스마트농업 기술을 전학하기도 하였음. 달성 군농업기술센터에서 대구시의 농업인 지원정책과 농업기술 보급 사례를 확인하는 등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대구일보, 2026.5.25). 농업분야 이외에도 문화·관광 자원을 접목하여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통한 지역개발 전략을 교육하기도 함(열린정부, 2026)

- 대구시는 지자체 재원으로 ODA 유학생의 장학금을 부여하고 학위과정을 지역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 지역의 대표 기업과 기술센터, 축제 등을 교육콘텐츠로 활용하여 지역의 자산을 교육과정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기초지자체 차원의 ODA사업 운영

- 광역단위가 아닌 기초지자체 차원의 ODA사업 운영도 일부 지자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음. 강원도 화천군은 6.25 전쟁 당시 화천지구 전투에 참전한 에티오피아와의 인연을 근거로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화천군의 국내 유학 지원은 201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9명이 국내에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2025년 기준으로 명지대 대학원 환경에너지공학과와 한림대 대학원 언론정보학과에 각 1명이 재학 중이고, 현지 점검을 통해 이듬해 한림대 대학원 석사과정 유학생 1명이 추가 선발되었음(아주경제, 2025). 현지 장학사업 자체는 시행 10년 만에 수혜 학생이 292명으로 확대되었음(경향신문, 2018)
-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전 에티오피아 참전군 후손 지원사업을 장학지원 유형 ODA 사업으로 편성하여 2021년 1억 원, 2025년 1.8억 원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음. 다만, 선발 학생이 진학한 대학이 명지대·한림대 등 도외 대학인 경우가 있어, 장학 재원은 지역이 부담하되 교육·정주 성과는 지역 밖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누수가 나타남
- 충남 아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KOICA와 해외개발프로젝트 협력 협약을 체결한 기초지자체로 2010년부터 아프리카 농업분야 고위관계자를 초청하여 농업연수를 실시하고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농기계를 함께 홍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음. 이는 ODA를 지역 산업 판로 및 국제 인지도 제고와 결합한 초기 사례로 평가됨(신종호, 2012). 제도적으로도 아산시는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2011.3.25)를 두어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였음

2.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분석

■ 국외 사례분석 유형

- 국외 사례는 일본, 독일, 호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 이들 국가의 사례를 ‘지역 거점성’과 ‘산업·분야 특화성’을 기준으로 구분함. 지역거점성은 지역대학, 지방정부, 기업 및 지역 현장과의 연계 정도를 의미하며, 산업·분야 특화성은 교육과 연구가 농업, 에너지, 수자원, 중소기업 등 특정 분야와 결합되는 정도를 의미함. 이를 바탕으로 일반형, 분야특화형, 지역연계형, 지역·분야특화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 국가 차원의 장학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협력국의 인재를 여러 대학과 전공으로 유치하는 유형임. 유학생 유치 경로와 국제 인재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나 지역 및 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상대적으로 낮음. 대표 사례로 일본 JICA 장학 프로그램, 독일 DAAD EPOS, 호주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가 있음
- (분야특화형) 장학생 선발, 교육과정 및 연구를 특정 산업이나 개발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유형임. 농업·식품, 에너지, 수자원, 중소기업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에 적합하며 전복의 전략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높음. 대표 사례로 독일 호엔하임대학교 AgEcon, 라이프치히대학교 SEPT, 호주 John Allwright Fellowship 등이 있음
- (지역연계형) 대학, 지방정부, 상공회의소, 고용기관 및 지역기업이 협력하여 유학생의 교육과 지역 적응을 지원하는 유형임. 대표 사례인 독일 파더보른대학교 InRegioFIT는 국제학생의 지역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나, ODA가 아닌 독일 연방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임
- (지역·분야특화형)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산업현장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교육을 운영하는 유형임. 지역거점성과 분야특화성이 모두 높아 전복형 모델로의 적용 가능성이 큼. 대표 사례로 독일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EDev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베트남 관개·수자원관리 Fellowship이 있음

가. 일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 일본 ODA 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개괄

- 일본 ODA 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는 집행 주체에 따라 크게 JICA형, 정부부처형, 다자기구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연구 목적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본 절에서는 JICA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먼저 ODA 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일본 외무성 산하 ODA 전담기관인 JICA가 운영하는 JICA 장학 프로그램임. 협력국 정부가 추천한 미래 리더를 일본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하위에는 대상과 분야가 다양한 장기연수·장학 트랙이 존재함
 - 다음으로 정부부처형은 각 부처의 정책 분야와 연계하여 교육 및 기술협력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며, 문부과학성의 MEXT 국비외국인유학생 제도가 대표적임. 다만 이러한 제도는 ODA보다는 교육·외교적 성격이 강하며 대상이 반드시 ODA 수원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ODA 유학생 유치 사업 사례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자기구형은 일본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국제기구가 운영하여 개발도상국 인재의 대학원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이 경우는 일본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가 선발과 운영을 주도하고 수학 대학도 일본 내 대학으로 한정되지 않아 일본의 지역대학·지자체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이처럼 정부부처형과 다자기구형은 일본 ODA의 추진구조를 이해하는 데에는 중요하나, 본 연구의 초점인 ‘ODA 재원을 활용한 대학원 학위과정 유학생 유치’ 사례로는 JICA 운영형에 비해 직접성이 낮음에 따라, 본 절에서는 JICA형을 중심으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현재 운영 중인 JICA 장학 프로그램은 전체 유학생 대상 공통 교육과정인 JICA-DSP를 비롯하여, 공공 인력 양성 및 SDGs, 농업, 도시개발, 보건, 수자원, 관광, 산업정책,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 특화 및 산업 연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3-4] 2024~2026년도 JICA 유학 제도를 통한 주요 인재 양성 사업

과정명	구분	개요
JICA-DSP	공동과정	JICA ODA 유학 지원 장학생이 일본 대학원 재학 중 일본의 발전경험 및 개발협력 역사를 학습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
JDS	일반	1999년부터 시행된 무상원조형 장학 사업으로, 개발도상국 공무원 공공부문 인재를 일본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초청
SDGs 글로벌 리더	일반	정부기관 대학 등에서 SDGs 달성을 위한 개발협력 역량을 추진할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
Agri-Net	분야 특화	농업·농촌개발, 푸드밸류체인, 축산·One Health, 수산, 자연환경보전 등 식량안보 분야 인재 양성
ABE Initiative	산업 연계	아프리카 산업인재를 일본 대학 석사과정과 일본기업 인턴십으로 연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분야 특화	관광 관련 중앙부처·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전략 수립·실행 인재 양성
실천적 통합수자원관리	분야 특화	수문·수자원공학, 사회적 합의형성, 수자원관리 정책을 학습하는 통합수자원관리 인재 양성
기후변화대책 중심인재 육성	분야 특화	NDC, 장기저배출발전전략, 국가적응계획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 인재 양성
아시아 지역 투자촉진·산업진흥	산업 연계	투자청·공업부·상업부 등 간부후보를 대상으로 일본식 경영과 산업진흥 역사를 이해하는 인재 양성
NINJA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지원	산업 연계	창업가 지원정책 담당자, 연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역량 강화
GX 인재육성 프로그램	분야 특화	에너지정책, 전환경제 모델분석, 전력산업체 경영 등을 통한 탈탄소 전환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분야 특화	도시정책 도시개발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부후보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인재 양성
깨끗한 도시를 위한 중핵 인재 육성	분야 특화	폐기물관리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 계획·실행 중핵인재 양성
수도 분야 중핵인재 육성	분야 특화	수도 담당 부처·수도사업체 젊은 간부후보를 대상으로 수도 분야 차세대 인재 양성
주민참여형 지방행정	일반	지방행정관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민관협력 기반 행정계획 수립·실행 역량 강화
강인한 국가·사회 만들기 위한 행정능력 강화	일반	취약국·분쟁영향국 행정관을 대상으로 포용적 지방행정서비스 역량 강화
산업정책·공공경영	산업 연계	산업진흥 정책 입안자·연구자·실무자를 대상으로 카이젠, 품질·생산성 향상, 기업역량 강화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신 인재육성	분야 특화	공학계 고등교육기관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역량과 네트워크 강화
ICT를 통한 사회과제 해결, 사이버보안	분야 특화	사이버보안 조직 간부후보 및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중핵인재 양성
우주인재 육성	분야 특화	위성 개발·관측 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기술개발 고급인재 양성
보편적 의료보장, UHC	분야 특화	보건의료 행정관·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UHC 추진 인재 양성
감염증 대책 글로벌 리더 육성	분야 특화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행정·교육·연구 분야 리더 양성
아동의 학습 개선	분야 특화	교육부·교육연구기관 인재를 대상으로 초·중등교육 개선 인재 양성
법·사법 분야 중핵인재	분야 특화	법·사법 관계기관 직원 및 법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법·사법제도 개선 역량 강화
국제공법 분야 중핵인재	분야 특화	국제공법 지식 전수를 통해 법의 지배 공유와 중핵인재 양성
도로자산관리기술 중핵인재 육성	분야 특화	도로행정관·기술자를 대상으로 도로자산관리 지식·기술 습득 지원
센다이 방재 프레임워크 기여 방재 중핵인재	분야 특화	방재기관 인재를 대상으로 방재 주류화와 방재체제 강화 역량 양성
자원분야 인재육성, 자원의 유대 프로그램	분야 특화	광업 관련 행정관·기술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자원개발과 일본 자원회복 협력 인재 양성

자료: JICA. (2023). 유학제도를 활용한 주요 인재육성사업. 일부 발췌.

https://www.jica.go.jp/activities/schemes/dsp-chair/international_student/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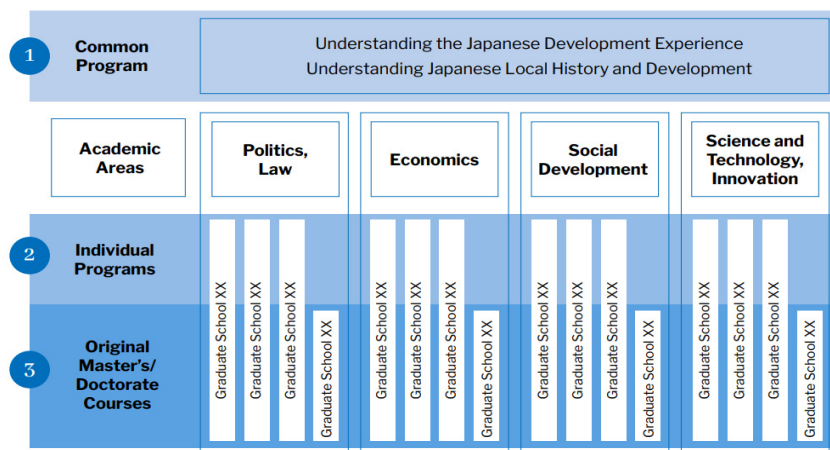
■ 일반형: JICA-DSP 프로그램

- JICA-DSP Program은 JICA 장학생이 일본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교육을 이수하면서 일본의 근대화 및 개발경험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는 대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임
- 해당 프로그램은 별도 장학 트랙이 아닌 JICA 장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통 교육과정으로, 강의와 Local Program을 통해 일본의 지역 역사, 지역산업, 지역발전 경험을 이해하도록 구성됨
- 전북형 모델 적용 시, KOICA ODA 장학생 사업 등 기존 정규 장학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의 전략산업 및 지역발전 사례를 학습하는 지역기반 프로그램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음

Two components of 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



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



자료: JICA. (2022). 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

[그림 3-3] JICA-DSP 프로그램 구조

○ 사업개요

사업명	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 JICA-DSP	유형	일반형
추진주체	JICA (중앙기관)	협력주체	일본 내 협력 대학원 및 연구기관
사업기간	2018년 - 현재	재원규모	FY2025 기준 8,161백만 엔
조달방식	JICA 예산 내 운영비 (단, 예산 편성 시 JICA-DSP와 JICA Chair 합산하여 편성)		
사업성격	JICA 장학생 대상 대학연계 교육 프로그램 (독립 장학사업 아님)		

○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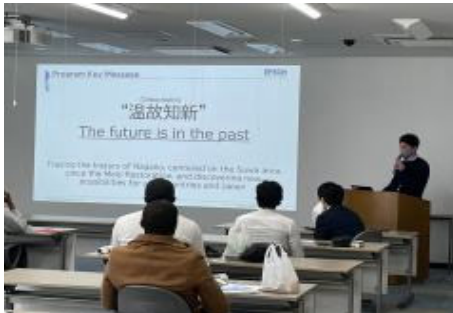
목적	협력국의 미래 리더가 일본의 근대화·개발경험과 각 전공 분야 전문지식을 학습하여, 본국 개발과 일본과의 장기적 관계 형성에 기여
대상	JICA 장학생으로 일본 대학원에 유학 중인 장기연수생
기간	프로그램 별 상이
내용	Common Program: 강의 및 Local Program을 조합하여 일본의 개발경험과 지역 역사·발전을 이해하도록 구성 Individual Program: 참여 대학 학위과정에서 전공분야별 개발학 프로그램 제공

■ 지역연계형: EPSON 지역이해 프로그램

- EPSON 연계 지역이해 프로그램은 JICA Tokyo가 추진하고 민간기업인 Epson 社가 협력한 사례로 JICA 유학생이 지역 기반 글로벌 기업의 성장 과정과 지역산업 발전 경험을 현장에서 학습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임
 - Epson 社は 나가노현 스와 지역에서 창업하여 해당 지역에 본사를 둔 민간기업으로, JICA 와 2027년까지 포괄연계협정을 체결하고 JICA 유학생 대상 지역이해 프로그램, 인턴십, 교육 분야 협력 등을 추진
- 전복형 모델 적용 시, 지역기반 기업이 지역 연계 프로그램 교육 및 관내 인턴십 기회 제공에 참여함으로써 유학생의 지역 네트워킹 및 정착 연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자료: Epson. (2024). Epson and JICA renew partnership fo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자료: JICA. (2023). The JICA-DSP Local Program in the field of Private Sector “Epson's history of Community-based Development” -Organized by JICA Tokyo

[그림 3-4] JICA-Epson 협력 재체결 안내 및 Epson 지역이해 프로그램 참여 사례 사진

○ 사업개요

사업명	EPSON 지역이해 프로그램	유형	지역연계형
추진주체	JICA tokyo (JICA의 국내 권역별 거점기관)	협력주체	Epson社 (글로벌 정밀기기 기업) 나가노현 스와시 (시군구 단위)
사업기간	2023년 ~ 현재 (매년 연 1회 운영, MOU에 따라 ~'27년 추진 예정)	재원규모	개별 프로그램 단위 재원 비공개
조달방식	JICA tokyo에서 경비 지출, Epson은 프로그램 운영, 인턴십 등 비금전적 자원 제공		
사업성격	지역·기업 연계형 현장학습 및 인턴십 연계 사례 (정규 학위과정 유치사업은 아님)		

○ 주요 사업내용

목적	JICA 유학생이 지역 기반 기업인 EPSON의 성장 과정과 스와 지역의 산업 발전 경험을 학습하도록 지원
대상/규모	일본 대학원 재학 JICA 유학생 / 연 15명 내외
기간	1박 2일, 이후 장학생의 인턴십 연계 시 인턴십 기간 포함
내용	• EPSON 본사 방문, EPSON 창업기념관 시찰, 스와 지역의 역사·지리·산업 발전 학습, 오키야 실크 박물관 방문, EPSON 직원 및 JICA 장기연수생 인턴과 교류 • EPSON은 JICA 장기연수생 대상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1차 프로그램 참가자 중 2명이 EPSON에서 졸업 후 인턴십을 수행하고 2차 프로그램 워크숍 참여

■ 분야 특화형: Agri-Net

- Agri-Net은 일본 정부 ODA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농업·농촌개발 분야 핵심인재를 일본 대학원 석·박사 과정으로 초청하여,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양성하는 JICA 장기연수 프로그램임
 - 2019년 신설되어 2020~2030년 동안 연간 약 100명, 총 약 1,000명의 석·박사 유학생 수용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으며, SHEP, 푸드밸류체인, CARD, 수산, One Health 기반 축산 개발 등 농업·식량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됨
- 전북형 모델 적용 시, Agri-Net은 전북의 전략 산업 분야와 직접적인 접점을 갖는 분야 특화형 사례이나, 유학생 유치를 넘어 지역 정주 및 취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전북 소재 대학원, 연구기관, 지역기업 인턴십 및 정주 지원체계와의 결합이 필요함
- 사업개요

사업명	Agriculture Studies Networks for Food Security, Agri-Net	유형	분야 특화형
추진주체	JICA	협력주체	일본 내 Agri-Net 수용 대학
사업기간	2020~2030년 (10년)	재원규모	Agri-Net 단독 사업비 비공개
조달방식	일본 정부 ODA 재원 (JICA Knowledge Co-Creation Program 일환으로 운영)		
사업성격	농업·농촌개발·식량안보 분야 JICA 장기연수·학위과정 프로그램		

○ 주요 사업내용

목적	농업·농촌개발 인재를 양성하고, 대상국-일본 간 중장기적 우호관계 및 네트워크 형성
대상/규모	개발도상국 공무원, 예비 학계 인재, 관련 분야의 공공·민간 부문 인재 / 연 100명
기간	석사 2년, 박사 3년 (단, 대학 프로그램에 따라 박사과정이 3년을 초과할 수 있음)
내용	• 등록금·입학금·검정료 등 실비, 생활비 월 117~148천 엔, 왕복 항공료 및 수당, 연구지원비 연 최대 360천 엔, 의료비 일부 등 지원 • ① SHEP, ② 푸드밸류체인 강화, ③ CARD, ④ 수산 중심 블루이코노미, ⑤ One Health를 향한 지속가능한 축산개발을 중점 클러스터로 제시

■ 지역·분야 특화형: 오비히로 축산대학

- 오비히로축산대학 Agri-Net 연계 사례는 JICA ODA 사업인 Agri-Net과 지역 농축산 특화대학의 학위과정을 결합하여, 개발도상국 장학생에게 농축산 전문교육과 지역 농업발전 경험을 함께 제공한 사례임
 - 특히 오비히로축산대학이 위치한 홋카이도 도카치 지역은 일본의 대표적인 농축산 지역으로, 장학생은 대학원 교육과 함께 지역 농업현장 및 발전사례를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기반 학습 요소가 있음
- 전북형 모델 적용 시, 전북 소재 대학의 농생명·식품·스마트농업 관련 학위과정과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연계하는 지역·분야특화형 모델 설계에 시사점이 있음
 - 전북 관내 대학원의 ODA 유학생 정원 확보를 위해 KOICA 등 ODA 집행 기관과 대학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원자 확보를 위해 적극적 사전 홍보 등이 요구됨
- 사업개요

사업명	오비히로 축산대학 Agri-Net 연계	유형	지역·분야특화형
추진주체	JICA (중앙기관)	협력주체	오비히로축산대학 (지역 대학) JICA 홋카이도센터 (JICA의 국내 권역별 거점기관)
사업기간	2020년 - 학위과정 종료 시	재원규모	대학별 인원 규모에 따라 변동
조달방식	일본 정부 ODA 금액 중 Agri-Net 배정 금액으로 운영		
사업성격	JICA Agri-Net 장학생을 오비히로축산대학 대학원 과정에 수용한 학위연수 사례		



자료: JICA, (n.d.). JICA-DSP Offered by Obihir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Veterinary Medicine

[그림 3-5] 오비히로 축산대학의 Agri-Net ODA 유학생 연계 교육과정

○ 주요 사업내용

목적	개발도상국 인재가 오비히로축산대학 대학원에서 농업·농촌개발 및 식량안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귀국 후 본국의 농업개발 및 일본과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도록 지원
대상/규모	Agri-Net 장학생 중 오비히로축산대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JICA 장학생 / 연 3명 내외
기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3년
내용	오비히로축산대학 대학원 학위과정 수학, 오비히로 지역 내 농업 관련 분야별 전문교육, 연구활동 및 현장 농업경험 지원

■ 기타: 아이치현 장학 프로그램 (비 ODA 사업)

- 아이치현 장학 프로그램은 아이치현이 해외 인재를 현 내 대학원으로 유치하고, 석사과정 수료 후 현 내 소재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고자 운영하는 광역지자체 주도 장학사업임
- 동 사업은 연구생 6개월과 석사과정 2년을 합한 2년 6개월 이내의 학업을 지원하며, 생활비, 일본 입국 항공료, 입학검정료·입학금·수업료 등을 아이치현 예산으로 지원함

- 전북형 모델 적용 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하여 유학생 선발, 장학지원, 대학원 교육, 인턴십, 지역기업 취업을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사례는 일본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ODA 장학사업이므로 JICA ODA 장기 연수와 동일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우며, 전북 적용 시에는 ODA 자원 연계 가능성과 지자체 자체 장학재원 마련 가능성, 기업 참여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

[표 3-5] 2013-2025 아이치현 장학 사업 수혜 학생 출신국가

국가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인도네시아	2	1	2	2	2		1							10
베트남	4	2	4	4	3	2	2	2		1	1	1	1	27
중국	2	2				1	1	2						8
인도	1	2	4	2	1					1			2	13
대만	1													1
방글라데시		1			2	2				1	2	1	2	11
필리핀		1												1
대한민국		1			1									2
말레이시아				2	1					1				4
몽골							1	1	1		1			4
캄보디아										1	1	1		3
파키스탄												1		1
우즈베키스탄												1		1

주: 소재지는 광역단위(도·도·부·현) 기준으로 작성.

자료: 아이치현. (n.d.). Aichi Scholarship Program Participant Numbers.

○ 사업개요

사업명	Aichi Scholarship Program	유형	기타 (비 ODA 사업)
추진주체	아이치 현 (광역 단위)	협력주체	-
사업기간	2013 - 현재	재원규모	비공개
조달방식	아이치현 예산으로 조달		
사업성격	광역지자체 주도 지역취업 연계형 장학사업		

○ 주요 사업내용

목적	해외 우수인재를 유학생으로 유치하여 아이치현 내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수료 후 아이치현 소재 기업 취업을 유도함으로써 지역산업 인재 확보에 기여
대상/규모	UN 회원국 중 일본 및 북한을 제외한 국가 / 2026년 기준 5명
기간	2년 6개월 이내 (연구생 6개월, 대학원 석사 과정 2년)
내용	• [1차년도] 모집, 전형/결과통지, 연구생으로서 현 내 대학원 입학 및 오리엔테이션 • [2차년도] 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및 인턴십 참여 • [3차년도] 현내 기업에의 취업 활동 • [4차년도] 대학원 수료 및 현내 기업 취직

나. 독일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 독일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개괄

- 독일의 ODA사업 연계 유학생 인재양성은 개발협력 부처가 장학사업과 학위과정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독일연방경제협력개발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liche Zusammenarbeit und Entwicklung, 이하 BMZ)가 개발협력 정책과 재원을 제공하고, 독일학술교류처(Deutscher Akademischer Austauschdienst, 이하 DAAD)가 장학사업과 대학원 과정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며, 독일 대학이 입학심사와 학위교육을 담당하는 분업구조를 중심으로 운영됨
 - DAAD는 개발협력 목적에 부합하는 대학원 과정을 선정하고, 해당 과정에 진학하는 협력국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함. 이와 함께 협력국 본국 또는 인접국 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현지·권역 내 장학과, 독일 대학과 협력국 대학·기업의 교육협력을 지원하는 기관협력사업도 병행함. 따라서 독일의 고등교육 ODA는 ‘독일 대학으로의 인재유치’와 ‘협력국 고등교육 역량강화’를 병행하는 이원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DAAD, 2025a)
- DAAD가 2024년 BMZ 재원으로 운영한 전체 장학사업의 지원실적은 총 2,457건이며, 이 가운데 48%는 독일에서, 52%는 장학생의 본국 또는 해당 권역에서 학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학위단계는 석사 67%, 박사 20%, 학사 14%로 대학원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함. 다만 이 수치는 개발관련 대학원과정 장학사업(Development-Related Postgraduate Courses, 이하 EPOS) 단독실적이 아니라 BMZ 재원으로 운영된 DAAD 장학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결과임(DAAD, 2025b)

[표 3-6] 독일 고등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

구분	주요 프로그램	재원 및 운영주체	주요 사업방식	독일 내 학위유치와의 관계
독일 초청 학위형	EPOS	BMZ 재원, DAAD 관리, 독일 대학 운영	협력국 실무경력자를 독일의 개발 관련 석·박사과정으로 초청	ODA 재원과 독일 내 정규 학위유치가 직접 결합
협력국·권역 내 학위형	In-Country/ In-Region	BMZ 재원, DAAD 관리, 협력국 대학 운영	협력국 또는 인접국 대학의 석·박사 장학지원	ODA 직접성은 높으나 독일 대학 유치와는 직접성 낮음
대학·산업 협력형	University-Business-Partnerships	BMZ 재원, DAAD 관리, 독일·아프리카 대학 및 기업 공동수행	노동시장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공동연구, 산학협력	협력국의 대학·기업 역량강화가 중심
외교·교육 교류형	Helmut-Schmidt-Programme	연방외무부 재원, DAAD 관리	공공정책·행정·거버넌스 석사과정 지원	독일 학위유치이나 BMZ ODA와 재원·목적이 상이
지역취업·정주 지원형	FIT·InRegioFIT	BMBF 재원, DAAD 및 대학 운영	국제학생 학업지원, 기업연계, 지역노동시장 진입	독일 내 취업·정주와 직접 연결되나 비ODA

- 독일의 ODA 연계 유학생 유치는 EPOS라는 국가 차원의 장학·대학원 과정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짐. EPOS가 공통적인 지원대상과 장학·선발 원칙을 제시하고, 실제 교육은 각 대학이 보유한 농업·에너지·중소기업·환경·보건 등 분야별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임. 이 연구는 ODA 재원과 독일 대학 정규 학위과정의 직접 결합되는 EPOS를 국가 차원의 모사업으로 하여, 그 하위의 대학별 분야특화 과정을 분석함
- 독일의 ODA 연계 학위유치는 대학원생과 실무경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EPOS는 학사학위 취득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관련 실무경력을 보유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석사 또는 예외적으로 박사학위를 지원함. 이는 초기 학부교육보다 이미 특정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 연구자, 기업인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위취득 이후 협력국 정부·대학·기업에서 성과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른 것임
- DAAD의 「Development-Related Postgraduate Courses 2026/27」은 EPOS 과정을 9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음. 석사과정은 일반적으로 12~24개월, 박사과정은 40~42개월이며, 독일의 종합대학과 응용과학대학에서 운영됨(DAAD, 2025a)

■ 일반형: 국가 학위·장학 플랫폼 DAAD EPOS

- EPOS는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실무경력자가 독일의 선정 대학에서 개발 관련 석사 또는 예외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BMZ 재원의 장학사업임
 - 지원자는 관련 학사학위와 최소 2년의 실무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개발 관련 동기, 귀국 후 사회적 책임 및 변화 창출 가능성이 주요 선발기준으로 고려됨
 - 지원자는 최대 3개의 EPOS 참여과정에 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별 과정이 입학심사와 1차 후보추천을 수행한 후 DAAD가 장학심사를 확정하는 2단계 선발구조를 취함
 - 지원기간은 과정에 따라 12~42개월이며, 대학원생에게 월 992유로, 박사과정생에게 2026년 2월부터 월 1,400유로를 지원하고 보험료와 왕복여비, 일정 요건에 따른 주거·가족수당 등을 제공함
- EPOS는 대학원 학위취득 자체를 최종성으로 설정하기보다, 졸업생이 협력국의 정부·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의사결정자와 지식전파자로 활동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지역·글로벌 개발과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또한 장학생이 보유한 협력국의 현장지식이 독일 대학의 교육·연구와 국제화에 기여하는 남-북 간 상호 지식이전도 강조함
- EPOS는 1987년 도입 이후 7,000건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으며, 장학생 중 여성 비율은 약 50%, 학위취득률은 90% 이상으로 제시됨. 25주년 당시 실시된 동문조사에서는 약 70%가 학업 종료 직후 본국 또는 본국 권역으로 돌아갔고, 약 4분의 3이 자신의 근무환경에서 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응답함(DAAD, 2014)
- EPOS는 중앙의 개발협력·장학기관이 재원과 선발을 담당하고 지역대학이 분야특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역할분담구조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한 사례임. 전북에 적용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협력국 인재발굴과 장학·선발을 담당하고, 도내 대학이 농생명·식품·에너지 등 분야별 영어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이원 설계를 검토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Development-Related Postgraduate Courses(EPOS)	유형	일반형(국가 학위장학 플랫폼)
추진주체	BMZ 및 DAAD	협력주체	DAAD 선정 독일 종합대학 및 응용과학대학
사업기간	1987 - 현재	재원규모	EPOS 단독 총사업비 비공개
조달방식	BMZ 개발협력 재원을 DAAD 장학사업으로 배분		
사업성격	협력국 실무경력자 대상 독일 대학원 석·박사 학위장학사업		

○ 주요 사업내용

목적	협력국의 전문인력과 관리자가 독일의 개발 관련 대학원 교육을 통해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귀국 후 본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제 네트워크에 기여하도록 지원		
대상/규모	DAC 대상국 등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지원자 / 1987년 이후 누적 7,000건 이상 장학지원		
학위/기간	석사(예외적 박사) / 석사 12~24개월, 박사 40~42개월		
선발	지원자가 참여대학 과정에 직접 지원 → 대학별 심사 및 장학후보 추천 → DAAD 포털 제출 및 최종 장학심사		
지원	생활비, 보험, 왕복여비, 과정별 독일어 사전교육, 일정 요건에 따른 주거·가족수당		
교육	경제, 개발협력, 공학, 도시계획, 농림, 환경, 보건, 교육·법, 미디어 등 9개 분야 개발 관련 대학원 과정		
수료 이후	본국 정부·대학·기업 등에서 전문성 활용, DAAD 동문 및 독일 대학과의 후속 네트워크		

■ 분야특화형: 호엔하임대학교 Agricultural Economics

- 호엔하임대학교 Agricultural Economics(이하 AgEcon)는 EPOS 장학과 2년제 영어 농업경제학 석사과정을 결합한 사례임. AgEcon은 농업생산기술 자체보다 농업·식품 체계의 경제성, 농업정책, 식량안보, 농촌개발, 가치사슬 및 지속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둠
- AgEcon 장학지원자는 EPOS의 개발협력 장학요건과 호엔하임대학교의 대학원 입학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POS 요건으로는 협력국 국적, 학사학위 이후 2년 이상의 관련 실무경력, 개발 관련 학업 동기 등이 요구됨

- 대학원 입학요건으로는 농업·경제학 등 관련 분야의 우수한 학사학위, 경제학·통계학 기초, 영어능력과 AgEcon 사전평가 결과 등이 요구됨
- 지원자는 DAAD 장학서류를 대학에 제출하는 동시에 호엔하임대학교의 온라인 입학신청을 완료해야 함
- 현 고용기관의 추천서에는 수료 후 본국 복귀 시 재고용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학위취득 이후 소속기관에서의 인재활용을 유도하고 있음(University of Hohenheim, 2025a)
- AgEcon은 4학기·120학점으로 운영되며 1~3학기에는 학기당 30학점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4학기에는 30학점의 석사논문을 수행함. 주요 선택과목에는 정책분석 모델링, 식량·영양안보,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거버넌스, 국제 농식품무역, 농촌개발사업 모니터링·평가, 농업·자연자원 정책과정, 빈곤과 개발전략 등이 포함됨(University of Hohenheim, 2025b)
- 교육과정은 농산업, 농업·농촌개발, 연구·학계의 진로별 특화 프로필을 제공하며, 석사논문을 협력국의 실제 농업개발 문제와 연계할 수 있음. 대학 공식자료에는 케냐 서부 농업 탄소사업의 지도서비스 거버넌스, 미얀마 양식업 조직의 사회경제 분석, 잠비아 소농 기계화사업의 영향평가 등이 실제 학위논문 사례로 제시됨(그림 3-6 참조). 또한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CGIAR) 소속 연구기관에서 6개월 인턴십과 논문을 결합하거나, 협력국 출신 학생이 본국에서 인턴십·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경로도 운영됨(University of Hohenheim, 2025b)

MASTER'S THESIS

Can include collection of primary data abroad



"Unraveling the Governance Challenges in the Provision of Extension Services for Agricultural Carbon Projects: Evidence from Western **Kenya**"



"Socio-Economic Analysis of Aquaculture Groups in **Myanmar**"



"Impact Assessment of John Deere's approach to promote smallholder mechanization in **Zambia**"

자료: University of Hohenheim. (2025b), M.Sc. Agricultural Economics: Master Info Days 2025, p.8.

[그림 3-6] 호엔하임대학교 AgEcon의 협력국 현장연구 기반 석사논문 사례

- AgEcon은 전복형 모델에서 농생명 ODA와 대학원 교육을 연결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함. 특히 현지 ODA 사업 수행과정에서 우수 실무자를 발굴하고, 전복 유학 중에는 본국의 농업개발 문제를 연구하며, 귀국 후에는 후속 ODA와 전복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로 활동하도록 하는 순환구조를 설계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M.Sc. Agricultural Economics(AgEcon)	유형	분야특화형(농생명)
추진주체	BMZ 및 DAAD, 호엔하임대학교	협력주체	협력국 고용기관, 국제농업연구기관 (CGIAR 등)
사업기간	운영 중(2027/28 EPOS 모집대상)	재원규모	과정별 EPOS 장학 배정액 비공개
조달방식	BMZ-DAAD EPOS 장학 및 대학 교육자원		
사업성격	협력국 실무자 대상 농업경제학 석사 학위과정		

○ 주요 사업내용

목적	농업·식품체계의 경제·정책·환경·사회적 과제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개발을 추진할 전문인력 양성
대상/규모	협력국 출신으로 관련 학사학위, 2년 이상 실무경력, 경제학·통계학 기초 및 영어능력을 갖춘 지원자 / 장학생은 제한적으로 선발
학위/기간	이학석사(M.Sc.) / 2년, 4학기, 120학점
교육	농업정책, 농업경제, 식량안보, 농식품 거버넌스, 국제무역, 농촌개발사업 평가 및 연구방법
현장·연구	협력국 현장조사 기반 석사논문, 국제농업연구기관 인턴십 및 논문 연계, 출신국 현장연구 지원
지원	등록금 면제, 생활비·보험·왕복여비 및 연구비, 2개월 독일어 사전교육 등

■ 분야특화형: 라이프치히대학교 SEPT MBA

- 라이프치히대학교 Small Enterprise Promotion and Training(이하 SEPT) MBA는 협력국의 중소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발전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EPOS 과정임
- SEPT는 일반적인 대기업 경영 중심 MBA와 달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금융·마케팅, 기업 지원정책과 지역경제발전을 중심으로 교육함

- SEPT는 1992년부터 중소기업의 관리·육성과 창업 분야에서 교육·훈련 및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현행 MBA는 4학기·22개월 과정으로 운영됨(DAAD, 2025a)

- 1학기에는 개발경제, 창업경영, 비즈니스 모델, 중소기업 발전전략과 지역경제개발을 학습하고 독일 기업 및 개발협력기관을 방문함. 2학기에는 혁신, 마케팅, 금융, 리더십, 연구방법과 프로젝트 관리를 학습하고 최소 6주의 인턴십을 수행함. 3학기에는 독일 외 지역에서도 수행 가능한 현장연구를 실시하며, 4학기에는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석사논문을 작성함(그림 3-7 참조)

First Semester Compulsory	Module 101 Foundations in Economics and Development - Development Economics - Reading course on Economics - Excursion to German companies and institutions of development cooperation Module 102 Entrepreneurship Management - Business Model Development - Business Plan - Business Simulation Game	- Entrepreneurship Management - Presentation Techniques Module 103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Innovation and Technology Promotion - Value Chain Analysis - Internationalization of SMEs - Local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 Social Capital
Second Semester 2 of 5	Module 201 Innovation Management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Strategic Innovation Management - Quality Management - Tools for Innovation Management - Innovation Systems Module 202 Marketing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Marketing in SMEs - International Marketing - Market Research	Module 203 SME Finance - Introduction to Financial Systems - Financial Instruments for SMEs - Financial Planning Module 204 Competence Development in SMEs - Leadership - Knowledge Management - Competence Development - Organizational Learning Module 205 Internship - Minimum of 6 weeks
Compulsory	Module 205 Research Methodology and Project Management -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Design - Data Analysis and Presentation - Project Management	
Third Semester Compulsory	Module 301 Research Project Field research	
Fourth Semester Compulsory	Module 401 SEPT Colloquium - Business Communication - SEPT Colloquium - Advanced Data Analysis - Master Thesis	

자료: Leipzig University. (2021), MBA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Development, p.10.

[그림 3-7] 라이프치히대학교 SEPT MBA 학기별 교육과정 구성

- SEPT의 교육구조는 독일에서 습득한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지식을 참가자의 본국 산업·기업 문제와 연결한다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독일 지역기업의 인력확보보다 협력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창업지원 역량강화가 우선되지만, 기업견학-인턴십-본국 현장연구-학위논문의 연계는 전북기업과 ODA 유학생을 연결하는 운영방식으로 참고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MBA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Development(SEPT)	유형	분야특화형(산업·창업)
추진주체	BMZ 및 DAAD, 라이프치히대학교	협력주체	독일·협력국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개발협력기관
사업기간	1992 - 현재	자원규모	과정별 EPOS 장학 배정액 비공개
조달방식	BMZ-DAAD EPOS 장학 및 대학·기업 협력자원		
사업성격	협력국의 중소기업·창업 전문인력 대상 MB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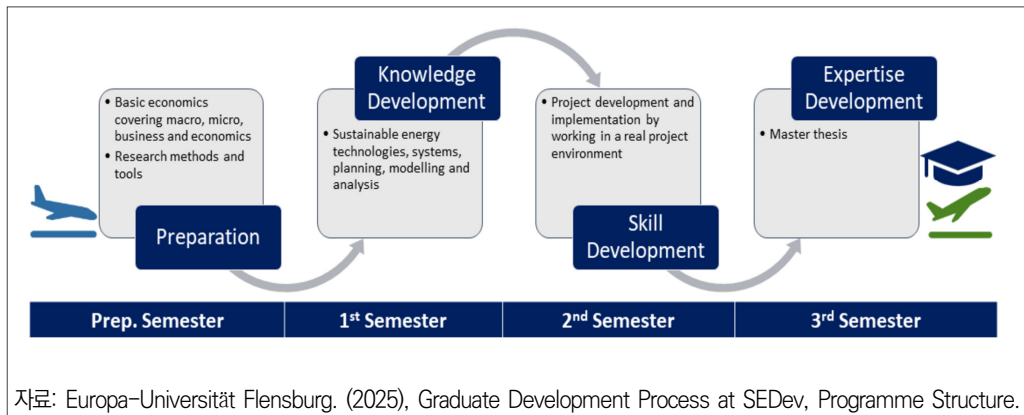
○ 주요 사업내용

목적	협력국의 중소기업 경쟁력과 창업생태계 및 기업지원정책을 강화할 전문인력 양성
대상/규모	경제·사회과학·산업공학 등 관련 학위와 실무경력을 보유한 국제학생
학위/기간	경영학석사(MBA) / 22개월, 4학기
교육	개발경제, 창업경영, 중소기업 혁신·마케팅·금융, 지역경제발전, 연구·프로젝트 관리
산업연계	독일 기업·개발협력기관 견학, 최소 6주 인턴십
현장·연구	독일 외 지역에서도 수행 가능한 현장연구와 석사논문

■ 지역·분야특화형: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ustainable Energy and Development

-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ustainable Energy and Development(이하 SEDev)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접근과 에너지전환을 국제개발협력과 결합한 2년제 공학석사과정임
 - 지속가능에너지 기술뿐 아니라 에너지시스템 계획·모델링, 경제성 및 시장분석, 프로젝트 관리, 정책, 에너지 정의와 지역사회 참여를 함께 교육함
 - 독일 북부지역이 축적해 온 에너지전환 연구환경과 플렌스부르크대학교의 에너지 연구역량을 교육기반으로 활용함
 - 동시에 학생들의 실제 프로젝트 현장은 독일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등 협력국의 기관과 지역사회를 포함함(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6a)
- SEDev의 교육과정은 준비단계, 지식형성, 실무역량 형성, 전문연구의 단계로 구성됨 ([그림 3-8] 참조). 준비학기에는 경제학과 연구방법을 학습하고, 이후 지속가능에너지

기술과 에너지시스템 계획·모델링·분석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시장·프로젝트 개발, 소프트스킬 및 실제 지역사회와의 프로젝트를 수행함. 최종단계에서는 학생이 선택한 실제 에너지전환 문제를 석사논문으로 연구함(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5)



[그림 3-8]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EDev 교육과정 단계 구성

- SEDev는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을 중심으로 산업체, 컨설팅기관, 전력·공공서비스기관, 기술기업, 공공기관, NGO 및 연구기관과 협력함. 외부기관은 에너지시스템 설계, 기술·경제성 분석, 에너지 모델링, GIS 분석, 정책평가, 사업 타당성 등 실제 문제를 제안할 수 있고, 학생은 이를 사례연구, 학기 프로젝트, 인턴십 또는 학위논문으로 수행함(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6a).
- 학위논문을 기관 인턴십과 결합할 경우 학생이 기관의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연구결과를 의사결정에 제공하고, 기관은 학생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음. 대학은 이러한 방식이 지식이전과 인재양성·채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6a)
- 실제 운영사례로 2026년 SEDev 석사과정 학생 20명은 아일랜드 메이요주 에리스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재생에너지 공급, 비용과 향후 지역에너지 사업을 조사하였음. 학생들은 워크숍과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에너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실제 과제가 학생의 교육·분석활동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임(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6b)

- SEDev 사례의 핵심은 지역기업 견학이나 단기 현장방문이 아니라, 지역과 기관이 보유한 실제 문제를 교과목, 프로젝트, 인턴십, 학위논문으로 전환한다는 데 있음. 전북에서도 유학생을 단순 수강생으로 두기보다 ODA 수행기관과 지역기업의 실제 과제를 해결하는 연구·실무인력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MEng. Sustainable Energy and Development(SEDev)	유형	지역분야특화형(그린에너지)
추진주체	BMZ 및 DAAD, 플렌스부르크대학교	협력주체	에너지기업 공공기관 NGO, 연구기관 국내외 지역사회
사업기간	2025 - 현재(전신 프로그램은 1980년대부터 운영)	재원규모	과장별 EPOS 장학배정액 비공개
조달방식	BMZ-DAAD EPOS 장학 및 대학협력기관 지원		
사업성격	협력국 에너지 전문인력 대상 실무 프로젝트 중심 공학석사		

○ 주요 사업내용

목적	협력국 에너지 접근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기함관할 전문인력 양성
대상/규모	공학에너지 관련 학위와 실무경력을 보유한 국제학생 및 EPOS 장학생
학위/기간	공학석사(MEng) / 24개월
교육	재생에너지 기술 시스템 계측 모델링 시장 재무분석 프로젝트 관리 정책 에너지 정의 및 지역사회 참여
현장·연구	국제 파트너 기관 사회와의 현장 프로젝트, 실제 기관체 기반 사례연구·학기 프로젝트
산업연계	기업 공공기관 NGO·연구기관 인턴십 기관체제를 활용한 석사논문 및 결과 환류

다. 호주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 호주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개괄

- 호주의 ODA 연계 고등교육 인재양성은 호주 외교통상부(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이하 DFAT)가 운영하는 Australia Awards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Australia Awards는 협력국 인재에게 호주에서 학위교육, 연구 및 전문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성공을 협력국의 장기적 개발과 호주-협력국 간 관계로 환류하는 호주 정부의 대표적인 인재양성 개발협력 체계임
 - Australia Awards에는 DFAT가 운영하는 장기 학위장학, 단기 기관협력과정 및 맞춤형 단기 교육이 포함되며, 호주국제농업연구센터(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이하 ACIAR)가 운영하는 농업 연구인재 장학도 이 체계에 속함
 - 따라서 호주의 ODA 연계 인재양성은 단일 장학프로그램이라기보다 국가 장기학위 장학, 기존 ODA 연구사업 참여자 대상 연구학위 장학, 특정 협력권역·분야 장학 및 기관 간 단기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함께 구성된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이 기준에 따라 호주의 ODA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인재양성사업은 다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표 3-7] 참조)
 - (국가 장기학위 장학형) 협력국의 개발수요와 국가·권역별 우선분야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호주의 대학 및 직업교육기관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가 대표적임
 - (ODA 프로젝트 연계 연구학위형) 호주가 이미 수행 중인 ODA 연구사업에 참여한 협력국 연구자를 호주 대학의 연구석사 또는 박사과정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ACIAR의 John Allwright Fellowship이 대표적임
 - (협력국 권역·분야특화 학위형) 특정 협력국 권역과 공통 개발과제를 장학대상 및 전공분야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2026년부터 운영되는 Mekong-Australia Partnership 장학이 이에 해당함
 - (기관파트너십·단기역량강화형) 호주의 대학·연구기관·기업·산업단체 등과 협력국 기관이 공동으로 단기연수, 연구, 기관배치와 현지 후속활동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Australia Awards Fellowships가 대표적이거나 정규 학위과정은 아님

- (맞춤형 단기교육형) 특정 기술 또는 직무역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통상 3개월 미만의 집약적 교육으로, 호주 또는 협력국 현지에서 운영되는 Australia Awards Short Courses가 대표적임. 학위유학생 유치와의 직접성은 낮음

[표 3-7] 호주 고등교육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

구분	대표 프로그램	자원 및 운영주체	주요 사업방식	호주 내 학위유치와의 직접성
국가 장학유형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DFAT 자원, 국가·권역별 Program Area 관리, 호주 대학·TAFE 운영	협력국의 개발수요에 따라 인재를 선발하여 학부·대학원·일부 직업교육 과정에서 교육	ODA 자원과 호주 내 정규 학위유치가 직접 결합
ODA 프로젝트 연계 연구학위형	John Allwright Fellowship	DFAT·ACIAR 공동자원, ACIAR 관리, 호주 대학 운영	최근 ACIAR 공동연구사업 참여자를 연구석사·박사과정으로 연계	ODA 사업 참여자를 학위유치로 직접 연결
협력국 권역·분야특화형	Mekong-Australia Partnership	DFAT 자원, 메콩 5개국 Program Area 관리, 호주 대학 운영	메콩 5개국의 물·농업·기후·경제회복력 등 공동과제를 교과·연구석사 교육과 연계	권역·분야를 한정된 학위유치가 직접 결합
기관파트너십·단기역량 강화형	Australia Awards Fellowships	DFAT 자원, 호주 주관 기관과 협력국 상대기관 공동수행	중견·고위 실무자 대상 단기연수·연구·기관배치 및 현지 후속활동 운영	비학위 사업으로 학위유치와 직접 연결되지 않음
맞춤형 단기교육형	Australia Awards Short Courses	DFAT 자원, 해외공관 관리, 호주 교육기관 운영	특정 직무·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통상 3개월 미만 교육	비학위 사업으로 학위유치와의 직접성 낮음

- 호주 사례는 DFAT의 국가·권역별 장학과 ACIAR의 분야별 ODA 사업이 Australia Awards라는 공통 체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보임.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가 협력국 개발수요를 반영한 국가 차원의 장학·선발체계를 제공하고, John Allwright Fellowship이 기존 ACIAR 공동연구사업의 참여자를 연구학위과정으로 연결하며, Mekong-Australia Partnership이 특정 협력권역과 공동 개발과제를 석사장학과 결합하고, Australia Awards Fellowships가 기관 간 관계를 바탕으로 단기 전문교육과 현지 후속활동을 지원함

■ 일반형: 국가 장기학위 장학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이하 AAS)는 DFAT가 운영하는 장기 학위장학사업으로, 호주의 양자·지역협력 목표 및 협력국의 개발수요에 따라 협력국 인재가 호주 대학과 직업교육기관에서 학부 또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원함
 - 호주 교육기관의 학위와 연구기회를 통해 장학생의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고, 이를 귀국 후 본국의 변화와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등록금, 왕복항공료, 초기 정착비, 생활비, 건강보험, 사전 영어교육, 학업보충 및 필요한 현장조사비 등을 지원함
 - 실제 지원 학위단계와 우선분야는 국가·권역별 Country or Region Profile에 따라 다르게 설정됨(DFAT, 2026)
- AAS의 프로그램 설계는 DFAT가 협력국 정부와 개발목표, 인적역량의 격차 및 필요한 분야를 협의하는 단계에서 시작됨
 - 국가·권역별 Program Area는 협력국의 개발목표와 부합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장학사업을 홍보함
 - 지원서 접수와 자격검토, 서류심사 및 면접은 국가·권역별 Program Area가 관리함
 - 선발자는 학업성공 가능성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개발전략 대상 분야에서 리더십과 개발 기여 가능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됨
 - 선발 이후 DFAT가 호주 교육기관에 배치를 요청하고, 교육기관은 해당 지원자의 학업요건과 과정 적합성을 검토함(DFAT, 2026)
- 지원자는 장학신청 단계에서 재통합계획(Reintegration Plan)을 제출해야 함
 - 재통합계획은 호주에서 습득할 지식과 기술을 귀국 후 어떤 업무에 적용할 것인지, 예상되는 제약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문서임
 - 이 계획은 장학생 선발, 귀국 준비 및 장학 종료 이후의 성과관리를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됨
 - 따라서 호주의 장학사업은 장학생의 선발 시점부터 학위취득 이후의 적용경로를 사전에 검토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DFAT, 2026)
- 학업을 마친 장학생은 장학 종료 후 호주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며, 최소 2년

간 호주 밖에 체류해야 함. 이는 장학성과가 본국의 개발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Australia Awards의 기본 조건으로 운영됨. 귀국 이후에는 DFAT 해외공관과 국가·권역별 Program Area가 재통합을 지원하고 동문활동을 운영하며, 2026년 정책지침 기준 DFAT가 지원하는 동문 네트워크는 20개 이상의 국가와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음(DFAT, 2026)

- AAS의 장기성과는 동문 추적조사를 통해 관리됨. 「Australia Awards Alumni Longitudinal Global Tracer Survey 2023」은 2013~2016년에 장학과정을 마친 동문 가운데 2019년 조사에도 참여했던 1,38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률은 61.5%였음(Radloff et al., 2024)
 - 응답자의 95%가 호주 장학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현재 업무에서 활용한다고 응답하였고, 89%가 직장 또는 지역사회에서 공식·비공식 리더십 역할을 수행한다고 응답함
 - 2023년 기준 93.3%는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타인에게 전수하였고(2019년 97.6%), 95.1%는 업무에 개선된 방식이나 혁신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남(2019년 95.1%)
 - 35.6%는 최근 5년간 호주의 기관 또는 조직과 전문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였으며, 2019년과 2023년 조사결과를 합치면 약 58%가 장학 종료 이후 10년간 호주기관과 전문적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남(Radloff et al., 2024)
 - 다만 추적조사 보고서가 인용한 인도네시아 여성 동문 연구에서는 수직적인 리더십 구조, 엄격한 승진제도, 가족책임 및 성별 편견이 경력발전의 제약으로 나타남. 이는 장학생 개인의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귀국 후 소속기관의 활용계획과 조직 차원의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Radloff et al., 2024)
- AAS 사례는 장학금 지급과 입학을 사업의 종결점으로 보지 않고, 지원단계부터 수료 후 활동계획을 요구하며 동문성과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전북형 사업에서도 유학생 수와 학위취득률뿐 아니라 지역취업, 귀국 후 후속 ODA 참여, 공동연구, 전북기업과의 거래·협력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AAS)	유형	일반형(국가 장기학위 장학)
추진주체	DFAT	협력주체	협력국 정부, 국가·권역별 Program Area, 호주 대학 및 TAFE
사업기간	운영 중(현행 Australia Awards 체계)	재원규모	단독 총액 비공개(국가·권역별 개발협력 예산에서 배정)
조달방식	호주 정부 개발협력 재원		
사업성격	협력국 개발수요에 따른 학부·대학원·직업교육 장기장학사업		

○ 주요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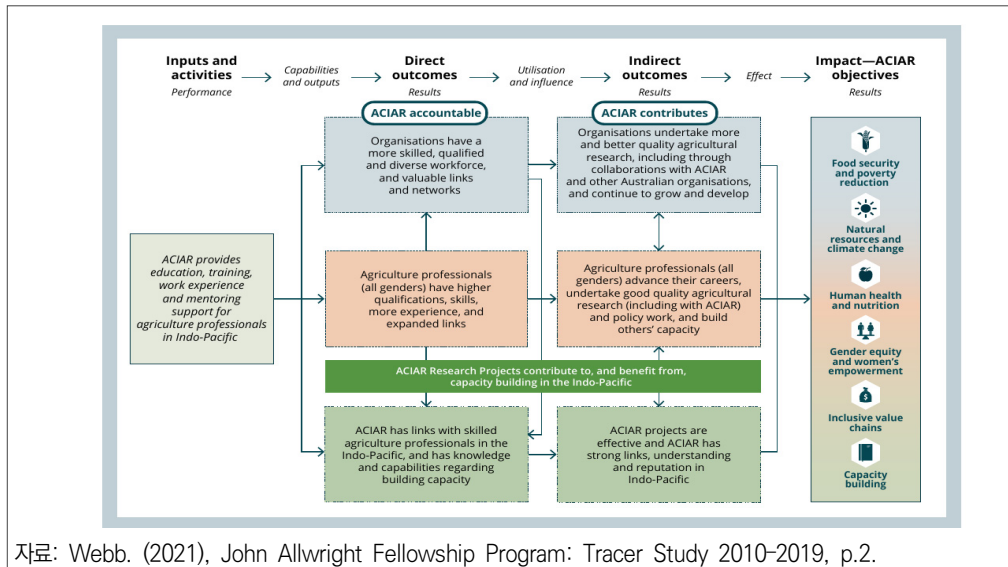
목적	협력국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인재가 호주에서 학위와 전문역량을 취득하고, 귀국 후 본국 발전과 호주-협력국 관계에 기여하도록 지원		
대상/규모	참여 협력국 인재 / 국가·권역별 연간 선발규모와 학위단계 상이		
학위/기간	학부, 교과·연구석사, 박사 및 일부 직업교육 / 교육기관이 정한 최소 수학기한		
선발	국가·권역별 우선분야 설정 → 현지 공모 → 자격·서류심사 → 면접 → DFAT 선발 → 호주 교육기관 배치		
지원	학비, 왕복항공료, 초기정착비, 생활비, 건강보험, 사전 영어교육, 학업보충 및 필요한 현장조사		
성과계획	신청 단계에서 귀국 후 지식·기술 활용방안과 제약·대응방안을 포함한 재통합계획 제출		
수료 이후	장학 종료 후 귀국 및 최소 2년간 호주 밖 체류, 현지 동문 네트워크와 전문성 개발활동 참여, 장기 추적조사		

■ 분야특화형: ODA 프로젝트 연계 연구학위 John Allwright Fellowship

- John Allwright Fellowship(이하 JAF)은 현재 또는 최근 ACIAR 국제공동연구사업에 참여한 협력국의 농업과학자와 농업경제학자가 호주 대학에서 연구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경쟁형 장학사업임
 - JAF는 일반적인 공개 장학을 통해 새로운 유학생을 모집하기보다, 기존 ACIAR ODA 연구사업을 통해 역량과 협력경험이 확인된 인재를 학위과정으로 연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 사업의 주된 목적은 장학생 개인의 학위취득뿐 아니라 협력국의 농업연구 역량과 연구기관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음

- JAF는 Australia Awards 체계를 통해 운영되며, ACIAR는 장학생에게 별도의 생활·연구 적응지원과 네트워킹 및 동문활동을 제공함
- 지원자는 신청 당시 최근 24개월 이내에 ACIAR 공동연구사업 또는 소규모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과학자 또는 경제학자여야 함
 - 지원자의 소속기관, 호주 측 ACIAR 프로젝트 책임자, 협력국 측 프로젝트 책임자 및 호주 대학 지도교수의 추천이 요구됨
 - 지원자는 장기 또는 정규고용관계를 보유해야 하며, 연구계획은 성평등·사회적 포용, 기후변화 및 본국의 개발우선순위에 대한 기여를 포함해야 함
 - 과정은 연구석사와 박사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과석사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ACIAR의 역량강화 변화이론은 교육과 장학의 성과를 개인의 학위취득에 한정하지 않고 개인·조직·개발의 세 수준으로 확장하여 설정함(그림 3-9) 참조
 - (개인 수준) 농업전문가의 학위, 기술, 경험과 네트워크 향상
 - (조직 수준) 소속 연구기관의 전문인력과 연구역량 및 호주기관과의 연계 강화
 - (개발 수준) 식량안보, 빈곤감소, 기후변화 대응, 영양, 성평등 및 포용적 가치사슬에 대한 기여
 - 또한 ACIAR 공동연구사업이 역량강화의 대상이자 교육성과를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장학생과 동문의 전문성이 다시 ACIAR 연구사업의 효과성과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순환구조를 제시함(ACIAR, 2021)



[그림 3-9] ACIAR 농업 인재양성사업의 역량강화 변화이론

- JAF의 운영성과는 장기 추적조사를 통해 확인됨. ACIAR의 2010~2019년 추적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 268명의 농업전문가가 호주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자국의 농업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였음. 추적조사에는 24개국 동문 201명이 참여하여 7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10개국 동문을 대상으로 13개의 질적 사례 연구도 실시됨(Webb, 2021)
- 동문의 85%가 농업연구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0%가 학위취득이 승진에 기여했다고 응답함. 76%가 호주 연구기관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61%가 ACIAR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나타남(ACIAR, 2023)
- 다만 ACIAR의 장기 성과요약과 추적조사 자료는 집계 시점과 포함 대상이 서로 달라 졸업생 수가 일부 다르게 제시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공식 추적조사의 268명을 기본 실적으로 사용함(Webb, 2021; ACIAR, 2023)
- 실제 동문사례로 모잠비크의 농업연구자 Nascimento Nhantumbo는 ACIAR의 옥수수-콩과작물 지속가능 집약화 사업에 농학자로 참여한 뒤 호주 측 프로젝트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퀸즐랜드대학교 박사과정에 진학함. 2015년 귀국한 뒤 모잠비크 고등교육기관에서 농업대학 강사와 농업시스템관리 석사과정 책임자로 활동하고 교육과정 개

발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ACIAR-IDRC 공동사업에도 참여함. 이 사례는 'ODA 공동 연구 참여 → 학위유학 → 본국 기관 복귀 → 교육과정 및 후속 연구사업 → 호주와의 지속적 협력'이라는 JAF의 인재 환류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줌(ACIAR, 2023)

- JAF는 ODA 사업과 유학생 유치를 사후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ODA 사업의 수행과정 자체를 우수인재 발굴과 연구주제 형성의 경로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음. 전북의 농생명 ODA 수행과정에서 검증된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해당 ODA 현장을 학위연구에 활용하며, 귀국 후 전북의 후속 ODA와 기업 해외진출을 연결하는 '사업-유학-연구-후속협력'의 순환체계를 설계할 수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John Allwright Fellowship(JAF)	유형	분야특화형(ODA 프로젝트 연계 농업 연구학위)
추진주체	DFAT 및 ACIAR	협력주체	호주 대학, ACIAR 프로젝트 수행기관, 협력국 연구기관
사업기간	1986 - 현재(1994년 John Allwright Fellowship으로 명칭 변경)	재원규모	JAF 단독 연간 총액 비공개
조달방식	DFAT 및 ACIAR 공동재원, Australia Awards 체계를 통한 장학운영		
사업성격	ACIAR 공동연구 참여자 대상 연구석사·박사 장학		

○ 주요 사업내용

목적	협력국 농업연구자의 학위·연구역량과 소속기관의 연구역량 및 호주-협력국 기관 간 관계 강화
대상/규모	최근 24개월 이내 ACIAR 연구사업에 참여한 협력국 과학자·농업경제학자 / 2010~2019년 268명 학위취득
학위	호주 등록 교육기관의 연구석사 또는 박사(교과석사 제외)
추천·선발	소속기관, 호주 및 협력국 프로젝트 책임자, 호주 대학 지도교수의 추천과 연구계획 심사
연구주제	기존 ACIAR 사업, 본국 개발우선순위, 기후변화 및 성평등·사회적 포용과 연계
지원	Australia Awards와 동일한 장학혜택, JAF Support Facility의 생활·네트워킹 지원, ACIAR 동문활동
수료 이후	본국 소속기관 복귀, 후속 ACIAR 연구·정책·교육·기술확산 및 기관 간 협력

■ 분야특화형: Australia Awards Mekong-Australia Partnership

- Australia Awards Mekong-Australia Partnership(이하 MAP) 장학은 메콩권역의 공동 개발과제에 대응할 인재를 호주 대학의 석사과정으로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신규 장학트랙임([그림 3-10] 참조)



자료: DFAT. (2024), Mekong-Australia Partnership, pp.1-2.

[그림 3-10] Mekong-Australia Partnership의 협력분야 및 주요 사업내용

- 호주 정부는 2024년 3월 ASEAN-호주 특별정상회의에서 메콩권역의 회복력과 번영을 지원하기 위한 5년간의 추가 협력을 발표함
- 2026년부터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및 미얀마 국민을 대상으로 호주 대학의 교과 석사 또는 연구석사를 지원함
- 장학생은 일반 Australia Awards의 장학혜택 외에 메콩권역 장학생 간 공동학습·네트워킹 과정인 Mekong-Leaders Network에 참여함
- MAP의 우선분야는 메콩권역의 공동·초국경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지원자는 전문성과 학업역량뿐 아니라 선택한 전공의 우선분야 적합성 및 메콩권역 공동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가능성을 평가받음([표 3-8] 참조)

[표 3-8] MAP의 우선분야 및 세부 교육분야

MAP 우선분야	세부 교육분야
물 안보	통합수자원관리, 유역관리, 수질·복원, 수산·양식 및 수생생태계
기후행동	기후적응·회복력, 재생에너지, 에너지전환,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농업·식량	지속가능한 농업, 식량안정, 자연자원관리
경제회복력·권역통합	농업경제, 농산업, 식품과학기술, 물류·공급망
산업·혁신	디지털전환, 기업가정신, 산업혁신정책, 초국경 범죄대응
사회적 포용	성평등, 장애, 사회적 포용

- MAP 사례는 전북이 모든 ODA 수원국을 동일하게 대상으로 하기보다, 기존 ODA 관계와 유학생 유입 가능성 및 전북 전략산업과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군을 설정하고 해당 권역에 특화된 장학트랙을 운영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사업개요

사업명	Australia Awards Mekong-Australia Partnership(MAP)	유형	분야특화형(협력국 권역 특화)
추진주체	DFAT	협력주체	메콩 5개국 Program Area, 호주 대학
사업기간	2026 - 현재(2024년 협력 발표)	자원규모	MAP 장학 단독 규모 비공개
조달방식	호주 정부 개발협력 자원		
사업성격	메콩권역 공동개발과제와 연계한 교과·연구석사 장학		

- 주요 사업내용

목적	메콩권역의 공동·초국경 문제를 해결할 차세대 전문인력과 리더의 양성
대상/규모	메콩 5개국(태국·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미얀마) 국민 / 2026년 개시로 선발규모 미확정
학위/기간	호주 대학의 교과석사 또는 연구석사
분야	물 안보, 기후행동, 경제회복력, 농업·식량, 에너지, 초국경 문제 및 사회적 포용
선발	전문성·인성·학업역량, 우선분야 적합성, 메콩 공동과제 기여 가능성 평가
지원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와 동일한 기본 장학혜택
네트워크	메콩 장학생 대상 Mekong-Leaders Network 운영

■ 기타: Australia Awards Fellowships(비학위 기관파트너십)

- Australia Awards Fellowships(이하 AAF)는 호주의 기관과 ODA 적격 협력국 기관이 파트너십을 구성하여 중견·고위 실무자에게 단기 교육, 연구, 전문기관 배치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경쟁형 보조사업임
 - 호주 측 신청기관에는 대학·연구기관·직업교육기관뿐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비영리기관, 상공회의소, 전문협회 및 산업단체가 포함될 수 있음
 - 개인이나 협력국 기관이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호주 주관기관이 협력국 상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신청해야 함
 - 참가자는 협력국의 중견·고위 공무원과 전문인력으로, 귀국 후 단기·중기적으로 주요 개발과제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함(DFAT, 2025b)
- AAF는 호주 내 활동으로 시작하여 협력국 현지활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사업기간은 2~52주이며, 1인당 최대 34,500호주달러까지 지원됨
 - 호주 주관기관은 현금 또는 현물의 공동부담을 제공하여 지속적인 기관협력 의지를 입증해야 함
 - 연수·연구·전문기관 배치·네트워킹을 조합하여 구성할 수 있음
 - 다만 정규 학위취득으로 연결될 수 없으며, 개인의 학위교육은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를 통해 지원해야 함(DFAT, 2025b)
- 공식 사업주기에는 신청과 선정뿐 아니라 협력국 현지활동, 사업종료 이후 성과보고, 기관 간 관계유지 및 동문 네트워크까지 포함됨. 이는 단기연수의 성과를 호주 체류 중 만족도에 한정하지 않고 현지 업무적용과 기관 간 관계로 관리하는 구조임(DFAT, 2025b)
- 실제 운영사례로 Australia Awards Fellowships Round 20에서는 애들레이드대학교 Goyder Institute for Water Research와 베트남 수자원과학원 산하 Institute for Water Resources Economics and Management 간의 관계·수자원관리 역량강화사업이 선정됨(DFAT, 2025a)
 - 베트남의 수자원 관리자와 대학·연구기관 관계자는 5주 동안 기후스마트 관계, 통합수자원관

리, 기후회복력, 물 가격 및 제도개혁, 가뭄·위생 대응전략, 녹색성장과 물 재이용, 성평등·장애·사회적 포용, 호주 원주민의 물관리 관점 등을 중심으로 교육받음

- 해당 프로그램은 호주와 베트남 기관 간 지식교환 및 장기적 관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해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둠
- AAF 사례는 전북에서 단기연수와 학위유학생 유치를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기보다, ‘ODA 기관관계 구축 → 단기연수 → 우수인재 발굴 → 대학원 유치 → 후속 ODA’로 연계할 가능성을 보여줌. 다만 이러한 연계는 전북이 별도의 장학 및 대학입학 절차를 설계해야만 실현될 수 있음

○ 사업개요

사업명	Australia Awards Fellowships(AAF)	유형	기타 (비학위 기관파트너십·단기역량강화형)
추진주체	DFAT	협력주체	호주 주관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산업단체 등)과 ODA 적격국 상대기관
사업기간	운영 중(개별 사업 2~52주)	재원규모	1인당 최대 34,500호주달러, 호주 주관기관 공동부담
조달방식	DFAT 경쟁형 보조금 + 주관기관 현금·현물 부담		
사업성격	비학위 단기연수·연구·기관배치·네트워크 사업		

○ 주요 사업내용

목적	협력국 중견·고위 실무자의 전문역량과 호주-협력국 기관 간 파트너십 강화
대상/규모	ODA 적격국의 중견·고위 공무원·연구자·전문인력
신청	호주 대학·연구기관·기업·정부기관·산업단체 등이 협력국 상대기관과 공동신청(개인 신청 불가)
지원	1인당 최대 34,500호주달러, 호주 주관기관의 현금·현물 공동부담
활동	단기교육, 연구, 전문기관 배치, 현장방문, 네트워킹 및 공동과제
현지 환류	호주 활동 이후 협력국 현지에서 지식 적용, 전수, 멘토링 및 기관협력 활동

3. 종합 및 시사점

■ 국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종합

- ODA사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 사업은 주체와 인재 유치 방식 등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초청연수 기반형, ②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③ 국제기구 연계형, ④ 지자체 주도형임
- 초청연수 기반형은 중앙부처와 KOICA 등 공여기관이 개발도상국 인재를 국내 대학이나 전문기관으로 초청해 학위·비학위 교육을 제공하는 유형임. 공여기관이 사업기획, 재원, 대상국과 연수생 선발을 주도하고 대학이 수원국 수요에 맞는 교육과 현장활동을 운영함. 대표사업은 KOICA 석사학위연수(SP), 글로벌연수(CIAT),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임
-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은 국내 대학이 수원국 대학의 학과·교육과정 개편과 교수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교환학생, 공동교육과정, 복수학위 및 대학원 진학으로 연결하는 유형임. 대학이 장기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인재 유입경로를 직접 설계한다는 점이 특징임
- 국제기구 연계형은 FAO, UNESCO 등과 협력해 국제교육기관이나 거점대학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 인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유형임. 정부·지자체·대학·국제기구가 교육과정 개발과 학생 선발을 공동 추진하며, 국제기구의 공신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음
- 지자체 주도형은 지자체가 현지 인재 발굴부터 대학 교육, 기업 현장실습·취업, 비자 및 정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하는 유형임

[표 3-9] 국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유형별 주요내용

구분	(유형 1) 초청연수 기반형	(유형 2)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유형 3) 국제기구 연계형	(유형 4) 지자체 주도형
특징	공여기관이 개발도상국 인재를 선발·초청하여 국내 대학이나 전문기관에서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 연수를 제공하는 유형임	국내 대학이 수원국 대학의 학과 신설, 교육과정 개편, 교수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이를 교환학생·공동교육과정·복수학위·대학원 진학으로 연결하는 유형임	국제기구의 공신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제적 교육기관이나 거점대학을 조성하고, 다수의 개발도상국 인재를 장기적으로 유치하는 유형임	지자체가 인재 발굴부터 지역대학 교육, 기업 현장실습·취업, 비자 전환 및 생활·정주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조정하는 유형임
주체	중앙부처, KOICA 등 공여기관, 국내 대학·전문교육기관	국내 대학, 수원국 대학, KOICA 등 ODA 지원기관	FAO·UNESCO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지자체, 국내 대학	지자체·자치단체, 지역대학, 기업, ODA 수행기관, 출입국·정주지원기관
대표 사례	KOICA 석사학위연수사업(SP), 글로벌연수사업(CIAT),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 KOICA 대학협력형 ODA사업, 대학 간 공동교육·복수학위과정	FAO 연계 세계농업대학, UNESCO 등 국제기구 연계 교육기관·거점대학	지자체 ODA·장학사업과 지역대학·기업·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한 통합형 유학생 유치모델

■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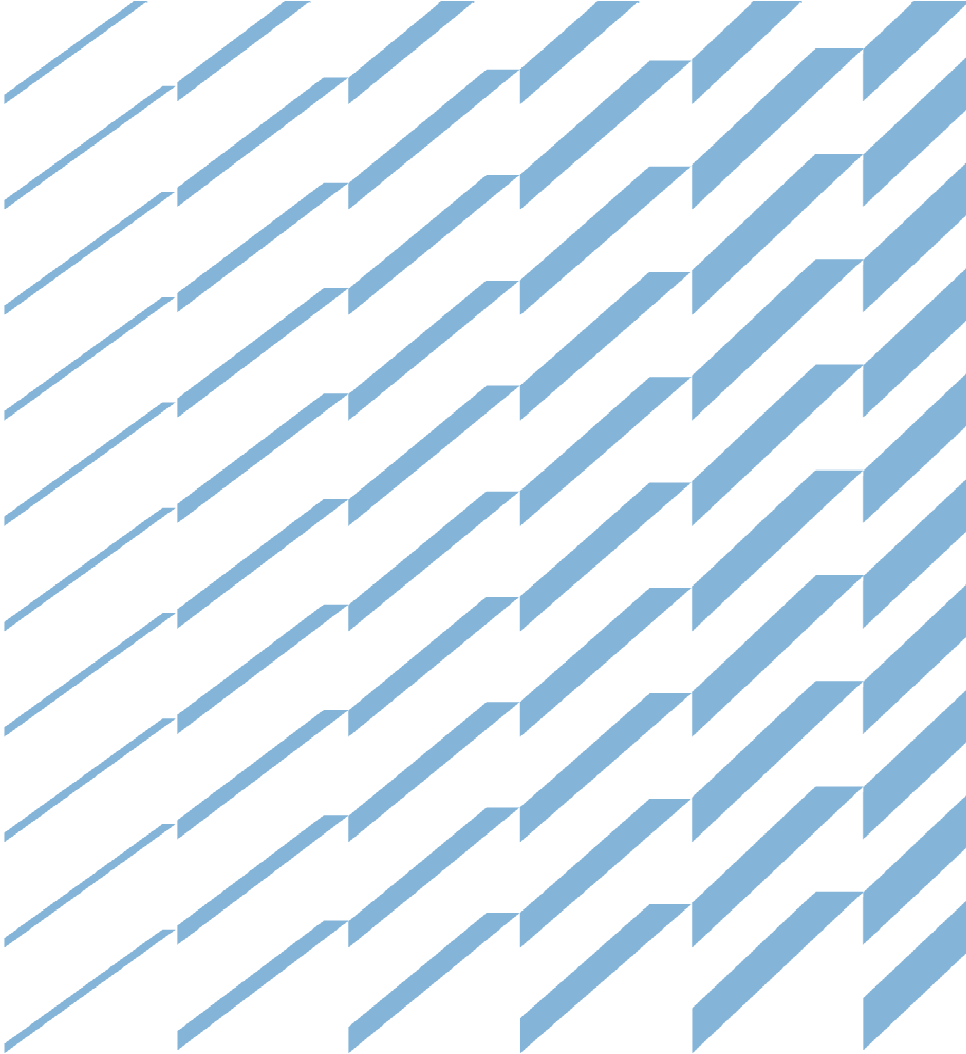
- 일본과 독일, 호주의 ODA사업을 분석하여 지역거점성과 산업·분야 특화성의 두 가지 분석 축을 설정함. 지역거점성은 특정 지역의 대학이나 지자체, 기업 및 공기관 등과의 현장이 유학생의 선발과 교육의 전반에 결합되는 정도를 의미함. 산업·분야 특화성은 지역 내의 특정 산업과 유학생의 선발 등의 방향이 연계되는 정도를 의미함. 두 축을 기준으로 일반형, 분야특화형, 지역연계형, 지역·분야특화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은 국가 차원의 장학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가·대학·전공의 인재를 폭넓게 유치하는 유형으로, 독일 EPOS와 호주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가 대표적임
- 분야특화형은 특정 산업이나 개발과제에 집중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유형임. 독일 호엔하임대학교 AgEcon은 농업경제, 라이프치히대학교 SEPT는 중소기업·창업, 호주 John Allwright Fellowship은 농업 연구개발에 특화되어 있음
- 지역연계형은 대학, 지방정부, 기업 및 고용기관의 협력을 통해 국제학생의 지역사회와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유형임. 독일 파더보른대학교 InRegioFIT가 대표적이며 비ODA 사업이지만,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위해 지역 차원의 협력체계가 중요함을 보여줌
- 지역·분야특화형은 지역의 산업기반과 연구환경을 특정 분야의 교육·현장활동과 결합하는 유형임. 독일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EDev는 지속가능에너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베트남 Fellowship은 수자원관리에 특화되어 있음



[그림 3-11] 국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 유형별 주요 사례

■ 시사점

-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는 단순히 장학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서 수요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유치하여 지역 내에 정주하도록 하는 통합적인 인재양성체계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안정적인 유치 경로를 마련하고 지역 내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KOICA에서 진행되는 국가 차원의 ODA사업은 안정적인 재원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제공하지만 특정 지역의 산업수요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전북차원에서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우호협력국과 새만금 한글학당, KOICA·KOPIA 현지사무소 등을 활용한 인재 발굴 및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북에서는 다양한 국가와 전공을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일반정보보다는 지역과 분야에 특화된 특화형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일본, 호주 등의 사례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운영, 연구 및 현장활동 등을 특정 분야와 일관되게 연결하고 전북지역의 산업 수요인 농생명·식품, 바이오, 에너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과 협력국의 개발수요를 결합해야 함
- 대학의 학위교육에 머물지 않고 지역기업, 연구기관, 농업기술원, 테크노파크 및 시군의 정책현장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해야 함. 공동교육과정, 현장실습, 기업 인턴십 및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 유학생의 전공역량을 높이고 지역산업에 대한 이해와 취업 가능성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ODA 장학사업이 석사과정과 공무원 연수에 집중된 한계를 보완하여 직업계고, 전문대학, 일반대학 및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단계별 맞춤형 유치트랙을 마련해야 함. 이와 함께 귀국형, 협력국과 전북을 연결하는 순환형,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정주형 등 진로경로를 다변화하여 ODA의 개발협력 목적과 지역인재 유치 목표를 조화시켜야 함
- 개별 대학과 기관에 분산된 ODA·유학생·산업인력 정책을 통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대학, 기업, 국제협력기관 및 고용·출입국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함. 유학생의 발굴부터 교육, 취업, 비자, 생활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제4장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1.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방향
2.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과제



제 4 장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1.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정책 방향

가. 방향 설정

■ (정책 목표) ODA사업 연계를 통한 전북지역 인재 유입 확대 및 지역대학 활성화

- 전북지역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해 유학생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오고 있음. 다만, 유학생 유치가 특정 국가와 일부 대학 및 전공에 한정되어 있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유학생의 출신 국가와 전공 분야를 다변화하고 지역의 산업 및 교육 수요와 연계된 전략적 유치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다양한 기관에서 ODA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부 사업은 ODA사업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어 중앙부처 및 국제기구 등의 ODA사업과의 연계도 미흡한 상황임. ODA사업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인재를 전북으로 유입하고 지역대학의 교육역량 강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단계 전략) 개도국의 인재를 발굴하고 선발, 유치까지 이어지는 ODA사업 발굴

- ODA사업과 연계한 유학생 유치는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현지의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대학의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입 파이프라인 관점으로 설계되어야 함.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양적 유치에서 질적 관리를 넘어 지역 수요 맞춤형으로 진화해오고 있지만, 전북은 여전히 특정 국가와 소수 전공에 편중되어 유입 경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한 상황임. 유치의 앞단부터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유치 규모를 확대하고 유학생 유치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 개발도상국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ODA 현지 네트워크나 우호협력국과의 관계를 활용하고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지역의 특화

산업과 수원국의 수요를 매칭하여 맞춤형 선발기준을 마련하고 KOICA 연수·장학 사업과 세계농업대학 등 다양한 유치 통로를 만들어 유학생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지역 대학의 학위과정과 안정적인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단기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치 경로를 다변화하고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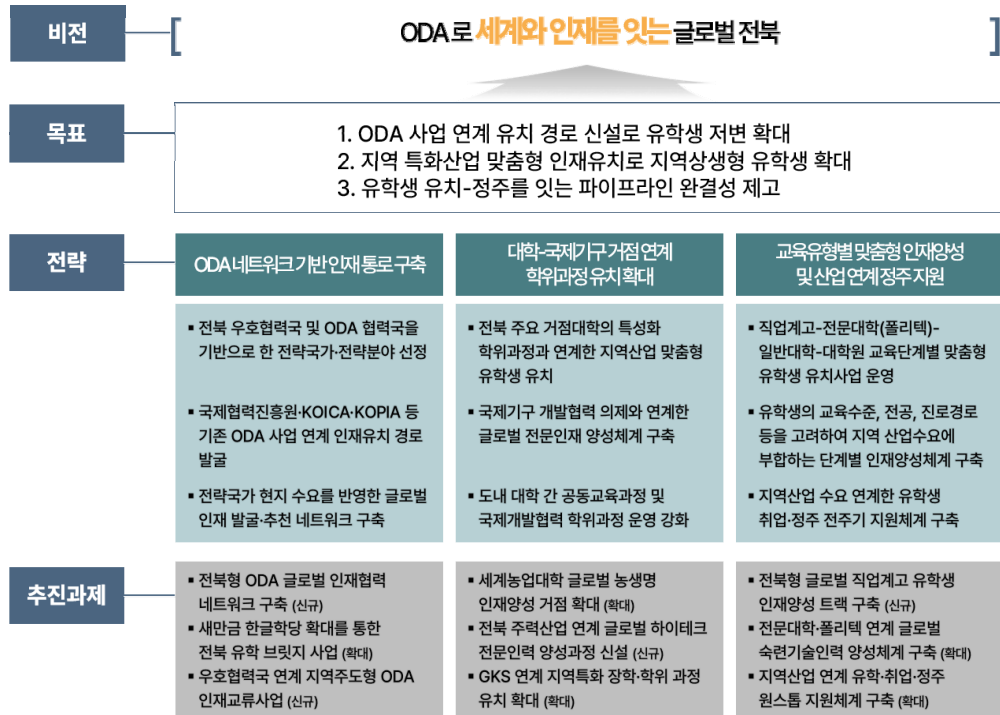
■ (지원 범위) 고등학생부터 전문대·학·석·박까지 교육 전단계 포괄

- 현재 운영되고 있는 ODA사업의 범위를 넘어 특정 학위과정에 국한하지 않고 고등학생(직업계고 포함)부터 전문대학, 학사, 석사, 박사까지 이르는 교육의 전 단계의 유학생을 포괄하고자 함. 이는 유학생 유치가 특정 국가·일부 대학·소수 전공에 편중되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현재 전북지역의 유학생 구조를 확대하고 유치 저변 자체를 넓히기 위한 전략임
- 교육단계에 따라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단계는 지역의 특화산업 기반의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 학사단계는 지역대학의 학부 유학생 유치 확대, 석·박사 단계에서는 정부초청 장학사업 등과 연계한 고급 연구인력 유치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협력 방안) 중앙부처·국제기구·지자체·대학을 잇는 다층적 유학생 유치

- ODA사업과 연계된 유학생 유치 사업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제기구, 지자체, 대학의 역할 분담을 통한 다층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됨.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ODA사업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중앙부처 및 국제기구와의 연계가 미흡한 상황임.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도내 ODA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통합하고 이를 중앙부처 및 KOICA 사업과 연계하여 유학생 유치 통로로 전환하는 조정 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중앙과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교육부나 KOICA의 연수, 장학사업 등을 활용하고 UN, FA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유학생 유치 통로를 확보함.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북형 국가별 협력사업을 활용하고 글로벌 연수 사업 등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 수준에서는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등 개도국과 협력하는 선도대학 사업을 토대로 유학생 유치를 확대함

나. 비전 및 목표



[그림 4-1] 비전 및 목표, 전략

■ 비전

-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ODA로 세계와 인재를 잇는 글로벌 전복’을 비전으로 설정함
- 개발협력의 관계망 등을 통해 유학생 유치의 통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짐. 우호협력으로 맺어진 협력국 네트워크를 인재 발굴의 파이프라인으로 재설계하고자 함

■ 목표

- 목표 1. ODA 사업 연계 유치 경로 신설을 통한 유학생 저변 확대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장학사업에 의존하던 기존 유학생 유치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의 우호

협력국과 ODA 협력국,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해외 협력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유학생 유치 경로를 마련함. 전략국가의 정부기관, 대학, 직업교육기관 및 해외 ODA 사업 수행기관을 유학생 발굴·추천체계와 연계함으로써 국가와 전공 분야를 다변화하고, 전북지역 대학으로 유입되는 글로벌 인재의 저변을 확대함

○ 목표 2. 지역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유치를 통한 지역상생형 유학생 확대

- 전북의 농생명·식품,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탄소융복합 및 에너지 등 지역특화산업과 대학의 특성화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함. 유학생을 단순한 대학 충원자원이 아닌 지역산업의 성장과 국제화를 지원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수원국의 인재개발과 전북의 산업인력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지역상생형 유학생 유치모델을 구축함

○ 목표 3. 유치와 정주를 잇는 인재양성 파이프라인의 완결성 제고

- 유학생 모집과 입학에 집중된 정책 범위를 교육, 진학, 현장실습, 정주까지 확대하여 유치 이후의 진로경로가 체계적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함. 직업계고, 전문대학, 일반대학 등 교육단계별 특성에 맞는 유학경로를 설계하고, 교육단계와 진로계획에 부합하는 비자제도 및 지역산업 취업을 연계하여 유학생이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함

■ 전략과 추진과제

○ 전략 1. ODA 네트워크 기반 인재통로 구축

- 전북의 ODA사업과 국제교류 기반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도내 교육기관으로 유치하는 글로벌 인재통로를 구축함. 대학별 홍보와 개별 모집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전북의 우호협력국, 정부의 ODA 중점협력국, 도내 대학의 국제교류 협력국 등을 전략국가로 선정하고, 국가별 인재개발 수요와 전북의 교육·산업 역량을 연계함
- 전략국가와 분야는 기존 교류관계, 한국 유학 수요, 산업·직업교육 수요, 도내 대학의 교육역량 및 졸업 후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을 종합하여 설정함. 특히 농생명·식품,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복합, 에너지 등 전북 특화산업과 협력국의 인력양성 수요가 일치하는 분야를 우선 발굴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KOICA, 농촌진흥청 KOPIA센터 등의 네트워크를 유학생 발굴·추천 경로로 확장하고, 현지 정부·대학·직업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어교육, 유학정보 제공, 사전

교육을 연계함. 추진과제는 ① 전북형 ODA 글로벌 인재협력 네트워크 구축, ② 새만금 한 글학당 연계 전북 유학 브릿지 사업, ③ 우호협력국 연계 지역주도형 ODA 인재교류사업임

○ 전략 2. 대학-국제기구 거점 연계 학위과정 유치 확대

- 도내 대학의 특성화 학위과정과 연구역량을 ODA사업 및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글로벌 전문 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함. 유학생 수 확대보다 대학 특성화 분야,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하여 산업 연계성을 강화함
- 농생명·식품 분야의 대학·연구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업기반을 활용하여 FAO 세계농업대학을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으로 확대함. 스마트농업, 식품가공, 종자, 농촌개발, 농업정책 등의 교육과정에 대학 간 공동교육과 연구기관·기업의 실험·실습 및 현장연수를 결합함
-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력산업 분야에는 학위과정, 기업 현장실습 및 인턴십을 연계한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마련함. 또한 GKS와 도내 대학의 특성화 학위과정을 연계하고, 국가장학금·지방비·대학 장학금·기업 지원을 결합한 지역특화형 장학과정을 운영함. 추진과제는 ① FAO 세계농업대학 연계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 확대, ② 전북 주력산업 연계 글로벌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③ GKS 연계 지역특화 장학·학위과정 유치 확대임

○ 전략 3. 교육유형별 맞춤형트랙과 비자·산업 연계 정주형 유치

- 유학생의 교육수준과 진로목표를 고려하여 직업계고, 전문대학·한국폴리텍대학, 일반대학 및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단계별 맞춤형 유치·양성체계를 구축함. 직업계고는 한국어·직업기초교육, 지역산업 연계 전공교육과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전문대학·폴리텍은 기업 수요에 맞춘 숙련기술·현장직무 교육을 운영함. 일반대학과 대학원은 전공 심화교육과 산업 혁신 역량을 갖춘 전문인재 양성에 중점을 둬
- 모집 단계부터 진학·구직·취업·정주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육유형별 체류자격과 비자 전환 경로를 설계함. 직업계고생, 전문학사·학사과정생, 대학원생 및 연구인력별로 적용 가능한 비자를 검토하고, 전공 선택과 현장실습·취업 연계를 통해 유학비자에서 취업비자로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지원함
- 대학·전문대학·폴리텍·지역기업·지자체가 공동으로 한국어·직무교육, 인턴십, 취업 매칭 등을 제공하여 유치에서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함. 추진과제는 ① 전북형 글로벌 직업계고 유학생 인재양성 트랙 구축, ② 전문대학·폴리텍 연계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③ 지역산업 연계 유학·취업·정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임

2.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추진과제

가. 전북형 ODA 글로벌 인재협력 네트워크 구축 (신규)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에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초청연수와 도내 대학의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등 다양한 ODA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 참여자와 협력국의 우수 인재를 도내 대학 유학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경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초청·연수 이후 학위과정 진학으로 이어지는 인재유치 효과가 제한적임
- 전북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JB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ODA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있음. 그러나 두 협력체계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ODA사업을 통한 인재 발굴·초청과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정책을 연계하는 통합적 거버넌스는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ODA 협력국 발굴과 인재 추천, 대학 진학, 교육, 취업 및 정주를 하나의 경로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ODA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는 'JB 글로벌 인재협력 협의체'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기관별 사업을 연계하고 전북형 글로벌 인재 유치의 공동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 세부 내용

- 'JB 글로벌 인재협력 협의체' 구성
 - 기존 유치지원 협의체를 유지하되 ODA 축을 결합하여 5개 기능축(총괄·ODA·교육·산업·정주)의 확대형 협의체로 개편. 반기별 본회의와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인재발굴·교육연계·취업·정주 4개 분과 중심의 실무 협력체계를 구축함. 협의체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전북 글로벌 인재협력 실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갱신함

[표 4-1] JB 글로벌 인재협력 협의체 구성(안)

구분	참여기관	역할
총괄	전북특별자치도(대외협력과·교육협력과 공동)	정책 총괄, 예산, 조정
ODA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KOICA 전북사무소	협력국 발굴, 연수생 추천
교육	전북 도내 대학(전북대, 원광대, 전주대, 군산대, 우석대 등), 국립 한국농수산대, 한국폴리텍대학 전북·익산캠퍼스	학위과정 개설·운영
산업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내 기업	인턴십·채용 수요 제시
정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비자·정착 지원



[그림 4-2] JB글로벌 인력협력 협의체(안)

○ ODA 연계 글로벌 인재양성 제도 기반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를 개정하여 ODA 연계 인재양성 사업의 추진 근거를 구체화함. 기본계획·지원사업 조항에 인재양성형 ODA,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역대학 교육, 산업현장 취업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명시

○ ODA-유학 통합 인재 DB 구축

- ODA 사업을 통해 전북에 방문하는 연수생과 유학 희망자의 전공·경력·한국어 수준·진학 희망 분야를 통합 관리하는 DB를 구축 관리

■ 기대효과

- ODA사업을 개별 부서 단위 사업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으로 전환하고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함. ODA 수행기관·대학·기업 간 정보와 기능을 연계하여 연수생을 지역대학 진학으로 연결하는 유치·교육·취업·정주의 전주기 인재정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나.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를 통한 전북 유학 브릿지 사업 (확대)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국내에서의 학업 부적응과 중도탈락, 졸업 이후 지역정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특히 아프리카·중앙아시아·중남미 등 ODA 협력국은 중국·베트남 등에 비해 한국어교육기관과 유학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입국 이전 단계부터 체계적인 한국어교육과 기초학습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약 8천 명으로, 이 중 약 2천 명이 비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어학연수생으로 구성되어 있음. 단순 어학연수 중심의 유치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에서의 한국어교육을 도내 대학의 학위과정 진입으로 직접 연결하는 선제적 유학생 유치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새만금 한글학당은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교육과 전북 유학정보를 제공하고 도내 대학 진학으로 연계하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의 ‘유학생 유치형’ 운영모델을 ODA 협력국을 중심으로 확대하여, 단순 한국어 보급을 넘어 전북 유학을 희망하는 예비 유학생을 발굴·육성하는 거점으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어교육과 함께 전북 및 도내 대학 소개, 전공·입학 상담, 기초학습 지원, 장학·비자 정보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우수 수료생을 도내 대학과 연계함으로써 ‘현지 한국어교육-예비유학생 발굴-도내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전북형 예비유학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전북 유학 브릿지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체계 강화

-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외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만금 한글학당을 전북 유학생 발굴과 사전교육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고도화함. 현지 한국어교육에 전북지역 대학 및 전공 정보, 지역산업과 진로, 유학생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결합하여 교육 수요자가 도내 대학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
- 베트남, 몽골, 미얀마, 중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기존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대학과 현지 운영기관 간 협약을 구체화함. 국가별 유학생 수요와 도내 대학의 유치 분야를 고려하여 대학별 담당 거점을 지정하고, 학생 모집과 한국어교육, 입학상담 및 진학 지원을 공동 추진
- 향후 전북의 ODA 우호협력국과 유학생 유치 전략국을 중심으로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단순한 한국어교육기관 확충보다 도내 대학 진학 실적과 교육과정 운영역량, 현지 협력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거점 선정

참고 사례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사업

- 사업주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시기: 매년
- 사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용이 수록된 한국어 교재 보급과 한글학당 운영을 통해 전북 홍보 및 유학생 유치환경 조성 근로자 유입, 민간교류 기반 마련
- 사업대상: 8개국(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국,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 해외 새만금 한글학당 운영모델: 국제교류형, 유학생 유치형, 근로자지원형

국제교류형		유학생 유치형		근로자 지원형	
국제협력 진흥모델 자매우호, 우호협력 지역 대상 구축 및 운영		도내 대학 및 시·군, 교육 전문기관 대상 공개모집으로 한글학당 전문성 확립, 도내 유학생 및 근로자 대상 안정적 유입환경 조성		도내 대학 및 시·군, 교육 전문기관 대상 공개모집으로 한글학당 전문성 확립, 도내 유학생 및 근로자 대상 안정적 유입환경 조성	
구분	국제 교류형		유학생 유치형	근로자 지원형	
지역 유형	(1유형) 자매우호 지역형	(2유형) 우호협력 지역형	(1유형) 도내 대학 운영형	(1유형) 도내 시·군 파견형	

○ 새만금 한글학당 내 ‘전북 예비유학반(JB Track)’ 운영

- 현재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의 한국어교육과 전북지역 이해교육, 전공 탐색 및 대학 진학상담 등을 확대하여 전북 예비유학반을 운영함. 교육과정은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전북의 대학교 지역산업, 생활환경 및 유학생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여 구성
- 수료생에게 도내 대학 입학전형 우대와 전북형 유학생 장학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여 교육 수료가 실제 진학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임

○ 입국 후 연계(Landing Program)

- JB Track 수료 후 도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초기 학습 멘토링과 생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할 것임. 브릿지 수료생에게 기숙사 우선 배정과 한국어 보충교육, 학사상담 및 생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 대학별 유학생 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지원기관을 연계하여 체류, 주거, 의료 및 생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임. 전북대학교 글로벌대학 실행계획 등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및 정주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확보할 것임

■ 기대효과

- 어학연수 중심의 단기 체류형 유치에서 벗어나 학위과정 진학을 전제로 한 사전교육형 유치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입학 이전부터 전북에 대한 이해와 지역 정착 의지를 높이고 발굴-교육-진학-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인재유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정성적으로는 현지 한국어교육과 유학 준비를 연계하여 학위과정 진학을 전제로 한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가 가능함. 입학 이전부터 전북의 대학·산업·생활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지역 친숙도와 정착 의지를 형성하고, 유학생의 학업 적응과 지역 정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재정적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새만금 한글학당의 시설·교육과정·운영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해외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도는 예비유학반 운영, 교원 파견 및 진학연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한글학당 운영 규모, 수료 인원, 도내 대학 진학률 및 재학 유지율 등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할 수 있음

다. 우호협력국 연계 지역 주도형 ODA 인재교류 사업 (신규)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의 ODA사업은 개발도상국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 초청연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을 통해 국가별·분야별 연수과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일정 기간의 연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연수 종료 이후 참여자가 전북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거나 도내 대학의 학위과정·전문교육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후속 경로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ODA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인재와 인적 네트워크가 일회성 교류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연수 이후 심화교육과 유학으로 연계되는 단계적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전북형 ODA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북차원의 중점 협력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와 인력개발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협력국(수요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 분야를 전북의 농생명·식품, 바이오,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등 특화산업과 도내 대학의 교육·연구역량에 연계함으로써 전북만의 차별화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단기 초청연수에서 그치지 않고 우수 연수생과 협력국 인재를 후속 전문교육과 도내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협력과 공동사업으로 확장되는 전북형 ODA 인재유치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ODA 사업을 단순한 국제교류·연수사업에서 협력국의 인적자원 개발과 전북의 글로벌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하는 전략적 인재협력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음

■ 세부 내용

- 전북 인재협력국 1~3개국 선정 및 국가별 교육과정 트랙 설계
 - 도 차원의 공식 협력관계가 있는 국가이면서 현지 한국 유학의 수요와 도내 유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협력국을 선정해야 함. 그동안의 ODA 사업 실적과 전북 특화산업과 수요국 인력양성 수요를 적절히 반영한 고려 필요

- 수요국의 산업·교육 수요와 인재양성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 트랙(농생명·식품,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설계

○ 단계별 인재교류 프로그램 운영

단계	대상	기간	내용	연 규모
1단계	협력국 공무원·연구자·교원	2주	기존 초청연수 + 도내 대학 캠퍼스투어·학위과정 설명 등	40~60명
2단계	우수 수료자, 협력국 대학생	3~6개월	도내 대학 단기연수, 연구실 배치, 한국어 집중	15~20명
3단계	수료자 및 정부 추천자	2~4년	도내 대학 석·박사 학위과정	10~20명

○ 연수-진학 연계체계 강화

- 초청연수 과정에 학과 소개, 교수 면담, 입학요건 및 장학제도 안내를 포함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의무 편성함. 참여자의 전공·경력·한국어 및 영어 능력·진학 희망 분야를 통합 관리하여 적합한 대학·학과와 연계하고, 우수 수료자에게는 단계 전환 시 가점 또는 우선추천 기회를 부여함

○ 현지 사후관리 및 글로벌 동문 네트워크 운영

- 연수 종료 후 6개월·1년 시점에 현지 활동과 진학 의향을 조사하고 공동연구·정책자문·기업 협력 등 후속사업 수요를 발굴함. 협력국별 전북 ODA 연수생·유학생 동문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우수 수료자에게 소규모 공동연구비·기자재·현지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연수성과가 현지 정책과 산업현장에 확산되도록 함

참고 사례 충북 K-유학생 프로젝트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와 지역산업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연계하는 ‘충북형 K-유학생 프로젝트’를 추진
 - 외국인 유학생 2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지역 초청 장학제도, 충북어학당, 대학 연계 사업, 유학생 장학금 및 취업지원 등과 함께 ‘ODA 자금을 활용한 글로벌 연수원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함

- ODA를 활용한 글로벌 연수원은 기존 개발도상국 대상 초청연수를 단기 교육과 인적교류에 그치지 않고 지역대학 유학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계획된 것임
- 개발도상국의 청년·기술인력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산업·기술 분야의 사전교육 및 연수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가 충북지역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계
- 충북도 소재의 중원대학교, 세명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등 3개교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농업대학, 사마르칸트 실크로드 국제문화유산대학과 K-유학생 사업 실행 관련 인적교류, 연구자료 등에 관한 정보 공유의 합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해당 MOU는 유학생 유치에 대한 내용이 주요한 내용으로 각 대학 간의 교류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학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임. 충북도의 협약으로 우즈베키스탄 우수 인재들의 도내 유입을 위한 제도적인 기초를 다질 수 있고, 산업체 인력난 극복 및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도내 대학의 존립 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대효과

- 단기 초청연수 중심의 ODA사업을 심화교육과 대학 학위과정으로 연계하여, 일회성 교류를 넘어 전복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음. 연수 참여자의 역량과 전공, 진학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인재가 도내 대학의 학위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적 경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협력국 정부 및 대학과의 인재추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특정 국가와 일부 전공에 편중된 도내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국과 전공 분야를 다변화할 수 있음. 이를 통해 협력국의 산업·인력양성 수요와 전복의 특화산업 및 대학 교육역량을 연계한 전략적 인재유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와 수료생을 중심으로 협력국 내 친(親)전복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기계·식품·종자·에너지 등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확대를 지원할 수 있음. 사업성과는 인재협력국 수, 단계별 참여인원, 단기연수의 심화교육·학위과정 전환율, 협력국 정부·대학과의 협약 및 후속 협력사업 실적 등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음

라. 세계농업대학 연계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 확대 (확대)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원광대학교,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세계 농업대학(WAC)을 전북의 대표적인 국제 농업인재 양성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경대학교의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참고하여 특정 국제기구와의 협력에만 의존하기보다 농업·식량·교육·개발협력 분야의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함
- 국제기구 연계형 사업은 개발도상국 인재의 학위과정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단기 초청연수보다 장기적인 인재 유치와 지역 정착에 효과적인 유형임.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식품산업과 지역대학의 교육·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새만금에 교육·연구·실증 기능을 갖춘 글로벌 농업교육 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함.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정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참여기관 간 역할 조정, 국제기구 유치 및 중앙정부 협의, 유학생의 지역대학·산업 연계 등을 총괄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국제기구 연계 방식 확장
 - FAO 총회 결의 등을 통한 공식 국제기구화는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FAO·IFAD·WFP 등 농업·식량·개발협력 분야 국제기구와 개별 협력약정·공동교육과정·인증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
 - 협력 대상을 FAO에 한정하지 않고, UN·세계은행·ADB 등 다양한 국제기구로 확대하여 다각적인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 마련

○ 새만금 실증단지 기반 교육·연구·실증 통합 운영

- 논의가 진행 중인 새만금 실증부지를 스마트농업·식품가공·중자산업·농촌개발·농업정책 분야 교육과정의 현장실습 및 실증 거점으로 활용하고, 원광대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 연구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현장연수 프로그램을 연계함.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새만금 스마트농업 실증단지 등 전북의 농생명 혁신기반을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 산업현장이 연결되는 실무형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함

○ 전북형 교육·정주·산업 연계 지원

- 국제농업 관련 학위과정 유학생에게 국가장학사업과 연계한 도비 매칭 장학, 기숙사·주거, 한국어교육 및 지역생활 적응을 지원함. 졸업생은 농생명·식품기업 취업 및 지역특화형 비자와 연계하여 지역 정착을 지원함

○ 글로벌 인재 모집경로 다변화

- 전북의 ODA 연수 수료생과 새만금 한글학당 한국어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국제농업 학위과정 편입·진학 우대전형을 운영함. 원광대학교 해외 거점센터, 농생명·바이오사업단, 개발도상국 정부 및 KOICA 해외사무소와 연계하여 협력국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현지 사전교육과 지원서 작성 지원

참고 사례 IMO 세계해사대학(WMU)

- 세계해사대학(WMU)은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가 1983년 스웨덴 말뫼에 설립한 독립적인 국제 고등교육기관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해사행정·해운관리·해양정책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석사 및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IMO의 기술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개발도상국 등의 전 세계 해상 전문인력이 국제해사안전·환경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과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IMO는 개도국 인재의 WMU 학위과정 참여를 위한 펠로십을 지원하고 있으며, 몰타의 국제해사법연구소(IMLI) 등과 함께 국제 해사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WMU 졸업생은 170여 개 국가·지역의 정부, 항만, 해운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글로벌 해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 이는 ‘국제기구-전문분야 학위과정-개도국 인재양성-글로벌 동문 네트워크’가 결합된 대표적인 국제기구 연계 인재양성 모델로 볼 수 있음



■ 기대효과

- 세계농업대학을 중심으로 학위과정, 단기교육, 연구·실증 기능을 통합한 전북형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할 수 있음. 단순한 학위과정 운영을 넘어 개발도상국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 공동연구, 현장실습 및 기술실증을 연계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산업협력이 결합된 국제 농생명 인재양성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공식 승인이나 설립 협약에만 의존하기보다 공동교육과정 운영,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 장학 및 연수 지원 등 기능적 협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국제기구의 공식 승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음
- 새만금 농생명용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산업과 스마트농업 등 전북의 산업·연구기반을 교육과정 및 연구·실증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생명·식품산업의 전문인력과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 사업성과는 국제기구 협력약정 수, 국제농업 학위과정 재학생 수, 현장실습 참여율, 공동연구·실증 실적 및 졸업생 도내 취업률 등을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음

마. 전북 주력산업 연계 글로벌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신규)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농생명 분야만으로는 유학생 유치 규모와 졸업 이후 취업 연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북의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탄소소재, 조선·해상풍력, 바이오·의료, 식품 등 주력산업으로 유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등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산업은 중장기 기술인력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유학생 유치와 산업인력 확보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분야임
- 산업 수요와 무관한 유학생 유치는 졸업 이후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기존 유학생 유치가 인문·사회계열 등에 편중되어 지역기업의 실제 인력수요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학의 유학생 모집을 출발점으로 하기보다 지역기업의 채용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전공·교육과정과 유학생을 연계하는 수요기반형 유치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대되고 있음. GKS UIC는 자연과학·공학 분야의 산학협력형 교육과 현장경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혁신 인재양성정책에서도 유학생의 현장실습·취업·비자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주력산업별 인력수요를 반영한 유학생 특화분야를 설정하고, 유치-교육-현장실습-취업으로 이어지는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트랙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산업별 ‘글로벌 하이테크 트랙’ 개설(ODA수요국-도-대학-기업 4자 협약형)
 - ODA 수요국의 산업·인력개발 수요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주력산업이 연계되는 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산업에 필요한 첨단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화 교육과정을 개설함. ODA 수요국,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대학 및 기업 간 4자 협약을 기반으로 인재 선발부터 전문교육,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트랙을 운영함
- 기업 주문식 교육과정 및 채용연계 운영

- 참여기업의 직무와 채용예정 인원을 사전 조사하고, 기업이 채용의향을 제시한 규모를 기준으로 모집 정원을 설정하여 전공 불일치와 공급과잉 방지
 - 교육과정은 전공교육 60%, 산업·직무 한국어 20%, 현장실습·인턴십 20%를 기본으로 구성하고 기업 전문가의 교육 참여와 기업 프로젝트 수행 확대
- 산업별 한국어·취업역량 강화
- 일반 한국어교육을 넘어 산업안전, 설비운영, 품질관리, 작업지시, 기업문화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한국어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습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지원하고, 전공 관련 국가기술자격 및 산업체 자격증 취득과 연계

참고 사례 하이테크 농업 최고 혁신 기술과정(안)

-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대학교와 진행한 개발도상국 농업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에서는 개발도상국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제안하며 준비단계, 착수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2차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DACUM 방법을 통해 개도국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이테크 농업 최고 혁신 기술과정을 설계하고 해당 교육과정을 토대로 개도국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모집을 실시하려고 구상 중임

하이테크 농업 최고 혁신 기술 과정(농업 분야 High-tech 기반 MBA 과정)			
교육목표	농업 분야에서의 정책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발전을 선도할 전문 High-skilled 인재 양성		
교육대상	농업 분야 연구자 및 교원, 교수 등 전문가 / 농업 분야 관련 공무원 / 농업 분야 관련 기업가		
기초교과 (Pre-course)	한국농업발전의 역사		SDGs와 농업
공통교과 (Core)	농촌개발 리더십	농업과 빅데이터	미래농업과 혁신
	농업경영 및 마케팅	기후변화와 미래식품	지속가능한 농촌지도
	하이테크 농업 기술 세미나	하이테크 농업 Best Practice (Field Trip)	캡스톤디자인

■ 기대효과

- 기업의 실제 채용수요를 기반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교육하고, 전공교육과 현장실습,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전공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할 수 있음.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와 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졸업 이후 도내 기업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취업을 기반으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이차전지·농식품·스마트팜·조선·해상풍력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신규 투자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전문기술과 함께 출신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협력 확대에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성과는 산업별 특화트랙 및 참여기업 수, 기업 채용수요와 연계한 선발인원, 현장실습 참여율, 졸업생 도내 취업률, 지역특화형 체류자격 전환 및 지역정착 인원 등을 중심으로 관리함. 이를 통해 인재 유치·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바. GKS 연계 지역특화 장학·학위 과정 유치 확대 (확대)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외국인 학위과정 유치사업으로, 학부·석사·박사과정과 한국어 연수, 학비 및 생활비 등을 국비로 지원함. 특히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Regional GKS(R-GKS)와 산학협력형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UIC 트랙은 비수도권 대학의 우수 유학생 유치와 지역산업 연계 인재양성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임
-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은 약 8천 명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도내 대학의 GKS 수행 현황과 장학생 규모, 출신 국가 및 전공 등에 대한 도 차원의 통합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음. GKS가 대학별 유학생 유치사업으로만 운영될 경우 전북의 ODA 협력국, 주력 산업 및 지역 정착정책과 연계하기 어려우므로 도와 대학 간 공동 대응체계가 필요함

- GKS는 개발도상국 우수인재가 국내 학위과정에 진입하는 핵심 경로로 활용할 수 있음. 전북의 ODA 협력국과 우호협력국 출신 인재를 사전에 발굴하고 GKS 지원을 연계할 경우, 국비 장학재원을 활용하여 전북대학의 우수인재 유치와 협력국 인재양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음
- 따라서 도내 대학의 GKS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장학금에 전북형 정착·산업연계 지원을 추가하는 'GKS+JB' 모델을 구축하여 우수 유학생의 유치부터 교육, 지역기업 취업 및 정착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도-대학 GKS 공동 대응체계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대학이 참여하는 GKS 대응 지원단을 구성하여 수행대학 신청, 사업 계획서 작성, 트랙별 공모 일정 관리, 우수사례 공유를 지원함. 도내 대학의 수행대학 지정 현황·장학생 규모·출신 국가·전공·졸업 후 진로를 조사하고, R-GKS와 UIC 등 대학별 강점에 적합한 트랙 참여를 확대함. UIC 특화트랙은 '26~'28년 단위로 지정되므로 차기 지정 주기에 대비하여 종합대학뿐 아니라 지역산업 특화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의 신청 유도
- 전북형 'GKS+JB' 매칭장학 운영
 - 도내 대학 재학 GKS 장학생에게 정착지원금, 기숙사비 또는 주거비, 산업현장 연수비, 한국어 심화교육을 추가 지원함. TOPIK 고급 취득, 도내 기업 인턴십 참여,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졸업 후 도내 기업 취업 시 추가 정착지원을 제공함. 의무근무 방식보다 취업·정착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장학생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도외 유출 최소화
- ODA 협력국 우수인재 사전 발굴
 -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의 ODA 연수생, 해외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수료생, 전북의 교류협력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GKS 모집정보와 도내 대학·학과 정보를 제공함. 협력국 주재 한국대사관, KOICA 해외사무소, 현지 대학·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전북 대학설명회와 지원서 작성 상

답을 운영함. 한국어 능력·학업성적·전공 적합성을 고려한 사전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ODA 협력국 출신 지원자의 선발 가능성을 높임

○ UIC 트랙과 전북 주력산업 연계

- 농생명·식품, 미래모빌리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주력산업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산학협력형 UIC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의 참여의향과 인력수요를 수행대학 신청 단계부터 반영함. 졸업 후 도내 기업 취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인재 양성사업 및 원스톱 지원체계와 연계

참고 사례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lobal Korea Scholarship, K-GKS)

- 경북형 초청 장학제도(K-GKS)는 경상북도가 지역 신산업 육성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장학사업임. 해외 이공계 우수인재를 도내 대학의 석·박사 과정으로 유치하고 학업 이후 지역기업 취업과 정착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오공대, 경국대, 경북대 상주캠퍼스, 포항공대, 대구대, 영남대 등 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음
- 장학생에게는 한국어 연수과정과 석사과정 동안 어학연수비, 등록금, 학업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글로벌학당을 통한 경북 이해 및 법·제도 교육, 취업·진로 컨설팅, 지역기업·연구소 연계 등을 함께 제공함. 특히 기계, 화학, 컴퓨터·AI융합 등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이공계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에는 지역기반 비자 추천 등과 연계하여 도내 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2026년에는 인도·몽골·인도네시아 등 7개국 출신 이공계 우수인재 12명을 신규 선발하였으며, 현재 총 73명의 외국인 우수인재가 K-GKS를 통해 도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는 ‘지역정부-지역대학-외국인 우수인재-지역기업-정주지원’이 연계된 지자체 주도형 글로벌 인재양성 모델로, 단순한 장학 지원을 넘어 외국인 인재의 유치부터 교육, 취업 및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음

■ 기대효과

- 국가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GKS에 전북형 산업연계·정착지원 체계를 결합하면, 제한된 지방비로 학업역량이 검증된 우수 외국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 특히 ODA 협력국 출신 우수인재의 전북지역 학위과정 진입을 확대하고, 도내 대학의 GKS 수행역량과 국제화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임. 대학별 GKS 유치역량을 강화하고 전북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전공을 중심으로 장학생을 선발·지원함으로써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선발된 GKS 장학생은 전북의 주력산업 연계 교육과정과 현장실습, 기업 인턴십, 취업 상담 및 기업매칭 등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학업 이후 도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마련함. 이를 통해 국가 장학사업을 단순한 유학생 유치수단이 아니라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정주를 지원하는 전주기 인재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음. 사업성과는 GKS 수행대학 및 장학생 수, ODA 협력국 출신 선발인원, 전북형 매칭장학 수혜인원, 인턴십 참여율, 졸업 후 도내 취업·정착률 등을 중심으로 관리함

사. 전북형 글로벌 직업계고 유학생 인재양성 트랙 구축 (신규)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5월 베트남 교육훈련부 국제교육개발센터(CIE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월 현지 심사를 통해 직업계고 유학생 18명을 선발함. 선발 학생들은 글로벌학산고의 제과제빵·외식조리·헤어미용, 전주공업고의 기계·전기·자동차, 줄포자동차공업고의 미래자동차 분야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과정에 진입하도록 설계됨. 다만 국회입법조사처(2026.3)에 따르면 2026학년도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비자 발급 인원은 60명(26.4%)에 그쳤으며, 전북교육청이 선발한 17명도 유학 목적 및 입국 목적 불분명,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사유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 안정적인 입국 단계부터 제도적 한계가 나타남
-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산업이 필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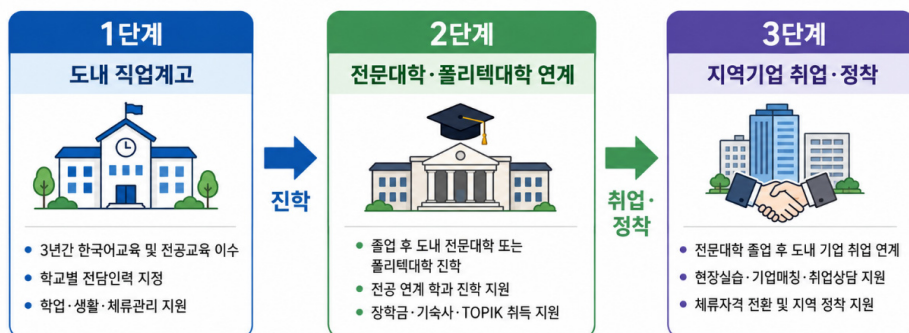
하는 기술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확대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단순한 학생 유치에 그치지 않고 선발-비자-입국-교육-생활-진로를 연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전제되어야 함. 특히 유학생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교육, 전공수업 적응, 기숙사 생활, 후견 및 상담, 인권·안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도상국 학생 유치의 경우 ODA사업과 연계하여 선발과정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 현재 사업은 도교육청 중심의 학생 선발과 고교 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졸업 이후의 진로경로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직업계고 유학생은 고교 졸업만으로 안정적인 취업 체류자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직업계고-도내 전문대학-지역기업을 연계하는 단계적 인재양성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학업중단과 체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전문대학의 심화 직업교육과 기업 현장실습-취업을 연계하여 전복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술인재로 육성하고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 세부 내용

○ 직업계고-전문대학-지역기업 진로 트랙 구축

- 1단계: 도내 직업계고에서 3년간 한국어교육과 전공교육을 이수하며, 학교별 전담인력을 지정하여 학업·생활·체류관리를 지원함, 2단계: 졸업 후 도내 전문대학 또는 폴리텍대학 진학 시 전공 연계 학과 진학, 장학금, 기숙사, TOPIK 취득을 지원함, 3단계: 전문대학 졸업 후 도내 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며 현장실습, 기업매칭, 취업상담, 체류자격 전환 지원



○ 고교-전문대학 연계 교육과정 운영

- 전주공업고 기계·전기·자동차과-전주비전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글로벌학산고 조리·제과제빵 관련 학과-군장대학교 스마트농식품과 등 고교 전공과 도내 전문대학 학과 연계
- 전주비전대학교와 군장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활용한 E-7-M 비자와 연계한 제조업 특화트랙 운영

○ 도-도교육청 공동 관리·보호체계 구축

- 유치학교별 전담교원과 행정직원을 지정하고 지역사회 인사·유관기관을 활용한 후견인 체계를 마련함. 베트남어를 우선으로 기계·전기·자동차·조리·제과제빵·미용 분야 전공 용어집과 번역교재를 개발하고, 입국 전 현지 한국어교육과 입국 후 방과후 보충교육 연계

○ ODA 및 국제협력사업 연계

- 도교육청과 베트남 CIED의 협력체계를 전북특별자치도의 ODA사업과 연계하여 현지 학생 발굴, 한국어·기초기능 사전교육, 입국 후 교육 및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함
-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문대학 진학과 지역기업 취업으로 연계하고, 귀국을 희망하는 학생은 베트남에 진출한 전북기업과 한국기업의 현지 취업을 지원함

■ 기대효과

- 도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ODA·외국인 정착정책과 연계하여, 학생 선발부터 비자 발급, 입국, 교육, 진학, 취업 및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특히 비자 발급 요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행정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선발 이후 입국이 무산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학업·생활상담, 기숙사 생활, 후견 및 인권·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과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지원할 수 있음. 또한 직업계고-전문대학-지역기업으로 이어지는 진학·취업 경로를 구축하여 중도탈락을 예방하고 지역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아. 전문대학·폴리텍 연계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확대)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법무부는 2026년 「육성형 전문기술학과(K-CORE)」 시범대학으로 전국 16개 전문대학을 지정하였으며, 전북에서는 군장대학교 스마트농식품과와 전주비전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가 포함됨. 지정 학과 유학생은 입학 시 재정능력 요건 완화, 재학 중 시간제 취업 확대, 졸업 후 전공 관련 기업 취업을 통한 E-7-M 체류자격 전환과 장기근속에 따른 거주자격 취득이 가능해짐
- 최근 전문대학 외국인 유학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북의 농식품·미래모빌리티·농기계·스마트팜·조선 등 중간기술 인력 수요도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대학별 유학생 유치와 기업 채용이 개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공과 일자리 간 불일치, 한국어 능력 부족 및 취업 연계 실패가 발생할 수 있어 도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함
- 한국폴리텍대학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직업훈련은 한국 ODA의 주요 강점 분야이므로, ODA 현지교육과 국내 전문기술 학위과정, 지역기업 취업을 연결하는 전북형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확대 지원체계 구축
 -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전문대학, 전북테크노파크, 경제·산업기관이 참여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차기 지정에 공동 대응
 - 도내 기업의 외국인 전문기술인력 수요와 채용의향을 사전 조사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미래모빌리티·농기계·스마트팜·이차전지·조선해상풍력 등 전략산업 연계 학과를 발굴
 - 기존 지정대학(군장대·전주비전대)의 신청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청서 작성, 기업협약, 기숙사·한국어교육 확보를 지원하여 지정 학과를 단계적으로 확대

○ 한국어-전문기술 병행 교육과정 운영

- 입학 시 TOPIK 2~3급 수준의 유학생이 졸업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3~4단계 또는 TOPIK 3~4급 수준에 도달하도록 학기별 한국어 역량 목표를 설정함. 일반 한국어와 함께 산업안전, 설비운영, 품질관리 등 직무 현장에서 필요한 전공·직무 한국어를 교육과정에 포함

○ 한국폴리텍대학 연계 트랙 운영

- 전북·익산캠퍼스의 2년제 학위과정에 유학생을 유치하고 캠퍼스별 조건부 입학과 한국어교육을 연계함. 전북특별자치도·KOICA 등의 ODA 초청연수생이 폴리텍 시설·장비를 활용해 단기 전문 기술 실습을 받는 공동 프로그램 운영

○ ODA-학위과정-취업 연계 파이프라인 구축

- 법무부 지정 K-CORE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도내 직업교육기관의 학위과정에 연계함. 재학 중에는 체류자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도내 기업 현장실습·인턴십을 운영하고, 졸업 후에는 K-CORE 지정학과 졸업자의 E-7 전환 등 개인별 요건에 부합하는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여 지역기업 취업과 장기 정착으로 연계

참고 사례 ILO-한국폴리텍대학 연계 ASEAN 청년 디지털·그린 기술 인력양성

-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과의 개발협력사업으로 「디지털 및 녹색 기술을 통한 ASEAN 청년 역량 강화(Advancing Digital and Green Skills for Youth in ASEAN)」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폴리텍대학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KRIVET) 등과 함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 필리핀에서는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그린 기술을 습득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해당 사업은 2024~2026년 ILO-한국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

- ILO-한국직업능력연구원-한국폴리텍대학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필리핀 건설산업의 인력 및 기술수요를 조사하고, 디지털·그린 직무에 필요한 기술표준과 교육과정을 개발함. 한국폴리텍대학 교원이 현지조사와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린·디지털 스킬 표준, 훈련 커리큘럼, 평가체계, 교수·학습자

료 등을 개발하여 필리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2026년에는 필리핀 현지에서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마스터 트레이너 양성과 그린 건설기술 훈련 등 실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국제기구-한국 직업교육훈련기관-수원국 직업교육훈련기관-산업수요 기반 교육과정'이 연계된 ODA형 전문기술인력 양성모델로, 한국폴리텍대학이 보유한 현장 중심의 직업기술교육 역량을 개발도상국의 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에 활용하는 사례로 볼 수 있음



■ 기대효과

- 새로운 체류제도를 별도로 설계하기보다 국가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와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취업-정착으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 경로를 구축할 수 있음. 기존 제도와 재원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유학생의 체류 안정성과 지역 정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효율성이 높음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와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기반을 연계하여 농식품, 미래모빌리티, 농기계, 조선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중간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 교육과정에 현장실습과 기업 맞춤형 훈련을 강화하고 졸업 이후 취업 체류자격 전환과 기업 매칭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한 학습자가 아니라 지역산업의 실질적인 인력으로 연결할 수 있음

자. 지역산업 연계 유학-취업-정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확대)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 인력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유학생 유치는 대학 학생 층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유학생의 전공과 역량이 지역 내 산업 및 기업의 수요에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유학생의 지역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평가됨
- 유학생의 입학정보와 전공, 한국어 능력, 교육 이수, 현장실습, 자격 및 취업희망 등의 정보가 도·시군·대학·유관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유학생의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기업 역시 채용에 필요한 유학생의 역량과 경력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입학부터 졸업과 취업 이후까지 주요 이력을 통합·관리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와 연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재정보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국토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유학생의 77.9%가 졸업 후 대학 소재 광역권 내 기업에 취업하여 체류할 의향이 있으며, 가장 필요한 취업지원으로 인턴십 기회를 제시함. 지역산업의 인력수요를 반영한 유학생 유치와 교육, 현장실습 및 기업 매칭을 강화하고, 유학생의 역량과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취업과 지역 정착까지 연계하는 전북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전북 글로벌 인재 원스톱센터 운영
 - 도 국제협력 부서,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도내 대학 및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의 기존 기능을 연계하여 단일 브랜드의 통합창구를 운영함. 원광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 지역상생사업으로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틀을 활용하여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로 확대·운영
 - 원스톱센터에 체류·생활 상담과 취업·기업 매칭 기능을 마련하고, 대학의 유학생 지원사업, 앵커사업 및 글로벌 사업, 도내 ODA사업과 공동으로 활용함. ODA 협력국의 인재 발굴부터 입학, 한국어교육, 취업, 지역 정착 등 전 과정을 지원

○ 체류 및 취업경로 내비게이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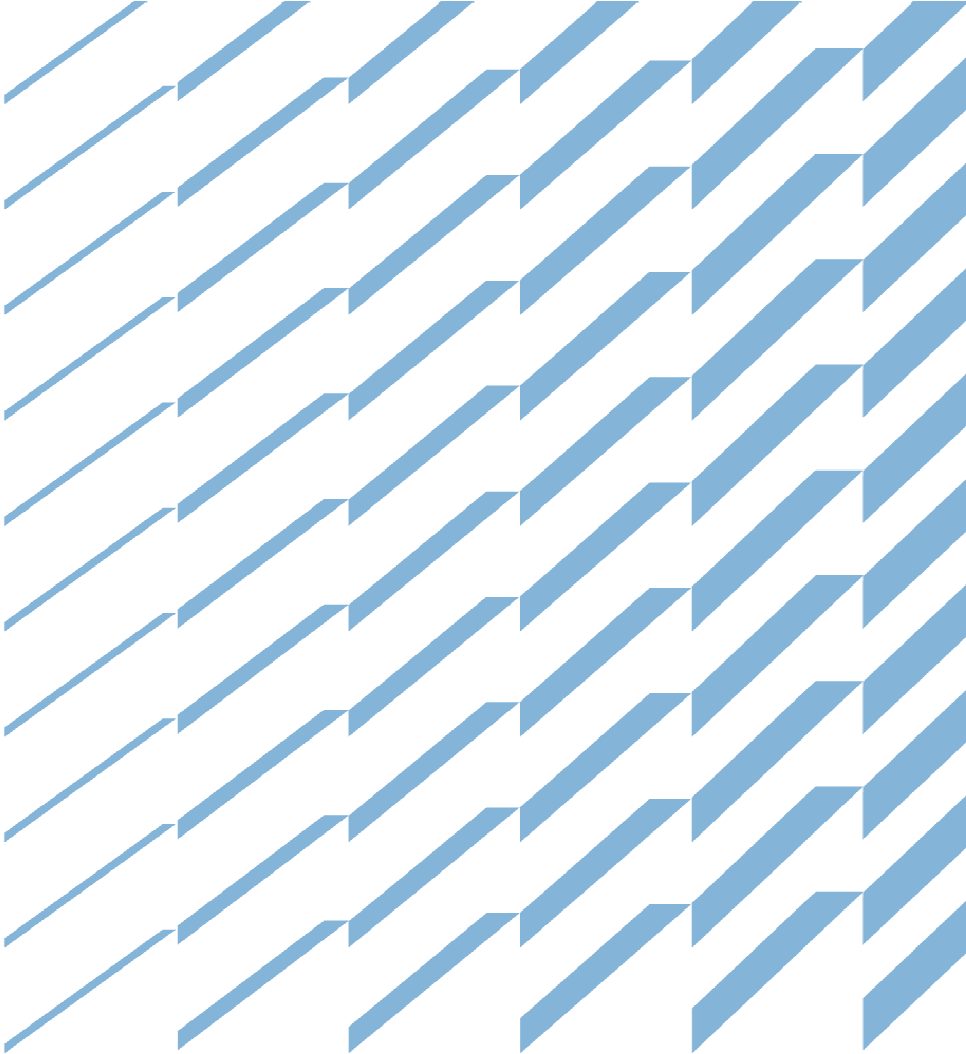
- 유학생이 전공, 학위과정, 한국어 수준, 교육 이력 및 희망 취업처 등을 입력하면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인턴십 정보, 취업분야, 체류요건, 준비서류, 일정 등을 안내하는 다국어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함
- 기업에는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인재의 전공·기술역량, 고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기관 등을 정리한 간편 안내서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을 완화함. 관련 제도와 ODA사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점검

○ 통합 이력관리 및 지역 수용성 강화

- ODA 협력국의 현지 선발과 사전교육 단계부터 입학, 학업, 한국어 능력, 현장실습, 취업, 지역 정착 및 귀국 후 활동까지 개인별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함. 유학생과 지역주민 간 교류, 시군 생활·문화 이해 프로그램, 기업 대상 다문화 인식교육 등을 운영하여 유학생의 지역 이해도와 기업·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임. 아울러 귀국 유학생과 ODA 연수생을 전북의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로 관리하여 후속 ODA사업과 기업의 해외 진출 및 지역대학의 국제교류에 활용함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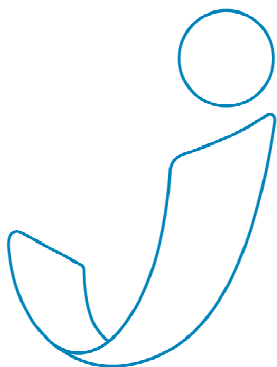
- 분산된 유학생 지원·취업·체류제도를 통합하여 직업계고·대학·ODA사업으로 양성된 글로벌 인재의 도내 취업과 정착을 지원함.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채용 부담과 인력난을 완화하고 전북형 유치-양성-정착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제5장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제5장 결론

1. 결과 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대학의 입학자원 확보 수단에 한정하기 않고 지역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낼 글로벌 인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유학생 유치 전략을 국가와 전공 분야, 유입방식 등의 다변화,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의 안정적 확보 등으로 바꾸어나가야 함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ODA사업과 협력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의 잠재력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도내 대학의 특성화 분야 및 교육과정을 지역산업의 인력 수요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인재 발굴부터 유치·교육·취업·정착까지 이어지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경로를 구축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국내와 전북의 ODA사업 추진현황,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및 실태, 국내외 ODA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 이를 토대로 ODA 협력기반과 지역대학의 교육역량, 지역산업의 인력수요, 취업·정착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전북형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안함

■ 연구 내용

- 국내 ODA사업의 추진 유형과 분야별 특성을 살펴보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인재양성 ODA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의 추진방향과 제도적 기반을 분석함.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ODA사업 추진현황과 협력국, 사업 분야, 추진주체 및 전달체계를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교육·취업·정착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외국인 유학생 관련 분석으로는 전북지역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별·국적별·과정별 현황과 지역 취업·정착 여건을 파악하고, 국내외 ODA사업을 활용한 인재 발굴·유치·교육·취업·정주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사례를 분석함. 국내 사례는 사업 주체와 인재 유치 방식에 따라 ① 초청연수 기반형, ②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 ③ 국제기구 연계형, ④ 지자체 주도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초청연수 기반형은 KOICA 석사학위연수(SP)와 글로벌연수(CIAT), 정부초청외국인장학사업(GKS)이, 대학 교육과정 연계형은 국제협력선도대학사업이, 국제기구 연계형은 세계농업대학이, 지자체 주도형은 지역대학·기업·지역특화형 비자를 결합한 통합형 유치모델이 대표적임
- 국외 사례는 일본·독일·호주를 대상으로 지역거점성과 산업·분야 특화성의 두 축을 설정하여 일반형, 분야특화형, 지역연계형, 지역·분야특화형으로 유형화함
 - 독일 EPOS와 호주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가 일반형에, 독일 호엔하임대학교 AgEcon과 호주 John Allwright Fellowship이 분야특화형에, 독일 파더보른대학교 InRegioFIT가 지역연계형에, 독일 플렌스부르크대학교 SEDev와 호주 애들레이드대학교-베트남 Fellowship이 지역·분야특화형에 해당함
- 정책분석 및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방안 마련함. ODA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실시하여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사업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함

■ 연구 결과

- 정책 목표는 ODA사업 연계를 통한 인재 유입 확대와 지역대학 활성화로 설정하고 발굴·선발·유치로 이어지는 ODA사업 발굴의 단계별 전략을 마련함. 지원 범위는 고등학생부터 박사과정까지 교육 전단계를 포괄하고 중앙부처·국제기구·지자체·대학을 잇는 다층적 협력 방안을 제시함

○ 비전을 ‘ODA로 세계와 인재를 잇는 글로벌 전복’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3대 전략, 전략별 3개씩 총 9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함

- ODA사업 연계 유치 경로 신설로 유학생 저변 확대, 지역 특화산업 맞춤형 인재유치로 지역 상생형 유학생 확대, 유학생 유치-정주를 잇는 파이프라인 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
- ODA 네트워크 기반 인재통로 구축, 대학-국제기구 거점 연계 학위과정 유치 확대, 교육유형별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업 연계 정주지원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전략별로 추진과제를 3개씩 제시함

[표 5-1] 전략별 추진과제

전략	전략 세부내용	추진과제
ODA 네트워크 기반 인재 통로 구축	■ 전복 우호협력국 및 ODA 협력국을 기반으로 한 전략국가·전략분야 선정 ■ 국제협력진흥원·KOICA·KOPIA 등 기존 ODA 사업 연계 인재유치 경로 발굴 ■ 전략국가 현지 수요를 반영한 글로벌 인재 발굴·추천 네트워크 구축	■ 전복형 ODA 글로벌 인재협력 네트워크 구축 ■ 새만금 한글학당 확대를 통한 전복 유학 브릿지 사업 ■ 우호협력국 연계 지역주도형 ODA 인재교류사업
대학-국제기구 거점 연계 학위과정 유치 확대	■ 전복 주요 거점대학의 특성화 학위과정과 연계한 지역 산업 맞춤형 유학생 유치 ■ 국제기구 개발협력 의제와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재 양성체계 구축 ■ 도내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및 국제개발협력 학위과정 운영 강화	■ 세계농업대학 글로벌 농생명 인재양성 거점 확대 ■ 전복 주력산업 연계 글로벌 하이테크 전문인력 양성과정 신설 ■ GKS 연계 지역특화 장학·학위과정 유치 확대
교육유형별 맞춤형 인재양성 및 산업 연계 정주 지원	■ 직업계고-전문대학(폴리텍)-일반대학-대학원 교육단계별 맞춤형 유학생 유치사업 운영 ■ 유학생의 교육수준, 전공, 진로경로 등을 고려하여 지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단계별 인재양성체계 구축 ■ 지역산업 수요 연계한 유학생 취업·정주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 전복형 글로벌 직업계고 유학생 인재양성 트랙 구축 ■ 전문대학·폴리텍 연계 글로벌 숙련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 ■ 지역산업 연계 유학·취업·정주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 정책 제언

■ 전북특별자치도 ODA사업의 통합 관리 및 조정기능 확립

- 전북특별자치도의 ODA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도내 대학, 농촌진흥청, 전북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사업은 ODA사업으로 명확하게 분류·관리되지 않아 도내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전체 규모와 내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ODA 평가 대상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전체 시행기관으로 확대되는 만큼, 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분류하고 추진 현황과 성과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서 제안한 'JB 글로벌 인재협력 협의체'가 실효성 있는 총괄·조정 기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운영을 담당할 전담부서를 명확히 지정해야 함. 또한 기관별 사업계획과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유사·중복사업의 조정과 기관 간 연계사업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를 통해 분산된 ODA사업을 전북의 국제협력 및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정책적 파급효과를 높여야 할 것임

■ 조례 정비를 통한 ODA-유학생 연계사업의 근거 확보

-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 ODA사업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에 일부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조례가 ODA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충분히 담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외 현지에서 유학생을 발굴하고 사전교육을 거쳐 초청하는 등 국내 입국 이전 단계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해외 현지 유학생 발굴 및 사전교육, ODA 연수생의 국내 대학 학위과정 연계, 협력국

정부·대학과의 인재 추천 및 교류 협약 체결, 국제기구 장학사업의 유치·운영, ODA-유학 연계 글로벌 인재 통합 DB 구축·운영 등을 지원사업의 범위에 명시해야 함. 이를 통해 ODA사업과 유학생 정책을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유학생의 발굴·교육·유치·취업·정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비·국제기구 자원 활용의 다변화

- 지방비만으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과 정주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국비 장학사업과 국제기구 자원은 학비·생활비 지원에 활용하고, 지방비는 초기 정착과 취업·산업 연계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자원 분담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ADB, 세계은행, UN 산하기구, FAO 등이 운영하는 장학·연수·인재양성 사업 가운데 국내 대학의 참여가 미흡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음. 전북의 농생명·식품·농촌개발 분야 특성화 학위과정과 ODA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제기구 협력기관 지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관련 재원을 확보하고 국제 인재양성 분야에서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전북특별자치도 ODA사업 고도화를 위한 후속연구 추진

- 이 연구는 정책자료, 통계자료, 국내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협력국 현지의 유학 수요와 인재개발 수요를 직접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의 우호·협력국 가운데 중점 대상국을 선정하고, 현지 정부·대학·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수요 조사와 도내 산업별 인력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과 유학생 유치모델을 구체화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또한 도내 대학의 GKS 운영 현황과 ODA사업 참여 실적,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별 진로·취업 이력 등에 관한 자료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분석에 제약이 있음. 향후 기관별 자료를 통합하여 전북 ODA사업의 추진 현황과 성과, 유학생의 유치·교육·취업·정주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ODA사업의 자원 규모와 법적 근거, 추진체계, 중앙정부 사업과의 역할 분담 등을 검토하여 전북형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참 고 문 헌

REFERENCE

- KOICA. (2018). 『KOICA 석사학위연수 성과평가』.
- KOICA. (2020).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연수사업 길라잡이』.
- KOICA. (2025a). 『개도국 산업인력양성 프로그램 연구』.
- KOICA. (2025b).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발전을 위한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 관계부처 합동. (2015).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관계부처 합동. (2023).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관계부처 합동. (2025).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2주년 주요 성과』. 교육부.
- 관계부처 합동. (2026).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 교육부. (20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교육부. (2026).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재구조화』.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2022).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주요 성과』.
-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2010). 『분야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김혜경. (2016).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박광동. (2014). 『지자체 ODA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 협동 연구총서.
- 박주현. (2023).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정주'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논의」. 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박지애·전아람·김태연·노보람·남태훈·유기. (2025).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위한 지자체·대학 협력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TFT 연구보고서.
- 박지연. (202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결정 요인 분석」.
- 법무부. (2025.9.23.). 『과학기술의 미래를 여는 우수인재 정착 유도를 위한 K-STAR 비자트랙 신설』.
- 서연미 외. (2025).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 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5). 『베트남 하이테크 농업발전을 위한 호치민국립대 농과대학 교육·연구 역량강화 변경 사업실행계획서』.
- 손윤희 외. (2025).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실태와 이슈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신승용. (2020). 『지방정부의 ODA 규모 결정요인 분석』.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종호. (2012). 「ODA(공적개발원조), 지자체가 함께 된다」. 『이슈&진단』, 제66호. 경기개발연구원.
- 원광대학교. (2026). 『세계농업대학 설립 계획서: 글로벌 스마트농생명 인재양성 센터 중심』.
- 이운주·김명광. (2023).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체류 장벽 고찰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5(4), 107-134.
-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 (2025). 『전북특별자치도 ODA 방향 및 추진전략 내부자료』.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2026). 『전북형 개발협력사업 및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실적자료』.
-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 (2025). 『베트남 수의학과 신설 및 축산 분야 교육·연구역량 강화사업 관련 자료』.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전라북도 ODA(공적개발원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
- 전북특별자치도. (20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계획서』.
- 전희진·전아람. (2026). 『전북자치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정착 경험 연구』. 전북연구원, <https://repository.jthink.kr/handle/2016.oak/1553>
- 정예은. (2021). 『지방자치단체 ODA조례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소벤처기업부. (2026).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중소기업 연계 지원 모집 공고』.
- 최수정·김창길·유현주·김고현·박주원·송희. (2020). 『개도국 농업인재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최영출·김가민·전운서·카발리니연아. (2023). 「지방자치단체의 ODA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 한국교육개발원. (2020).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 분석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2). 『직업교육훈련(TVET) 분야 ODA 후속사업 발굴 연구』.
- 한국산업인력공단. (2024).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운영기관 모집 공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위한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 분야 ODA 정책 지원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5).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의 의의와 과제』.
해양수산부. (2015).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 제안서』.

김락현. (2026.4.1.).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81개 개도국 인재 양성 거점 도약」. 『경북매일』.
김명규. (2026.5.25.). 「개도국 학생들 대구서 ‘K-스마트농업’ 체험」. 『대구일보』.
김용락. (2026.5.24.). 「대구시, 글로벌 새마을 리더와 ‘K-스마트농업’ 프로그램 운영」. 『뉴스핌』.
박종석. (2025.9.11.). 「“에티오피아에 희망의 싹을”…화천군, 6·25 전쟁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아주경제』.

열린정부. (2026.7.5.). 「15개국 새마을 리더, 대구 치맥페스티벌서 글로벌 축제 노하우 배웠다」.
영남대학교. (2026.3.31.). 「박정희새마을대학원, 누적 입학생 출신국 81개국으로 확대」. 보도자료.
연합뉴스. (2026.2.26.). 「[그래픽]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ODA) 증점협력국 현황」.
최승현. (2018.8.20.). 「‘쪽방촌 아이가 의사로 성장’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10년 292명 혜택」. 『경향신문』.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2021). ACIAR capacity building program: Monitoring, evaluation and learning framework.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2023). 40 years of ACIAR. DAAD. (2014). Annual report 2013.

DAAD. (2025a). Development-related postgraduate courses 2026/27: Educating professiona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AAD. (2025b). Scholarship programmes: Results and impacts of support with funds provided by the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for 2024.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4). Mekong-Australia Partnership.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5a). Australia Awards Fellowships—Round 20 fact shee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5b). Australia Awards Fellowships round 21 guidelines.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2026). Australia Awards Scholarships policy handbook.

- Epson. (2024). Epson and JICA renew partnership for edu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 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5). SEDev curriculum: Graduate development process at SEDev.
- 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6a). Collaboration and connectivity.
- Europa-Universität Flensburg. (2026b). Global energy students bring expertise to Mayo's Erris region.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4). Advancing digital and green skills for youth in ASEAN.
- JICA. (2022). JICA Development Studies Program.
- JICA. (2023a). 『유학제도를 활용한 주요 인재육성사업』.
- JICA. (2023b). The JICA-DSP Local Program in the Field of Private Sector "Epson's History of Community-based Development".
- JICA. (2025). Details for Agri-Net for Food Security 2025, University List for Applicants of Agri-Net.
- JICA. (n.d.). JICA-DSP Offered by Obihir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Veterinary Medicine.
- JICA Côte d'Ivoire. (2025). Browse Agri-Net.
- Leipzig University. (2021). MBA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development.
- Radloff, A., Haddow, A., & Edwards, D. (2024). Australia Awards alumni longitudinal global tracer survey 2023.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University of Hohenheim. (2025a). DAAD scholarships—M.Sc. Agricultural Economics.
- University of Hohenheim. (2025b). M.Sc. Agricultural Economics: Master Info Days 2025.
- Webb, S. (2021). John Allwright Fellowship Program: Tracer Study 2010-2019.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아이치현. (n.d.). Aichi Scholarship Program Participant Numbers.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ttps://www.opm.go.kr>

국립국제교육원 Study in Korea. <https://www.studyinkorea.go.kr>

GKS. <https://www.gks.go.kr>

KOICA. <https://www.koica.go.kr>

ODA 통합누리집. <https://www.odakorea.go.kr>

외교부. <https://www.mofa.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elis.go.kr>

전북국제협력진흥원. <https://jbica.kr>

JICA. <https://www.jica.go.jp>

정책연구 2026-18

ODA사업 연계 전북형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 연구

발 행 인 | 최 백 렬

발 행 일 | 2026년 8월 31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651-4 9535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6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농촌 식품사막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전북자치도 농촌지역 마을소멸 분석 및 대응 전략: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관세탄력성 분석: 대미수출을 중심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관광객 실태조사
전북형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축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맞춤형 메디컬 푸드 산업 육성 방안 연구
전북 Physical AI 기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략 연구
전북형 기본사회 추진전략 연구

정책연구

기후변화 및 변화의 시대 농업분야 대응 방안
전북형 수산업 특화 발전방안 연구
전북 지역균형발전 권역 협의체 구성 및 공동사무 발굴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성과관리 방안 연구
노화융합기술연구원 설립 방향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농촌주민 역량 강화 농촌경제사회서비스 교육과정 체계화 방안
청년 정주형 지역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농촌특화마을 클러스터 구축 연구
전북자치도 외국인정책의 전략적 대응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미식관광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지역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환경영향평가 협의모델 개발
전북 삼천리길 추진상황 점검 및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산불 예방 대책 및 대응체계 개선
제5차 섬발전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대응 방안 연구
익산미륵사지휴게소 고속도로 환승시설(EX-HUB) 타당성 검토
전북자치도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기초 연구
전북자치도 신중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육성사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전북형 수출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연구
전북형 지역거점 창업도시 모델 개발
전북과학기술원 기본방향 설정 연구
피지컬AI 기반 첨단 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위한 전북형 모델 마련 방안
전북형 재생에너지 기반 소득모델 마련 방안
전북자치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기본방향 연구
스마트농업 혁신 AX 거점 육성 전략 연구
동물헬스케어 산업 발전 방안
곤충산업의 그린바이오산업화 연계 발전방안 및 육성전략
자치단체 ODA사업 연계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지원 방안 연구
전북사랑도민증 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현안연구

새만금 RE100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여건 기초조사
통합돌봄 시행 대비 전북형 통합돌봄 지원 실행계획 수립
전북체육역사기념관 설치 적합성 검토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사회적·경제적 효과 분석
광역행정통합 특별법 연계 전북특별법 특례 추진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